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몽골인을 위한 한국어 동물 속담
교육 연구

- 한-몽 대조를 활용하여 -

2014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바야르 에르데네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선옥

몽골인을 위한 한국어 동물 속담
교육 연구

- 한-몽 대조를 활용하여 -

Study on the Korean Education of Proverbs
for Mongolian

- Comparing Korean and Mongolian -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바야르 에르데네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선옥

몽골인을 위한 한국어 동물 속담 교육 연구

－ 한-몽 대조를 활용하여 －

Study on the Korean Education of Proverbs
for Mongolian

- Comparing Korean and Mongolian -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바야르 에르데네

바야르 에르데네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몽골인을 위한 한국어 동물 속담 교육 연구

- 한-몽 대조를 활용하여 -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바야르 에르데네

본 논문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몽골인 학습자들에게 한-몽 교육용 속담을 통해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어 교육용 속담 중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물 속담으로 한-몽 대조 연구를 하였다. 한-몽 속담 대조를 통하여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진행할 때,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더 넓고 더 많은 지식을 얻어서 의사소통과정에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1장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한-몽 학습자를 위한 동물 속담 교육 연구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제2장에서는 한국어 교재 10종 및 한국어 속담 책 3종, TOPIK(1회-27회)에 수록된 교육용 속담을 살펴보고 이 모든 자료에 수록된 속담을 한국어 교육용 속담으로 정리하였다. 교육용 속담 중 속담 속에 동물이 등장 하는 속담을 한국어 교육용 동물 소재 속담으로 뽑았다.

제3장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동물 속담을 다음 3가지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한-몽 동일 의미의 속담이 모두 동물 소재로 하는 속담 둘째, 한-몽 동일 의미의 속담인데 몽골 속담에서는 동물이 아닌 다른 소재로 하는 속담 셋째, 몽골어에는 유사한 속담이 없는 독자적인 한국어 속담이다. 다음으로 한국 속담에 나타난 대표적인 동물을 통해서 동물의 상징 의미를 알아

보았다. 그 결과로 속담 속에 내포되어있는 두 나라의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 볼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방법을 한-몽 동일 의미의 속담이 모두 동물 소재로 하는 속담과, 한-몽 동일 의미의 속담인데 몽골 속담에는 동물이 아닌 다른 소재로 하는 속담의 교육을 중급(4급) 단계로 살펴 보았다. 속담 교육을 할 때 속담 속에 나타난 동물의 상징 의미, 그 속담을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속담의 상징 의미를 가지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한국어 교육용 속담, 몽골인 학습자, 상징 의미, 속담 교육, 동물 속담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 2 절 연구 대상과 방법	2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3
제 2 장 한국어 교육용 속담	8
제 1 절 속담의 개념과 특징	8
제 2 절 한국어 교육용 속담의 현황	12
제 3 절 한국어 교육용 동물 속담 목록	15
제 3 장 한-몽 동물 관련 속담 비교 대조	20
제 1 절 한-몽 동일 의미 동물 소재 속담	21
제 2 절 한-몽 동일 의미 다른 소재 속담	39
제 3 절 독자적인 한국어 동물 속담	50
제 4 절 속담에 나타난 동물의 상징 의미	58
제 4 장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속담 교육 방법	94
제 1 절 한-몽 동일 의미 동물 소재 속담 교육 방안	96
제 2 절 한-몽 동일 의미 다른 소재 속담 교육 방안	106
제 5 장 결 론	114

표 목 차

<표 1> 사전별 속담의 개념	8
<표 2> 한국어 교재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나온 교육용 속담, 교육용 동물 속담 분포도	14
<표 3> 동물 속담의 빈도	16
<표 4> 한국어 교육용 동물 속담 목록(가나다순)	18
<표 5> 한-몽 동일 의미 동물 소재 속담에서 나타난 동물이 종류와 빈도수	38
<표 6> 한-몽 동일 의미 다른 소재 속담에서 나타난 동물이 종류와 빈도수	49
<표 7> 독자적인 한국어 동물 속담에서 나타난 동물이 종류와 빈도수	56
<표 8> 한국어 교육용 동물 속담에 등장하는 동물의 빈도수	57
<표 9> 개의 상징 의미	64
<표 10> 소의 상징 의미	68
<표 11> 호랑의 상징 의미	72
<표 12> 닭의 상징 의미	76
<표 13> 고양의 상징 의미	81
<표 14> 쥐의 상징 의미	83
<표 15> 개구리의 상징 의미	86
<표 16> 까마귀의 상징 의미	87
<표 17> 꿩의 상징 의미	90
<표 18> 교육용 동물 속담에 등장하는 동물의 상징 의미	9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와 몽골어의 비교·대조 방식을 활용하여 한국어 동물 속담을 효율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보다 실질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한국어 속담을 활용한다면 한국어를 더 넓게 이해하고, 더 많은 지식을 얻도록 하여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한국과 몽골은 수백 전부터 역사와 문화를 교류하여 왔다. 지금의 현대적 교류는 1990년 3월 26일에 몽골과 대한민국 간에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체결된 이후 이루어졌다.¹⁾ 이후부터 두 나라의 국민들은 서로의 언어, 문화,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몽골에서 한국어는 대학에서 외국어로 가르치는 언어로 선정되었으며 그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많은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었고 한국어 전공 과목, 선수 과목으로서의 한국어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어 단기 과정 및 강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한국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에는 수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언어 자체만을 익히는 것보다 한국인의 사고 방식과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몽골인들도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의 다양한 사과방식과 삶, 문화와 생활 풍속, 사회 가치관 등을 이해할 수 있다면 더욱 더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문법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표현들은 외국어 학습자의 경우에 이해하기가 더 어렵고 그것을 활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속담이다. 이희승 (1982)은 ‘속담은 말 중의 보옥이요, 말 속의 꽃이요, 말 속의 별이다. 속담은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속담은 그 민족의 독특한 예지와 정서와 심리도 함께 포함하고

1) 자미안 바트르르(2011), 『20세기 한국 몽골 관계사』, KM 미디어.

있다²⁾라고 하였다. 더불어 이기문 (1982:6)은 ‘그 민족을 알려면 그 속담을 알아야 하고, 그 속담을 모르고는 그 민족을 말한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속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몽골 문학자 게. 린첸삼보 (Г.Ринченсамбуу) 는 ‘속담 밖에 버려진 세상일은 없다’고 하였다. 속담 속에는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물과 현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몽골에서는 ‘비유가 없는 말이 없다, 슬기가 없는 텔³⁾이 없다(Зүйргүй үг бай даггүй, Зүй дэлгүй дээл бай даггүй) (Zuirgui vg baidaggui, Zuidelgui deel baidaggui).’는 속담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속담은 어느 민족에게나 있는 것으로 문화, 역사와 함께하며 그 말 속에는 그 민족 나름의 독특한 지혜, 정서, 풍습, 사회 제도, 그 시대의 사상이 깃들여 있다.

속담은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몽골인의 한국어 학습은 물론이고 한국인의 몽골어 학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속담에 대한 비교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같은 동북아시아의 나라로서의 한-중, 한-일 동물 속담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돼 왔지만, 한-몽 속담 연구는 아직 없는 것이 이 연구가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라고 본다.

제 2 절 연구 대상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몽골어의 교육용 속담 중 동물을 포함한 속담을 중심으로 대조 연구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용 속담 중에서 동물 관련 속담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속담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실제로 동물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과 몽골인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몽골의 속담을 비교한다면 그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통하여 두 나라의 언어, 역사와 문화적 차이까지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언어 교류, 문화 교류에도 도움이 되리

2) 밤바체렐 받돌가. (2013). 한국과 몽골의 속담 비교 연구 ‘말馬’ 관련 속담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3) 몽골 천둥 옷

라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구성하고자 한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대상과 방법을 제시하고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2장에서는 속담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속담의 개념과 속담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정리한다. 또한 한국어 교재를 통해 속담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용 동물 관련 속담 목록을 분석 할 것이다.

3장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동물 대상으로 하는 속담을 다음 3가지 단계로 등급화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한-몽 동일 의미 동물 소재 속담, 둘째, 한-몽 동일 의미 다른 소재 속담, 셋째, 독자적인 한국어 동물 속담이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속담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동물의 상징 의미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서 한-몽 속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동물 속담의 상징 의미를 바탕으로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속담 교육 방안 연구를 한-몽 동일 의미 동물 소재 속담 교육의 실제, 한-몽 동일 의미 다른 소재 속담 교육의 실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는 속담이나 교육용 속담에 대한 연구물이 많지만 몽골에는 이렇다 할 동물 속담 사전, 연구물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연구 하는 동안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한국의 경우 송재선(1997)의 『동물속담사전』을 속담에 대한 기초 정보를 얻는 기본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몽골의 경우에는 N.Nyam-Osor, B.Ulziisvren(2011)의 『Mongol helnii zuir tsetsen vgiin tailbar toli』 (Н.Ням-Осор, Б.Өлзий сүрэн(2011)의 『Монгол хэлний зүйр цэцэн үгий н тай лбар толь』)을 기본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전에 수록된 전체 속담 수는 10,000여 개에 이른다.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한국에서는 속담에 관한 연구는 오래 세월에 걸쳐 왔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용 속담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우선 한국어 교육용 속담에 대한 연

구들을 살펴본다. 김정아(2002)는 5개 한국어 교재(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한국외대, 가나다 한국어학원)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각 교재에 제시된 속담이 주제 면에서 공통점을 갖지 못하고, 속담의 수준에 대한 기준이 부재함을 지적하면서 교육용 속담 선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사용 빈도, 의미투명도, 문장 구조, 속담에 사용된 어휘를 고려하여 중급과 고급으로 나누어서 교육용 속담을 선정하고 등급화하였다.

전홍화(2010)는 빈도수에 의해 선정된 한국어 교육용 속담 63개를 중국어 속담과의 유사 정도에 따라 동형동의 14개, 이형동의 34개, 동형이의 9개, 대응 속담이 없는 것 12개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63개 속담을 학습용도에 따라 크게 어휘 교육용 26개와 문화 교육용 37개로 분류하였으며, 표현 교육용과 이해 교육용의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각각을 초급, 중급, 고급의 세 등급으로 하는 복선화된 등급화를 시도하였다.

주수정(2010)은 2개 한국어 속담 교재 『살아있는 한국어-속담』,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1, 2』에 수록된 속담 125개를 한국어 교육용 속담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속담들 중 한국어 범용 교재 7종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서울대, 연세대에 수록된 속담 77개를 최종적인 한국어 교육용 속담으로 선정하였다. 이 77개 속담을 사용 빈도가 높은 속담, 사용 상황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속담, 직접적인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속담, 한국 문화를 적절히 드러낸 속담, 구성 어휘와 문법이 학습자의 단계와 맞는 속담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구성 어휘와 문법의 난이도, 의미투명도, 빈도수가 따라 초급용 13개, 중급용 38개, 고급용 26개로 등급화하고 연구했다.

장소영(2011)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속담을 선정하고 효율적인 속담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출판된 여성결혼이민자용 한국어 교재 14종을 분석하여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용 속담 목록을 제시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자녀 교육 지도를 위해 필수적인 초, 중등 국어교과서 속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교육용 속담 목록을 중, 고급 단계로 나누어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속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임성옥(2011)은 한국어 교육용 속담의 선정과 등급화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기 위해서 10개 한국어 범용 교재(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선문대, 성균관대, 신리대, 이화여대, 서울대, 연세대), 한국어 속담 교재 3개, 『살아있는 한국어-속담』, 『속담100 관용어 100』,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TOPIK 제1회(1997)~제18회(2010)를 고찰하고, 선정 대상 350개 한국어 교육용 속담을 조사하여, 한국어 교육용 속담의 등급화의 기준을 빈도와 난이도로 정하고, 각각을 분석하여 그에 따라 한국어 교육용 속담을 등급화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스페인어권 학습자를 위하여 스페인어 대응 속담과의 유사성, 의미 투명도, 어휘 난이도의 각각 분석하고 그에 따라 한국어 교육용 속담을 등급화하였다.

박현주(2011)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한국어 속담 학습을 돕기 위해 국내 교육기관별 한국어 교재 5개에 제시된 속담, 한국어능력시험 1회~18회에 출제된 속담, 일-한 유사 속담 사전, 일본속담사전에 제시된 속담의 분석을 통해 한-일 양국의 속담을 동물, 사람, 음식 등 소재별로, 언어, 인생, 가정, 사회, 지능, 사리, 행위, 심성 등 주제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또는 한-일 속담의 유사점과 차이점 중심으로 비교-대조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속담 교육을 방안을 중급 단계에서는 어휘 활용, 비교 교육, 시각 자료 활용, 기타 등, 고급 단계에서는 신문, 광고 활용, TV 드라마 활용, 속담의 현대적 변용, 소재-주제별 분석 활용, 글쓰기(일기, 편지) 등으로 진행하여 분석하였다.

구정모(2012)는 7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속담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 속담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모든 교재의 초급 과정에서는 속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것은 초급 과정의 학습자들에게는 어려운 표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지만, 기본적인 어휘가 제공되는 속담의 경우에는 시각적인 자료나 그림카드 등을 통해 초급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교육기관의 교재에서 제시되는 속담의 기준, 수준 등이 일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교육용 속담 선정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인의 사용빈도가 높은 속담, 일상생활에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속담,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적절하게 드러내는 속담, 의미의 투명성 여부에 따른 단계별 학습을 고려한 속담, 교훈성과 일깨움을 지니는 속담 등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교육용 속담을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정리한 후 그 속담을 관용적 의미에 따른 교화형-경계형-사실전달형, 형식적 의미에 따른 비유형 간결-단순형, 구조적 의미에 따른 단문형-복합문형, 내용적 의미에 따른 동물 관련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동물을 소재로 한 속담의 연구를 살펴봤는데 이러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물을 소재로 한 속담 비교 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병웅(1992)은 동물 속담을 화자의 심리적 측면을 기초로 하여 고지형, 조롱형, 한탄형, 교도형, 위로형, 지시형, 공격형으로 분류하고 그 중 고지형과 조롱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윤근원(1998)은 1,579개 동물들을 포유류, 조류, 곤충류, 어류, 상상류, 갑각류, 파충류, 거미류, 양서류, 기타 등 동물종별로 나누어 연구했다. 위의 연구에서는 속담의 표현방법의 측면을 고려했지만, 단지 전승집단의 의식과 표현방법의 비유법을 분석하는 데 그쳤다.

류용현(2000)은 동물 속담의 음절수, 형식, 음수율, 음보, 서술, 형태, 표현법 등을 정확히 분석했다. 그리고 교육적 의미에 따라 경계형, 교화형, 풍자형, 사실 전달형, 권유형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풍자형과 사실 전달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밝혔다.

김미정(2003)은 중국의 띠와 관련된 열두 가지 동물을 소재로 한 중국 속담을 연구했다. 동물의 생태적 특성 및 독특한 사장에 관한 속담을 분석하여 중국인의 농경 사회적 특성과 유가사회적 특성을 분석했다.

한국어와 외국어 동물 속담을 비교 연구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먼저 중국어 속담과 비교한 연구로는 소연(2003), 장춘매(2005), 정달영(2007), 이극(2008), 김미애(2009), 류병천(2009), 류설비(2008)가 있다.

소연(2003)에서는 중-한 동물속담을 표층의미와 심층의미로 분류해서 상징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 연구하였다. 장춘매(2005)는 한-중 양국의 동물 속담을 비교하여 문화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속담을 이용하여 표현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

하였다. 정달영(2007)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속담 중 “말에 관한 속담 표현”을 수집 분석하여 두 나라 사람들이 말에 대하여 가지는 공통된 인식이나 차이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다시 소주제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이극(2008)은 한국과 중국의 동물과 관련된 속담을 비교하면서 양국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연구하였다. 김미애(2009)는 12지신 동물의 기본특성과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두 나라 동물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문화적 특징 등을 비교하였다. 류빙천(2009)은 “한-중 호랑이에 관한 속담 비교 연구”를 통해 12지 동물 중에서 ‘호랑이’에 관한 속담을 살펴보고, 이 속담들을 언어적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류설비(2008)는 “한-중 ‘소’에 관한 속담 비교 연구”에서 한국 ‘소’에 관한 속담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 속담을 문화언어학적 측면에서 비교 연구하고자 하였다. 먼저 ‘소’에 관한 양국 속담을 의미의 같고 다름에 따라 분류한 후 속담의 문화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일본 속담과 비교한 연구로는 정유지(2004)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소재로 한 속담을 분석한 후, 속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하여 한국과 일본의 동물 속담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몽 동물 관련 속담 비교 연구로서 밤바체렐 받돌가(2013)의 연구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사람들의 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한-몽 말과 관련된 속담의 형태상 비교를 동형동의, 동형이의, 이형동의 3가지로 나누어, 의미상 비교를 사람의 품성에 관한 속담, 노력과 능력에 관한 속담, 교훈적 속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속담 비교를 통한 한-몽 문화의 연관성을 밝혔다.

1990년대 이후 한-중, 한-일 동물 속담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한-몽 동물 속담 비교 분석 연구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몽골의 동물 속담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두 나라의 언어 교류, 문화 교류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될 것이라 기대된다.

제 2 장 한국어 교육용 속담

제 1 절 속담의 개념과 특징

한국에서는 속담이라는 말은 17세기 초에 기록이 발견되었으며,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다른 명칭들과 함께 널리 쓰이게 되었다. ‘속담’이라는 어휘 자체를 풀이하면 ‘속된 민족의 말’로 풀이할 수 있다. 15세기 중반 한글을 창제하기 전까지 민중들의 말을 문자로 기록하기란 사실상 어려웠으며, 속담에 대한 연구도 불가능했다. 21세기에 들어가면서 속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⁴⁾

속담이란 글자 그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익은 토속적인 표현의 말이며, 조상 대대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 왔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같고 닮여져 온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의해서 창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총체적인 유대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함께해 온 삶의 모습과 지혜가 솔직하고 담백하게 담긴 말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온 소중한 언어 유산이다.

속담은 포괄적인 관용구로 이어져 온 표현 양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을 규정하기가 어렵다. 많은 연구자들의 속담에 대한 여러 정의 중에서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견해로 인정되고 있는 것들을 기초로 하여 속담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사전별 속담의 개념

사전 명	속담의 정의
『우리 말 큰 사전』 ⁵⁾	1. 민간에 전해 오는 쉬운 격언 2. 속된 이야기.
『새우리말 큰사전』 ⁶⁾	어느 때, 어디서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나 그것이 그 주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동감을 얻고 널리 퍼져서 온민족에게 공통된 격언.
『국어대사전』 ⁷⁾	1.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간의 격언어로 교훈 · 풍자 · 경험 · 유희 등의 뜻이 담긴 짧은 말.

4) 냉리나(2009), 개와 고양이 소재의 한중 속담 대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속된 이야기, 속설, 속어
『표준어국어대사전』 8)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 언속, 세상에 흔히 돌아다니는 쉬운 격언.
『대국어사전』 9)	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동감을 얻고 널리 퍼진 격언.

위와 같은 사전별 속담의 개념을 통해 속담은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위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속담에 대한 정의 다음과 같이 내렸다.

첫째, 옛날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 격언이다.

둘째, 교훈·풍자·경험·유희 등의 뜻이 담긴 짧은 말이다.

셋째, 민족의 경험과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이다.

넷째, 세상에 흔히 돌아다니는 알기 쉬운 말이다.

속담은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며, 민중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자주 접하는 어휘이기 때문에 그 주제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 중에서 동물을 소재로 하는 동물 관련 속담도 상당수 전해져 오고 있다.

속담은 어떤 사실을 비유적으로 서술하는 데 쓰이는 관용어구로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오는 교훈적 의미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어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도 갖고 있다. 속담의 특성에 관한 연구자들의 견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다.

첫째, 속담은 비유적으로 표현된다. 속담은 어떤 구체적인 사례(또는 사실)를 비유적으로 들어 추상적 보편적 진리를 구체적인 사실로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속담은 어떤 사실을 비유로 표현하는데 쓰이는 관용구’¹⁰⁾ 라는

5) 한글학회(1997) 『우리 말 큰 사전』, 어문각.

6) 신기철·신용철(1985),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7) 이희승(2002),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8)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어국어대사전』, 두산동아

9) 이승녕 외 4인(1984), 『대국어사전』, 삼영출판사.

10) 심재기(1986), 한국어 관용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관악어문연구> 1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개념 설명에서 나타나듯이 속담의 특성 중 하나를 비유로 볼 수 있다. 비유의 방법에는 은유, 직유, 점층, 대구, 풍유 등 비유법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기법이 드러난다.

둘째, 속담은 시대성을 반영한다. 각 시대마다 민중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속담은 생성된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전해져 내려온 속담 중에는 현재의 사고방식과 거리가 있는 봉건적 속담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귀머리가 3년, 병어리 3년, 장님 3년.’ 등이 있다. 속담은 농경사회에서 대부분 생성되었기 때문에 속담에 쓰인 어휘들은 농경사회와 접하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보리 가시랭이가 깔끄러우냐, 팽이 가시랭이가 깔끄러우냐?’(성미가 매우 까다로운 사람),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콩에서 콩 나고, 팔에서 팔 난다.’ 등이 있다. 속담은 사람들의 생활 경험에서 창출되고 그들의 언어생활이 반영되어 있는데 언중의 생활 경험은 곧 그 시대의 사회상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속담은 사회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속담에는 민족성이 나타난다. 속담은 그 나라 민족의 특성, 정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민족의 역사, 종교, 미신, 풍속, 제도, 인정 등을 관찰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넷째, 속담은 풍자적이고 교훈적 의미를 지닌다. 속담을 사용하여 화자는 속담의 표면적 의미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적이고 풍자적인 의미를 함축적으로 전달한다. 예를 들어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는 상대방에게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평탄한 길이 열린다.’는 말로 풍자의 의미를 지닌다. 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벗어날 길은 있다.’는 뜻으로 절망을 경계하는 풍자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속담은 음절, 대구 등의 외형 구조상 조화를 지닌다. 속담은 구비문학으로 화자가 쉽게 기억,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속담은 상당수가 전통 시가의 기본 음수율인 4음절의 반복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산에 가야 뱀을 잡고, 바다에 가야 고기를 잡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왕이면 다홍치마.’ 등이 4음절의 반복으로 되어 있다. 또한 복합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등 대구법이 쓰여서 조화를 이룬다. 또한 음절이나 단어가 반복되어 리듬감을 살리는 속담도 많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뽕 먹고 알 먹고’ 등은 단어가 반복되어 리듬감을 주고 있다.

여섯째, 속담에 쓰이는 어휘는 비속어가 많다. 속담에 쓰이는 ‘놈’, ‘똥’, ‘똥’, 그리고 ‘개’와 합성어를 이루는 ‘개똥’, ‘개자식’ 등과 같이 비속어가 많은데 그 이유는 민중들의 일상생활에서 속담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자주 접하는 어휘이기 때문이다. 또는 속담이 관련 당사자를 비판하는 데 있어 비속어를 선택하기 쉽다는 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곱째, 속담은 중의적인 경우가 많다. 속담에서 중의적인 표현은 의미의 다양성 때문에 문학 작품에서 예술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의미의 애매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특히 속담은 비유적 중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인용하여 사용했을 때 오해를 받기 쉽다. 또한 속담의 중의적 의미를 알지 못할 경우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음은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속담의 예이다.

■ 개가 약과 먹은 것 같다.

의미① 개는 약과를 먹어도 그 맛을 모르듯, 다만 입에 넣어 먹기는 하지만,
그 진미를 모른다는 말.

의미② 일을 차근차근 하지 않고 건성건성 날리어 함을 비껴 이르는 말.

■ 나그네 보내고 점심한다.

의미① 인색한 사람이 겉으로 말로만 대접하는 체한다.

의미② 경우를 바로 알고서 일을 치르지 못한다.

■ 가난한 놈일수록 밤새 기와집 짓는다.

의미① 가난한 사람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또는 부를 얻기 위하여 갖가지 공상이나 궁리를 한다.

의미②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잘 보이려고 허세를 부린다.

이처럼 속담은 상황과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속담의 특징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속담은 첫째, 비유적으로 표현된다. 둘째, 시대성을 반영한다. 셋째, 민족성이 나타난다. 넷째, 풍자적이고 교훈적 의미를 지닌다. 다섯째, 음절, 대구 등의 외형 구조상 조화를 지닌다. 여섯째, 속담에 쓰이는 어휘는 비속어가 많다. 일곱째, 속담은 중의적인 속담이 많다고 정리할 수 있다.

제 2 절 한국어 교육용 속담의 현황

한국어 속담의 수는 대단히 많다. 이 많은 속담 중 어느 것을 한국어 교육용 속담으로 선정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고, 한국어 교육에서도 많은 교재 및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가르치고 있지만 각 교재마다 수록된 속담의 형태는 조금 다른 경우도 있다. 교육용 속담의 선정에 대한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를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된 한국어 교육용 속담 선정 기준은 사용빈도이다. 그러나 2011년도까지 연구에서 선정된 한국어 교육용 속담은 각각 다르며, 등급화 결과도 각각 다르다. 이에 대해 임성욱(2011)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속담의 선정과 등급화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하였다. 따라서 임성욱(2011)은 분석 대상이 되는 한국어 교재 10종 및 한국어 속담 책 3종, 한국어능력시험 제1회~제18회 분까지 합하여 총 31개 자료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용 속담 자료를 정리하였다. 조사 대상이 된 한국어 교육용 자료에 수록된 속담의 경우 이미 한국어 교재 혹은 한국어능력시험 등 전문가에 의해 교육용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딱 한 번이라도 대상 자료에 수록된 속담을 교육용 속담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성욱(2011)의 연구에 한국어능력시험 제19회~제27회 분에 수록된 속담을 추가 분석 연구 하였다.

본고에서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 대상이 되는 한국어 교재 10종 및 한국어 속담 책 3종, TOPIK(1회-27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에 수록된 교육용 속담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육용 속담으로 정리하였다¹¹⁾.

먼저 범용 초급 단계의 교재에는 속담이 나와 있지 않았다. 건국대학교 교재 『한국어』에는 중급에서 14개, 고급에서 38개 총 52개 속담이 있다. 경희대학교 교재 『한국어』에는 중급에서 35개, 고급에서 32개 총 67개 속담이 있다. 고려대학교 교재 『한국어』에는 중급에서는 28개, 고급에서는 19개 총 47개 속담이 있다. 서강대학교 교재 『서강 한국어』에는 중급에서는 20개, 고급에서는 9개 총 29개 속담이 있는데 범용 교재에 10권 중에서 수록된 속담 수는 가장 적다. 선문대학교 교재 『한국어』에는 중급에서는 40개, 고급에서는 34개 총 74개 속담이 있다. 성균관대학교 교재 『배우기 쉬운 한국어』에는 중급에서는 20개, 고급에서는 50개 총 70개 속담이 있다. 신리대학교 교재 『유학생을 위한 톡톡 튀는 한국어』에는 중급에서는 11개, 고급에서는 29개 총 40개 속담이 있다. 이화여대학교 교재 『말이 트이는 한국어』에는 중급에서는 30개, 고급에서는 11개 총 41개 속담이 있다. 서울대학교 교재 『한국어』에는 중급에서는 9개, 고급에서는 19개 총 47개 속담이 있다. 연세대학교 교재 『연세 한국어』에는 중급에서는 28개, 고급에서는 50개 총 78개 속담이 있는데 범용 교재 10권 중에서 수록된 속담 수가 가장 많다.

『살아있는 한국어』에 총 60개 속담이 있고,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는 1, 2권으로 나뉘어 있고 총 103개 속담이 있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 (1회-27회)에 수록된 속담을 살펴봤는데 제5회(2001), 제8회(2004)에 각 25개 속담이 제시되어 한 회 시험으로는 가장 많은 속담을 다루고 있다. 반면에 제12회(2007)에 4개, 제16회(2009)에 3개 속담이 제시되어 가장 적은 속담 수를 보이는 회차였다.

분석 대상별 한국어 교육용 속담과, 교육용 동물 속담¹²⁾을 정리하고, 그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한 속담의 전체 목록은 <부록 2>에서 참고할 수 있다.¹³⁾

11) <부록 1> 을 참조할 것.

12) 동물과 관련된 속담, 동물을 소재로 하는 속담을 말한다. 이하 동물 속담.

13) 부록 2, 한국어 범용 교재, 속담 책, 한국어 능력 시험에 수록된 동물 속담 목록

14) 전체 교육용 속담 중 동물 속담이 차지하는 비율.

<표 2> 한국어 교재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나온 교육용 속담, 교육용 동물 속담
빈포도

	한국어 교재, 한국어능력시험	교육용 속담	동물 속담	비율 ¹⁴⁾
1	건국대 『한국어』	52	14	26.9%
2	경희대 『한국어』	67	14	21%
3	고려대 『한국어』	47	16	34%
4	서강대 『서강 한국어』	29	4	13.8%
5	선문대 『한국어』	74	15	20.2%
6	성균관대 『배우기 쉬운 한국어』	70	19	27.1%
7	신리대 『유학생을 위한 톡톡 튀는 한국어』	40	11	27.6%
8	이화여대 『말의 트이는 한국어』	41	4	9.8%
9	서울대 『한국어』	38	9	23.6%
10	연세대 『연세 한국어』	78	13	17%
11	『살아있는 한국어』	60	14	27%
12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103	25	24.3%
13	『속담 100 관용어 100』	100	26	26%
14	한국어 능력 시험 1회 (1997)	19	6	31.5%
15	한국어 능력 시험 2회 (1998)	21	2	9.5%
16	한국어 능력 시험 3회 (1999)	20	4	20%
17	한국어 능력 시험 4회 (2000)	11	0	0
18	한국어 능력 시험 5회 (2001)	25	4	16%
19	한국어 능력 시험 6회 (2002)	17	8	47.1%
20	한국어 능력 시험 7회 (2003)	8	2	25%
21	한국어 능력 시험 8회 (2004)	25	3	12%
22	한국어 능력 시험 9회 (2005)	13	3	23.1%
23	한국어 능력 시험 10회 (2006)	18	5	27.7%
24	한국어 능력 시험 11회 (2007)	7	1	14.3%
25	한국어 능력 시험 12회 (2007)	4	1	25%
26	한국어 능력 시험 13회 (2008)	10	1	10%
27	한국어 능력 시험 14회 (2008)	9	3	33.3%
28	한국어 능력 시험 15회 (2009)	8	1	12.5%
29	한국어 능력 시험 16회 (2009)	3	0	0
30	한국어 능력 시험 17회 (2010)	12	2	16.7%
31	한국어 능력 시험 18회 (2010)	10	1	10%
32	한국어 능력 시험 19회 (2010)	8	1	12.5%
33	한국어 능력 시험 20회 (2010)	12	4	33.3%
34	한국어 능력 시험 21회 (2011)	9	1	11.1%

35	한국어 능력 시험 22회 (2011)	8	2	25%
36	한국어 능력 시험 23회 (2011)	8	1	12.5%
37	한국어 능력 시험 24회 (2011)	8	1	12.5%
38	한국어 능력 시험 25회 (2012)	8	5	62.5%
39	한국어 능력 시험 26회 (2012)	8	0	0
40	한국어 능력 시험 27회 (2012)	8	0	0
합 계		1,116	246	22.04%

위의 결과를 정리하면 총 10개의 한국어 범용 교재 중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어 교재를 제외한 총 7개의 교재에 수록된 동물용 속담 비율은 20%가 넘으며, 한국어능력시험 2회, 4회, 5회, 8회, 11회, 13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21회, 23회, 24회, 26회, 27회를 제외한 총 9회에 수록된 동물용 속담 비율이 20%가 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합계를 살펴봐도 22.04%로 나타나 교육용 속담 중에서 동물 속담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제 3 절 한국어 교육용 동물 속담 목록

분석 대상이 되는 한국어 교재 13종에 수록된 교육용 동물 속담 수는 총 61개, TOPIK(1회-27회)에 수록된 교육용 동물 속담 수는 총 33개인데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동물 관련 속담 수는 총 64개이다.

성균관대학교 교재 『배우기 쉬운 한국어』에는 총 70개 속담 중에서 동물 속담이 19개이고 이것은 범용 교재에 수록된 동물 속담 중에서 가장 많다. 서강대학교 교재 『서강 한국어』와 이화여자대학교 교재 『말의 트이는 한국어』에는 동물 속담이 각 4개씩 나와 있고 이것은 범용 교재에 수록된 동물 속담 중에서 가장 적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 제6회 (2002)에 8개 동물 속담이 나와 27회 중 가장 많았다. 반면에 11회, 12회, 13회, 15회, 18회, 19회, 21회, 23회, 24회에 각 1개의 동물 속담이 나오는 데 그쳤다. 16회, 22회, 26회에는 동물 속담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교재마다 수록된 동물 속담의 형태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서 동물 속담의 기본 형태를 정할 필요가 있으니 송재선(1997), 『동물 속담 사전』을 기준으로 하였다.

한국어 범용 교재에 속담, 한국어 속담 교재 한국어 능력 시험에 수록된 동물 속담의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동물 속담 빈도

동물용 속담	출현 횟수			빈도 등급
	한국어 교재	한국어 능력 시험	합계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9	5	14	1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9	4	13	2
쇠귀에 경 읽기	8	5	13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8	5	13	
우물 안 개구리	10	2	12	3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7	3	10	4
쥐구멍에도 별 뜰 날이 있다.	7	2	9	5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6	3	9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6	1	7	6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5	1	6	7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4	2	6	
달걀로 바위 치기.	3	3	6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5		5	8
팽 먹고 알 먹는다.	4	1	5	
팽 대신 닭.	4	1	5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4	1	5	
쇠뿔도 단 김에 빼라.	3	2	5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4		4	9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4		4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3	1	4	
가재는 게 편.	3	1	4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3		3	10
개천에서 용 난다.	3		3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	3		3	
새 팔의 피.	3		3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	3		3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2	1	3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2		2	11
닭 잡아 먹고 오리 발 내민다.	2		2	
독 안에 든 쥐.	2		2	
벼룩에 간을 내어 먹는다.	2		2	
소 닭 보듯.	2		2	
송충이는 술있을 먹어야 산다.	2		2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2		2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1	1	2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1	1	2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1	1	2	
뱀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1	1	2	
산에 가야 벌을 잡는다.	1	1	2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2	2	
개밥에 도토리.	1		1	12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1		1	
개 팔자가 상팔자.	1		1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1		1	
개미가 역사를 하면 비가 온다.	1		1	
거미가 줄을 치면 날씨가 좋다.	1		1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1		1	
고양이 앞에 쥐.	1		1	
고양이 쥐 생각.	1		1	
구렁이 담 넘어가듯.	1		1	
까마귀는 검어도 살은 희다.	1		1	
뽕 구워먹은 소식.	1		1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 걸음.	1		1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운다.	1		1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1		1	
죽 쑤어 개 준다.	1		1	
참 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랴.	1		1	
큰 고기는 깊은 물에 있다.	1		1	
토끼 둘을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는다.	1		1	
개 발에 편자다.		1	1	
다람쥐 쳇바퀴 돌듯.		1	1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1	1	
쌀독에 거미줄 치겠다.		1	1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1	1	

앞에서 정리한 속담 목록을 가나다순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한국어 교육용 동물 속담 목록(가나다순)

연번	속담 (총 64개)
(1)	가재는 게 편.
(2)	개밥에 도토리.
(3)	개 발에 편자다.
(4)	개 팔자가 상팔자다.
(5)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6)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7)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8)	개미가 역사를 하면 비가 온다.
(9)	개천에서 용 난다.
(10)	거미가 줄을 치면 날씨가 좋다.
(11)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12)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
(13)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14)	고양이 앞에 쥐.
(15)	고양이 쥐 생각.
(16)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17)	구렁이 담 넘어가듯.
(18)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
(19)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20)	까마귀는 겁어도 살은 희다.
(21)	꿩 구워먹은 소식.
(22)	꿩 대신 닭.
(23)	꿩 먹고 알 먹는다.
(24)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25)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 걸음.
(26)	다람쥐 쳇바퀴 돌듯.
(27)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28)	달걀로 바위 치기.
(29)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30)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31)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32)	독 안에 든 쥐.
(33)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34)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35)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
(36)	마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37)	뱀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38)	벼룩에 간을 내어 먹는다.
(39)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40)	산에 가야 범을 잡는다.
(41)	새 발의 피.
(42)	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43)	소 닭 보듯.
(44)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45)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
(46)	쇠귀에 경 읽기.
(47)	쇠뿔도 단 김에 빼라.
(48)	쌀독에 거미줄 치겠다.
(49)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50)	암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51)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52)	우물 안 개구리.
(53)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54)	죽 쑤어 개 준다.
(55)	쥐구멍에도 별 뜰 날 있다.
(56)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랴.
(57)	큰 고기는 깊은 물에 있다.
(58)	토끼 둘을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는다.
(59)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60)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61)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62)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63)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64)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표에서 한국어 교육용 동물 속담 목록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며 번호를 부여했다. 이 번호는 앞으로 3장에서 비교를 할 때, 또는 속담에 나타난 동물이 상징 의미를 살필 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쓰인다.

제 3 장 한-몽 동물 관련 속담 비교 대조

한국과 몽골은 같은 동아시아권에 속하는 민족이며, 수백 년 전부터 역사와 문화를 교류하여 왔다. 특히 몽골과 한국 간 외교 관계가 수립된 이후 친밀해진 두 나라의 국민들은 서로 구체적으로 잘 알고, 서로의 언어, 문화, 역사를 관심 있게 연구하게 되었다.

한국어 속담과 학습자의 제1언어 대응되는 속담의 유사성을 통해 학습의 위계를 설정한 연구들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연구자들이 속담이 유사성 형태와 의미적으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이에 까찌리나(2004)는 한국어 속담과 러시아 속담의 형태적 의미적 유사성을 표현 방법과 내용이 같은 것, 표현 방법이 다르나 내용이 비슷한 것, 표현 방법과 내용이 모두 다른 것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분석하였으며, 장지정(2008), 양정(2009), 정홍화(2010)은 한국어 속담과 중국어 속담의 형태적 의미적 유사성을 동의동형, 동의이형, 이의동형, 이의이형으로 4가지 단계로 나눠 분석하고 살펴보았다. 헤마(2010)는 한국어 속담과 힌디어 속담의 형태적 의미적 유사성을 표현 방식과 의미가 유사한 속담, 의미는 같지만 표현 방식이 다른 속담, 한국어에만 있는 속담의 3가지 단계로 등급화하고 분석하였으며, 임성욱(2011)은 한국어 속담과 스페인어 속담을 유사성을 형태와 의미가 같거나 매우 유사한 속담, 형태는 다르나 의미가 같거나 매우 유사한 속담, 형태가 다르며 의미적으로 어느 정도 유사하나 사용되는 상황이 다른 속담, 의미가 같거나 유사한 속담이 없는 속담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위 연구들에서는 속담의 형태와 의미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은 단점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속담과 몽골어 속담을 통해서 두 나라의 다양한 사고방식과 삶, 문화와 생활 풍속, 역사 그리고 사회 가치관 등을 이해하고 엿볼 수 있는 것을 속담이 상징 의미라고 보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선정한 64개 한국어 교육용 동물 속담에 나타난 동물의 상징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3가지 단계로 등급화하고 분석 할 것이다. 그것은 첫째, 한-몽 동일 의미 동물 소재 속담 둘째, 한-몽 동일 의미 다른 소

재 속담 셋째, 독자적인 한국어 동물 속담이다. 논의를 진행하면서 언급되는 한-몽 동물 관련 속담에는 앞서 2장 [표 4]의 번호를 그대로 쓴다.

제 1 절 한-몽 동일 의미 동물 소재 속담

이것들은 한-몽 두 나라의 속담에서는 모두 동물 소재로 제시되며, 속담의 내용이 매우 비슷한 속담들이다. 한국어 교육용 동물 속담 64개에서 몽골어 동물 속담과 서로 대응되는 속담을 비교해서 정리하면 총 25개이고 아래와 같다.

(6) 개구리가 올면 비가 온다.

Галуу дуугарвал ган арилдаг.

Galuu duugarval gan arildag.

(거위가 올면 비가 온다.)

한국 속담에서의 의미¹⁵⁾: 개구리는 비가 올 때 오면 시끄러울 정도로 온다는 뜻이다.

몽골 속담에서의 의미¹⁶⁾: 거위는 비가 올 때 되면 온다는 뜻이다.

한국의 경우 개구리가 비를 예견하는 예언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는 상징 의미를 보여주는 속담이다. 본 속담은 과학의 원리가 숨은 속담 중 하나다. 건조한 날에는 개구리가 물속에 들어가 있지만 공기 중의 수증기가 많아져 습도가 높으면 수면 밖으로 나와서 온다.¹⁷⁾

(8) 개미가 역사를 하면 비가 온다.

Өглөө тогоруу дуугарвал

Бороо орохын тэмдэг.

Ugluu togoruu duugarval

Boroo orohiin temdeg.

(아침에 두루미가 올면 비가 온다.)

15) 이하 한 의미.

16) 이하 몽 의미.

17) 홍준의 외 4인 (2011). 『살아있는 과학 교과서』. 휴머니스트. p. 25.

한 의미: 개미가 먹이를 물고 떼 지어 이동하면 비가 올 징조라는 뜻.

몽 의미: 두루미가 아침에 올면 비가 온다는 뜻이다.

개미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이는 약한 곤충이다. 속담에서 개미의 상징 의미는 비가 오기 전에 이사 가는 것으로 날씨를 예보하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특성으로, 개미가 자기 집의 구멍을 막거나 행렬을 이루어 이사를 하면 반드시 장마가 진다고 생각하였고 담을 쌓거나 진(陣)을 쳐도 비가 내린다고 믿었다. 따라서 개미가 앞일을 예시하는 신통력이 있다고 여긴 것이다.¹⁸⁾

몽골에서 옛날부터 아침에 두루미가 크게 올면 비가 온다는 말이 있으며, 이는 보통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중의 하나가 생길 징조라고 여겨져 왔다.

(9) 개천에서 용 난다.

Огогны нүхэн дэхь сувд.

Ogotnii nvhen dehi suvd.

(취구멍에 있는 진주다.)

한-몽 의미: 빈천한 가정에서도 때로는 걸출한 인물이 난다는 뜻이다.

한국 속담에서 용을 능력이 출중한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다. 용은 땅과 하늘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사귀를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믿어져 왔다. 이런 면에서 영웅같이 큰 인물을 비유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용은 만물 조화의 능력을 갖춘 신비의 상징 혹은 권위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수호의 능력을 갖춘 동물이다.¹⁹⁾ 위 속담에서 용이 상징 의미를 영웅이나 귀한 대상, 권위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위 속담은 몽골 속담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능력 있는 인물을 취구멍에 있는 진주로 비교했다.

(12)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

Хар хэрээ дэгдээхэй гээ

18) 한정연(2012), 동물 속담을 활용한 한국어문화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 우연미(2008), 성어 속 동물 상의 상징 의미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цагаанаар санадаг
 Өргөст зараа зулзагаа
 зөөлнөөр санадаг.
 Har heree degdeehgeee
 tsagaanaar sanadag
 Urgust zaraa zulzagaa
 zuulnuur sanadag.
 (까마귀에게 새끼는 회고
 고슴도치에게 새끼는 부드럽다.)

한-몽 의미: 자식이 아무리 못생겼어도 그 부모는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양국의 속담에서 마찬가지로 고슴도치의 상징은 못생겼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시처럼 뾰뾰한 고슴도치의 털도 부모에겐 보드랍고 윤기 있게 보인다는 말이다. 고슴도치는 몸길이가 20~30cm로 짧고 몽푹하며 몸통의 등과 양 옆이 짧고 굽은 가시털로 덮여 있다. 얼굴과 배, 꼬리, 네 다리를 제외한 온몸을 덮고 있는 1만6천여 개의 가시는 공격용이 아니라 다른 동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는 데 쓰인다. 요즘 애완용으로 고슴도치를 기르기도 하는데, 신기하게도 고슴도치는 냄새로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이 가시에 찔리지 않게 세웠던 가시를 눕힌다고 한다. 이는 고슴도치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돌봐주는 이를 알아본다는 의미다. 성경에서 고슴도치는 황폐한 광경을 나타내는 데 쓰이고 있다.

몽골 속담에서 까마귀와 고슴도치는 똑같이 못생긴 동물을 상징하고 있지만 까마귀는 몸이 까맣다는 의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13)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Муур хүзүүндээ эрхи зүүж
 Махнаас гарав.
 Muur hvzvvndee erhi zvvj
 Mahnaas garav.
 (고양이가 목에 방울 달고

고기를 그만 먹게 되다.)

한 의미: 궁리는 매우 좋은 궁리이지만 실천할 수는 없는 공론이라는 뜻이다.

몽 의미: 1. 실천할 수 없는 공론이라는 뜻이다.

2. 속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는 자비로운 척하며 남을 사취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어느 날 고양이 때문에 편히 살 수 없던 쥐들이 ‘날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무서운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의를 하였다. 쥐들은 여러 의견을 말했지만 속 시원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때 어떤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어떨까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쩍싸게 도망 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용감한 쥐는 없었다.²⁰⁾ 위 속담은 이처럼 말하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르고,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을 공연히 의논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몽골 속담의 경우 고기를 좋아하는 고양이가 자기 목에 방울 달고, 고기를 그만 먹는 것은 전혀 있을 리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한다.

(15) 고양이 쥐 생각.

Муурандаа бол наадам

Хулганадаа бол үхэл.

Muurandaa bol naadam

Hulganadaa bol vhel.

(고양이한테는 농담

쥐한테는 죽음.)

한 의미: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듯이, 동정하는 것이 아니고 망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몽 의미: 고양이가 쥐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고 잔인한 행위라는 뜻이다.

20) 김진용(2012). 『유행어보다 재미있는 우리 100대 속담』. 삼성출판사. p. 25.

한-몽 양국에서 고양이와 쥐 관계를 나타난 속담이 많으며, 위 속담은 그 중이 하나다. 양국이 속담에서 고양이의 쥐를 동정하는 것을 모르는 냉정한 상징 의미를 보였으며, 쥐의 경우 약자, 또는 피해자를 상징하는 것이 보인다.

(16)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ЧОНОНД ХОНЬ ХАДГАЛУУЛАХ.

Chonond honi hadgaluulah.

(늑대에게 양을 맡긴다.)

한-몽 의미: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물건을 맡긴다는 뜻이다.

위 속담은 믿음성 없는 고양이의 동물적인 특성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비유한다. 양국의 속담은 서로 비슷하지만 몽골 속담에서 고양이는 늑대로, 생선은 양으로 바뀌서 쓰여 있다. 한-몽 속담에서는 생선과 양은 고양이와 늑대에 의한 피해자로 나타난다.

몽골의 경우에는 목축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양을 다섯 가지의 가축²¹⁾ 중의 하나로 키우고 있으며, 속담에서도 양을 다른 동물보다 많이 쓰는 편이다.

(20) 까마귀는 검어도 살은 희다.

ҮНЭЭ НЬ ХАР БОЛОВЧ

СҮҮ НЬ ЦАГААН.

Vnee ni har bolovch svv ni

tsagaan.

(쇠는 까마지만 우유는 희다.)

한 의미: 외모는 잘 생기지 못하였으나 마음씨는 좋다는 말로, 겉만 보고 사람을 평할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몽 의미: 외모는 까만 젖소 있지만 흰 우유 나온다는 말로 겉만 보고 사람을 평할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까마귀가 겉모양은 검고 보기 싫어도 살은 하얗다는 뜻이, 겉모양만을 보

21) 다섯 가지의 가축은 양, 염소, 소, 말, 낙타이다.

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속마음 까지 생각해보자는 말이다. 까마귀는 몸이 온통 검고 날개에 녹색 빛이 나는 새이다. 위 속담에서는 까마귀를 몸이 까맣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까마귀를 검은색이라서 또는 까마귀의 소리를 싫어해서 그를 불길함, 추한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라고 한다.

(23) 꿩 먹고 알 먹는다.

Нэг сумаар хоёр туулай буудаж.

Neg sumaar hoyor tuulai buudah.

(화살 하나로 토끼 둘을 죽인다.)

한-몽 의미: 한 가지 일을 하고 두 가지 이득을 보았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꿩은 상서와 행운을 상징하는 새라고 여긴다. 꿩은 상서로운 새이므로, 인생의 중요한 의식에 상징적으로 사용된다. 조선 시대 중엽부터 초에는 꿩을 놓고 신랑 신부가 교배했으며, 폐백을 드릴 때에도 꿩고기로 포를 해서 놓고 신부의 절을 받았다. ²²⁾

몽골 속담에서는 토끼는 화살에 잡히는 사냥감의 대상으로 나타났으며, 약하고 피해자를 상징하는 동물로 보인다. 위 몽골 속담은 (31)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는 한국 속담과 같은 의미를 갖은 것도 알 수 있었다.

(24) 낫말은 새가 듣고

Нуух үгийг г

밤말은 쥐가 듣는다.

Нуурын мэлхийг д ч бүү хэл.

Nuuh vgiig

Nuuriin melhiid ch bvv hel.

(비밀 말은 호수 개구리에게도

하지마라.)

한 의미: 아무리 비밀스럽게 한 말도 남의 귀에 들어가기 쉬우니 항상 말조

22) 이국 (2008), 한국과 중국의 동물에 관한 속담의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심하라는 뜻이다.

몽 의미: 아무리 비밀스럽게 한 말도 남의 귀에 들어갈 수 있으니 항상 말조심하라는 뜻이다.

양국의 속담은 남이 듣고 있든지, 듣고 있지 않든지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위 한국 속담은 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는 속담 중이 하나다. 소리는 차가운 공기가 있는 쪽으로 휘는 성질이 있으며, 낮에는 지구 표면이 햇볕을 받아 뜨겁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머물러 있는 땅보다는 차가운 공기가 있는 하늘로 소리가 잘 퍼져 나간다. 따라서 공중을 날고 있는 새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밤에는 지구 표면이 식으면서 땅은 차가워지고 하늘에는 따뜻한 공기가 머물기 때문에 소리는 하늘보다 땅으로 잘 퍼져 나가, 땅에 있는 귀가 소리를 잘 듣는다고 한다.

몽골이 경우 몽골인들은 개구리라고 하면 크게 우는 소리만 떠올리는데, 그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말은 개구리에게도 하면 큰 소리쳐서 남의 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위 속담이 생겼을 것이다.

(25)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 걸음.

Үнэнээр явбал

Үхэр тэргээр туулай гүй цэх.

Vneneer yavbal

Vher tergeer tuulai guitseh.

(정직하게 살면 소달구지로

토끼를 잡는다.)

한 의미: 황소는 느릿느릿 걸어도 꾸준히 걷기 때문에 먼 길을 갈 수 있다는 뜻이다.

몽 의미: 사람이 꾸준히 살면 언젠가는 소달구지로 토끼를 잡는 뜻이 먼 길에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양국의 속담에서 소는 근면하고 성실한, 또는 꾸준하지만 느린 이미지를 상징하는 동물로 나타나고 있다.

(31)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Нэг сумаар хоёр туулай буудах.

Neg sumaar hoyor tuulai buudah.

(화살 하나로 토끼 둘을 죽인다.)

한-몽 의미: 한 가지 일을 하고 두 가지 이득을 보았다는 뜻이다.

가재는 개와 새우의 중간 모양인데 앞의 큰 발에 집게발톱이 있다. 뒷걸음질을 잘하며 페디스토마를 옮긴다. 개울 상류의 돌 밑에 사는데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32) 독 안에 든 쥐.

Хавханд орсон хулгана.

Havhand orson hulgana.

(덫에 걸린 쥐.)

한 의미: 독 안에 든 쥐처럼 꼼짝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뜻이다.

몽 의미: 덫에 걸린 쥐처럼 꼼짝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뜻이다.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독에다 곡식을 담아 헛간에 놓거나, 간장, 된장, 김치를 담아 햇볕이 잘 드는 장독대에 놓았다. 그런데 쥐는 밤이 되면 사람들이 남긴 음식, 쌀을 훔쳐 먹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균을 옮기기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쥐를 잡으려 하지만 몸집이 작고 움직임도 재빠른 쥐를 잡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렇게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 민첩한 쥐도 독 안에 갇히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고, 옆면을 타고 올라올 재주는 없기 때문에 꼼짝없이 죽게 된다는 의미에서 나온 속담이다.

이처럼 몽골 속담에서도 같은 상황과 의미지만 '독'이라는 물건은 '덫'이라는 물건으로 바뀌어서 쓰여 있다. 쥐는 동물 중에서 몸집이 가장 작은 동물로서 속담에서 일반적인 약한 의미를 상징한다.

(33) 똥 묻은 개가

Өөрий нхөө толгой дээрх

겨 묻은 개 나무란다.

тэмээг үзэхгүй байж

Бусдын толгой дээрх

ТЭВНЭ ҮЗЭХ.

Uuriinhuu tolgoi deerh

temeeg vzehgui baij

Busdiin tolgoi deerh tevne vzeh.

(내 머리 위에 낙타는 안 보이지만

남의 머리 위에 바늘이 보인다.)

한 의미: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도리어 뻔뻔스럽게 나무란다는 뜻이다.

몽 의미: 사람은 자기 부족한 점을 보지 못하고 남의 부족함이 더 커 보인다는 뜻이다.

벼, 보리, 조 등의 곡식은 껍질에 쫙여 있어서 그냥 먹을 수가 없고, 반드시 껍질을 벗겨 내야 한다. 옛날에는 절구에 이런 곡식을 넣고 찼어서 껍질을 벗겨냈는데, 벗겨낸 껍질을 ‘겨’라고 한다. 겨는 사람이 먹기는 어렵지만 지방이나 단백질이 많아 가축의 사료나 비료로 쓰이기도 한다. 겨는 냄새 나는 똥보다 더러울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보고 더럽다고 흉을 본다는 말이다. 자기에겐 있는 큰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작은 허물을 비웃는다는 뜻이며, 속담에서 개를 통해서 하찮은 사람을 비유하고 있다. 몽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단점을 잘 보지 못하고 남의 단점을 크게 보는 사람을 비유하는 속담이며, 덩치가 아주 큰 낙타와 아주 작은 바늘을 사용해서 속담을 표현하고 있다. 스스로 흉이 있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이 전혀 없으면서, 남의 조금만 흉을 과장되게 말하는 윤리의 부족을 비웃고, 비판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위 한-몽 속담들은 동일 의미 동물 소재 속담이지만, 한국 속담과 동일 의미 다른 소재로 하는 몽골 속담들도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Өөрөө өмдгүй байж

Өвдөг цооронхой г шоолох.

Uuruu umdgui baij

Uvdug tsooronhoig shooloh.

(자기가 바지가 없으면서

남의 바지의 무릎에 구멍 났음을 비웃기),

Өөрийн н хожгорыг мэдэхгүй байж

Хүний халзанг гай хаж элэглэх.

Uuriin hojgoriig medehgui baij

Hvnii halzang gaihaj elegleh.

(자기가 머리 없으면서

남의 대머리를 보고 비웃기).

(35)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Буруу өсгөсөн хүүхэд

Бухын хүзүүнээс хатуу.

Buruu usgusun hvvhed

Buhiin hvzvnees hatuu.

(잘못 키운 자식은 황소보다 세다.)

한 의미: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 빗나가는 행동을 했을 때 욕하는 말이다.

몽 의미: 자식을 부족하게 키우면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송아지는 태어나서 두 달이나 석 달쯤 지나면 머리에 조그만 뿔이 나는데, 뿔이 날 때면 그 부위가 가려워서 머릿짓을 많이 한다고 한다. 그런데 머리에 나아야 할 뿔은 제자리에 나지 않고 엉덩이에 난다면 가려워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엉덩이를 마구 흔들고, 사람들도 보기 싫을 것이다. 이처럼 못된 사람이 자기 행동을 뉘우치기는커녕 건방지게 행동하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닌다는 뜻으로 교만한 사람을 비유할 때 이 속담을 쓴다.

몽골에서 건방지게 행동하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교양 없는 사람에게 쓰는 속담인데, 특히 어린이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위 속담을 많이 쓴다.

(37) 뱀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Галуу дуурайж

Хэрээ хөлөө хөлдөөх.

Galuu duuraij

Heree huluu hulduuh.

(까마귀가 거위를 흉내
내다가 다리가 얼다.)

한-몽 의미: 자신의 역량도 돌보지 않고 무리하게 하는 일은 큰 피해를 입게
되니 자기 분수를 지키라는 뜻이다.

뱀새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텃새로 몸집이 약 13cm밖에 안 되고 다
리도 매우 짧은 새이며, 황새는 몸집이 약 112cm이고, 몸집에 맞게 다리도
긴 새이다. 이렇게 다리가 짧은 종종걸음 걷는 뱀새는 다리가 아주 길어 성
큼성큼 잘 걷는 황새를 따라 잡으려다가 걸음 폭에 맞춰 다리를 넓게 벌려야
하니 가랑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 속담은 자신의 능력이 안
되는데도 억지로 남을 따라 하다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자기 분수를
지키라는 교훈적인 속담이다.

몽골 속담은 물에 잘 헤엄치는 거위를 보고 까마귀가 물에서 헤엄치다가
다리가 얼 수 있다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까마귀와 거위는 둘 다 한국, 몽
골 양쪽에 있는 새이지만, 한국은 새의 다리가 얼을 만큼 추운 날씨가 없어
변덕스러운 날씨가 있는 몽골 나라에만 만들어진 속담이라는 것이 뚜렷한 특
징이다.

(40) 산에 가야 뱀을 잡는다.

*Барсын үүрт нь орохгүй бол
Бамбарыг нь барьж чадахгүй.*

*Barsiin vvrt ni orohgui bol
Bambariig ni barij chadahgui.*

(호랑이 굴에 못 들어가면
호랑이 새끼를 못 잡는다.)

*Чоньин бэлтрэгий г барихад
Чоньин үүрэнд орох.*

Choniin beltregiig barihad

Choniin vvrend oroh.

(늑대 새끼를 잡으려면

늑대의 굴에 들어가야 한다.)

한 의미: 범이 있는 산에 가야 범도 잡듯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적지를 가야, 직접 부딪쳐 실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는 그에 따르는 준비를 하고 수고도 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몽 의미: (1) 호랑이 굴에 안 들어가면 호랑아 새끼를 못 잡는다.

(2) 늑대 새끼를 잡으려면 늑대의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 어떤 일을 이룰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꺾이지 말고, 직접 부딪쳐 실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범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동물이기 때문에 단군 신화와 옛이야기, 옛날 그림에도 자주 등장한다. 옛날에는 한국에 깊은 산골짜기에 호랑이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속담에 호랑이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위 속담은 (60)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는 속담과 의미가 같지만 형태적으로만 속담에 쓰이는 어휘가 다르게 표현되는 속담 중의 하나이다.

(46) 쇠귀에 경 읽기.

Илжигний чихэнд ус ч хий сэн

сэгсэрнэ

Алт ч хий сэн сэгсэрнэ.

Iljignii chihend us ch hiisen segserne

Alt ch hiisen segserne.

(당나귀 귀에 물 넣어도 흔들고,

금 넣어도 흔든다)

한 의미: 쇠에게 경을 읽어 주어도 알 리가 없듯이, 아무런 성과 없는 일이고, 관심 없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이다.

몽 의미: 당나귀 귀에 뿔을 넣던 알 리가 없듯이 아무런 성과 없는 일이고,

관심 없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이다.

경은 불교의 경전으로, 석가모니와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며, 불경이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소를 잡기 전에 소의 영혼이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스님을 불러 소에게 불경을 들려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글을 모르는 소가 불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위 속담을 풍자적으로 볼 수 있다. 속담에서 소를 우직하고 우둔함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표현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소의 성격을 미련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다.

몽골 속담에 당나귀가 등장하는데, 당나귀는 고집스럽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위험에 매우 민감하고 상당히 침착하다. 놀라면 말은 달아나는 반면, 당나귀는 꼼작 않고 서서 크게 운다. 또한 비슷한 크기의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자와 마주쳤을 때 도망가지 않는다.²³⁾ 이러한 면에서 보면, 몽골 사람들이 멍청이로 여기는 대표적인 동물 당나귀를 통해서 미련한 사람을 비유하고 반면에 침착한 사람도 비유하고 있는 속담이다.

(50) **얹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Хүний эрээн дотроо
Могой н эрээн гаднаа.
Hvnii ereen dotroo
Mogoin ereen gadnaa.
(사람의 얼룩은 안에
뱀의 얼룩은 바깥에.)*

한 의미: 겹으로 얹전한 체하는 사람이 뒤로는 나쁜 짓을 한다는 뜻이다.

몽 의미: 나쁜 사람은 실제 얼굴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한다면, 그 것은 알아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고양이의 대표적인 성격은 본성을 숨기고 얹전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앞에서는 얹전한 체 하지만 진심은 그렇지 않다는 비유의 속담이다.

몽골 속담은 나쁜 사람은 언제든지 그 본성을 숨기고 있다는 의미로 쓰이

23) 스티븐 프라이(2007) 『동물 상식을 뒤집는 책』 Eric Yang Agency. p:246.

며, 뱀의 얼룩 색은 눈에 바로 보이지만 사람은 바깥 모양이나 얼굴은 다 같은데, 나쁜 짓을 한다는 속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다는 말이다. 뱀의 생김새 때문에 사람들이 징그러워하고 또한 뱀에 물렸을 때는 그 독성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하므로 두려워한다. 또한 뱀의 끝에 두 갈래로 갈라진 혀바닥을 설 새 없이 날름거리는 특성 때문인지 뱀은 일상생활에서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뱀의 독성 때문에 몽골 사람들이 뱀을 독사라고 하며, 속담에서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비교해서 많이 쓴다.

(52) 우물 안 개구리.

Худгын мэлхий далай г мэдэхгүй.

Hudgiin melhii dalaig medehgui.

(우물 안 개구리가 바다를 모른다.)

한-몽 의미: 경험이 적어서 보고 들은 게 별로 없고, 외부를 구경하지 못한 사람은 소견이 좁다는 뜻이다.

우물은 수도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물을 얻기 위해 땅을 파서 지하수가 고이게 한 곳이다. 이런 깊고 깊은 우물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개구리는 당연히 우물 안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우물 안에서 본 돌과 이끼, 우물물밖에 없고, 하늘은 우물 구멍으로 보이는 것처럼 동그랗고 작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몽 속담에서는 개구리는 세상의 넓은 형편을 알지 못하는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부족하고 답답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실제로 개구리는 왕관과 관련하여 신성을 상징한다. 또 개구리가 인간에게 해로운 존재로 나타날 때도 있으며, 시끄럽기만 하고 이로울 것이 없는 예로 표현되기도 하고, 빈천했던 과거를 잊고 잘난 체하거나 큰소리치는 못난 사람을 개구리에 비유되기도 한다.

(55) 쥐구멍에도 별 뜰 날 있다.

Зовсон хүн жаргана

Золбин нохой зоолно.

Zovson hvn jargana

Zolbin nohoi zoolno.

(고생 끝에 행복해진다

임자 없는 개도 배부를 때가 있다.)

한 의미: 아무리 어렵고 고생해도 언젠가는 좋은 때가 온다는 뜻이다.

몽 의미: 몹시 고생하던 사람도 언젠가는 좋은 때를 만날 날이 있다는 뜻이다.

예전에 흙으로 만든 집에는 담이나 벽이 쥐들이 겨우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조그맣게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이 구멍을 쥐구멍이라고 한다. 너무나 작은 구멍이라서 그 안에는 햇볕이 들기도 힘든데, 이처럼 항상 어둡기만 한 쥐구멍은 사람을 살아가는 데 힘들고 어려운 때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며, 별은 행복하고 좋은 때를 뜻한다.

몽골 속담은 주인 없는 개는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지만 운이 있으면 가끔이라도 배부를 때가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고생해도 언젠가는 행복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임자 없는 개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다.

(58) 토끼 둘을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는다.

Хоёр туулай хөөсөн хүн

Хоосон хоцрох.

Hoyor tuulai huusun hvn

Hooson hotsroh.

(토끼 두 마리를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는다.)

한-몽 의미: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하다가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뜻이다.

한국 전설에서 토끼는 묘책을 써서 여우와 호랑이도 속였으므로 머리가 좋고 영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토끼는 사냥의 대상으로 항상 주위를警戒하고 있는 민감한 동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위 속담에서도 나

약하고 사냥감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59)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Нялх тугал барсаас ай хгүй .
Nyalh tugal barsaas aihgvi.
(어린 송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한 의미: 범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 강아지가 범을 무서워할 리 없듯이,
무식하면 무서운 것을 모른다는 뜻이다.

몽 의미: 범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 송아지가 범을 무서워할 리 없듯이,
무식하면 무서운 것을 모른다는 뜻이다.

위 속담에서 호랑이를 본 적 없는 세상을 모르는 어린 강아지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 줄도 모르고 마구 짖어댄다는 뜻으로, 하룻강아지 같
이 사회 경험이 적고, 일이 서투른 우매한 사람을 비유하는 속담이다.

몽골 속담의 경우에는 같은 뜻으로 쓰여 무서운 호랑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어린 송아지를 나타낸다.

(60)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한 의미: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 호랑이를 잡을 수는 없는 것처럼 원하
는 것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를 이루려면 그만한 위험과 수고를 감
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62)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Хүн нэрээ
Тогос өдөө.
Hvn neree
Togos uduu.
(사람은 이름을 아끼고

공작새는 깃털을 아낀다.)

한 의미: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살아 있는 동안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몽 의미: 사람은 죽으면 이름만 남아야 하므로 살아 있는 동안에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살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가 악귀를 막아 주는 신성한 동물이라고 믿었다. 위 속담에서 호랑이는 가족은 매우 중요하게 표현되어 있다. 옛날에는 호랑이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였는데 이는 호랑이의 용맹성에 대항하여 호랑이를 때려눕힐 만한 용감성을 지녔음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또는 호랑이의 가죽은 그 질과 기능에 있어서 우수하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조상들은 호랑이가죽을 벽에 장식하거나 바닥에 깔아 놓으면 집안에 악귀가 들어오지 않아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²⁴⁾

몽골 속담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가장 소중한 것이 있음을 말한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잘 지켜야 하는 것으로 사람에게서는 이름, 공작새에게는 아름다운 비싼 깃털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처럼 한국과 몽골 속담을 비교해 보면 의미 내용으로써 비슷한, 동일 의미 동물 소재 속담은 총 25개이며, 한국어 교육용 속담의 39.06%을 차지하는 적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이것은 인간들이 세계의 자연, 사회에 보편적인 법칙으로 행동하며 그것을 알게 된 과정이나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의 사상과 사고방식에 공통적인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동물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감정과 상상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한-몽 양국이 사람들의 생활과 사람의 사고방식을 많은 동물들이 반영하고 있고, 여러 종류의 동물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몽 동일 의미 동물 소재 속담에서 나타난 동물이 종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4) 허은실, 앞에 책 (2007:169)

<표 5> 한-몽 동일 의미 동물 소재 속담에서 나타난 동물이 종류와 빈도수

	한국 속담			몽골 속담		
	소재 동물	빈도수	빈도 등급	소재 동물	빈도수	빈도 등급
1.	고양이	4	1	소	5	1
2.	쥐	4		토끼	4	2
3.	호랑이	4		쥐	3	3
4.	새, 뱀새, 황새	3	2	거위	2	4
5.	소	3		까마귀	2	
6.	개구리	2	3	늑대	2	
7.	개	2		개구리	2	
8.	개미	1	4	호랑이	2	5
9.	용	1		두루미	1	
10.	고슴도치	1		고슴도치	1	
11.	생선	1		고양이	1	
12.	꿩	1		양	1	
13.	가재	1		낙타	1	
14.	토끼	1		당나귀	1	
15.	까마귀	1		뱀	1	
16.				개	1	
17.				공작새	1	

동일 의미 동물 소재 속담을 보면 한국 속담에서 고양이, 쥐, 호랑이 소재로 한 속담이 많으며, 반면에 몽골 속담의 경우에는 소, 토끼, 쥐와 관련된 속담이 더 많았다.

또한 한국의 두 가지 속담은 몽골의 한 개 속담과 대응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꿩 먹고 알 먹는다’,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는 한국어 속담과 'Нэг сумаар хоёр туулай буудах', 'Neg sumaar hoyor tuulai buudah'(화살 하나로 토끼 둘을 죽인다.)라는 몽골어 속담이다.

비교하고 있는 현상이나 속담 속에 나타난 동물, 속담에 쓰이는 어휘가 다른 것들도 보인다. 예를 들면 한국의 ‘독 안에 든 쥐’ 속담은 몽골 속담에서는 'Хавханд орсон хулгана', 'Havhand orson hulgana.(덫에 걸린 쥐)’로 쥐가 독 안에 들어 있지 않고 덫에 걸려 있는 것이 보이고, 한국의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속담은 몽골 속담에서 'Нялх тугал барсаас аһ хгүй', 'Nyalh tugal barsaas aihgui'(어른 송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범을 무서워하는 동물은 어린 강아지가 아니라 어른 송아지로 나타난 어휘적인 차이가 각각 보인다. 이것은 민족의 생활 풍습, 사고방식이 차이로 또한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친밀하게 상상을 하는 동물이나 물건 다르기 때문에 속담에는 자기 민족이 익숙하고 친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 2 절 한-몽 동일 의미 다른 소재 속담

다음으로는 한국 속담에서는 동물로 제시되었으나 몽골 속담에서는 사람, 사람의 행동, 여러 가지 물건 등 전혀 다른 소재로 대체하고 있으며 속담의 내용은 매우 비슷한 속담들이다. 이런 속담들은 두 나라의 속담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의미를 갖고, 양국 간의 문화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속담의 소재는 자기 민족이 익숙하고 친밀한 어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 속담 64개에서 이런 속담은 총 18개이며, 동물 속담의 28.1%을 차지하고 있다.

(1) 가재는 게 편.

Таарсан таар шуудай хоёр.

Taarsan taar shuudai hoyor.

(마포와 마대는 똑같다.)

한-몽 의미: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끼리는 한편이 되어 붙는다는 뜻이다.

가재는 갑각류의 한 종류로, 개울 상류의 돌 밑에 사는 반면에 게는 바다와 민물에서 사는데, 몸이 납작하고 옆으로 기어 다닌다. 가재와 게는 같은 갑각류인데다 딱딱한 등딱지와 등이 아주 비슷하게 생긴 동물들이다. 그래서 게와 다른 동물이 서로 싸울 때, 가재는 생긴 것만 보고 게가 자기편이라고 생각해서 게 편을 들어준다는 풍자 의미로 서로 비슷한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주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속담이다.

몽골 속담에서도 마포와 마대를 같은 종류의 물건으로 보고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이 한편이 되어 붙는다는 뜻으로 쓰는 풍자적인 속담이다.

(14) 고양이 앞에 쥐.

Хүчтэний өмнө

Хүчгүй нь мөхөс.

Hvchtenii umnu

Hvchgui ni muhus.

(강자 앞에 약자는 허약하다.)

한 의미: 쥐가 고양이 앞에서는 걸음도 제대로 못 걸듯이, 무서운 사람 앞에서 설설 기면서 꼼짝 못한다는 말이다.

몽 의미: 강한 것 앞에서 약한 것이 꼼짝도 못한다는 말이다.

위 (15)을 비롯해서 양국에서 고양이와 쥐 관계를 나타난 속담이 많은데, 본 속담도 그중에 하나다. 이런 주제의 속담들은 모두 고양이가 쥐를 동정하는 것을 모르는 냉정한 의미를 상징하고, 쥐는 고양이 앞에 있는 약한 의미를 상징한다. 몽골 속담은 어떤 동물이나 물건으로 대체하지 않고, 말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21) 꿩 구워 먹은 소식

Усанд хаясан чулуу.

Usand hayasan chuluu.

(물에 던진 돌.)

한 의미: 꿩 구워 먹은 흔적이 없듯이, 아무 소식도 없다는 뜻이다.

몽 의미: 물에 던진 돌 같이, 아무 소식도 없다는 뜻이다.

한국인들은 꿩을 보신 또는 보약의 효과가 있는 진기한 음식으로도 여겨져 왔다. 음식이 귀하던 시절에 꿩고기는 특별하고 아주 귀한 요리였다. 꿩 한 마리는 고기가 많지 않다. 떡이나 기타 다른 음식을 만들면 나눠먹기도 했었지만 꿩고기는 양도 적고 귀하다 보니 나눠먹을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자기네만 꿩을 먹을 수도 없고 하니 꿩고기가 생기면 소리 소문 없이 먹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이처럼 자주 연락을 하던

사이에 갑자기 연락이 없으나, 무슨 일을 아무도 몰래 해 치우면 꿩 구워 먹은 소식이란 표현을 쓴다.

몽골 속담에서 자주 연락을 하던 사이에 갑자기 아무 소식 없다는 표현을 물에 던진 돌로 비유한다. 물에 돌을 던지면 떠다니지 않고 소식 없이 빠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22) 꿩 대신 닭.

Оргүй д орвол охинтой.

Orguid orvol ohintoi.

(아들이 아니면 딸.)

한 의미: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없으면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신한다는 뜻이다.

몽 의미: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없으면 그와 비슷한 것이라도 괜찮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설날에는 명절 음식으로 떡국을 끓여 먹는데, 옛날에는 반드시 꿩고기를 넣어서 끓였다. 설날 떡국에 꿩고기를 넣은 것은 꿩고기가 맛이 좋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꿩을 상서로운 새로 여기기 때문이다. 꿩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냥감으로 옛날부터 '하늘 닭'이라고 아주 귀한 동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꿩고기는 구하기가 어려워서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닭을 잡아 닭고기를 떡국에 넣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위 속담이 나오게 되었다.

몽골 속담에서 '아들이 아니면 딸'이라는 말이 있다. 몽골 사람들이 옛날부터 아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져 왔으며, 아이가 귀한 집에는 아들이 없어도 아이가 전혀 없는 것 보다는 딸이라도 있으면 좋다는 견해로 이 말이 나왔다고 한다.

(30)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Бүтэлгүй амьтан

Бүрээсгүй тэнгэрт.

Bvtelgui amitan

Bvreesgui tengert.

(못난 사람은 테두리 없는 하늘에.)

한 의미: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뜻이다.

몽 의미: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시골에서 닭과 개를 마당에다 함께 물어놓고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개에게 쫓기던 닭이 지붕으로 올라가자 개가 닭처럼 높은 곳까지 날아올라가지 못하고 지붕만 쳐다본다는 뜻으로,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몽골 속담의 경우 무슨 일이든 하다가 매번 실패를 하는 사람을 팔자가 나쁘고, 도리가 없어도 어쨌든 하늘 아래 살긴 산다는 뜻으로 풍자를 담고 있다.

(36)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Хуурсаар хуурсаар худалч

Хумсалсаар хумсалсаар хулгайч.

Huursaar huursaar hudalch

Humsalsaar humsalsaar hulgaich.

(속이고 속이다가 거짓말쟁이가
된다

훔치고 훔치다가 도둑이 된다.)

한 의미: 도둑질도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속달이 될수록 점점 큰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뜻이며, 좋지 못한 버릇일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는 말이다.

몽 의미: 거짓, 도둑질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더 거지고 큰 거짓말, 큰 도둑질 한다는 뜻이다.

한-몽 속담을 보면 양국 사람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 속담에서 싼 값의 물건을 대표하는 '바늘'을 훔치던 사람이 계속 반

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큰 값의 '소'까지도 훔친다는 뜻으로, 소의 아주 큰 재산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속담은 몽골 속담에서 내용은 비슷하지만 동물 소재로 표현하지 않는다. 몽골 속담의 의미는 하찮은 것을 훔치는 사람은 그것에 익숙해져서 습관이 되고 더 큰 것을 쉽게 도둑질하게 될 수 있고, 몇 번씩 거짓말로 사기를 치면 차츰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뜻을 보여준다.

(39)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Нуухыг нь авах гээд

Нүдий г нь сохлох.

Nuuhiig ni avah geed

Nvdiig ni sohloh.

(눈곱을 빼려다가

눈멀게 한다.)

한 의미: 못마땅한 것을 참지 못하고 없애려고 하다가 도리어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몽 의미: 일을 하다가 사람이 지식이 모자라서 도리어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빈대는 먹이를 먹기 전의 몸길이는 6.5~9.0mm이고, 몸 빛깔은 대개 갈색이다. 그러나 먹이를 먹은 후에는 몸이 부풀어 오르고 몸 빛깔은 붉은색이 된다. 집안, 새 둥지, 박쥐 동굴 등을 은신처로 삼으며, 이밖에도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의 몸에도 발생한다. 이러한 아주 작은 빈대를 잡으려고 불을 붙였다가 집까지 다 태운다는 뜻으로, 빈대의 몸집이 작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사람에게 더 이상 과욕이 필요 없다는 교훈적인 속담이다.

몽골 속담에서도 눈에서 나온 아주 작은 눈곱을 빼려다가 오히려 눈을 멀게 한다는 속담이 있으며, 양국의 속담은 뜻이 같지만 속담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41) 새 발의 피.

Аманд ч үгүй

Хамарт ч үгүй.

Amand ch ugui

Hamart ch ugui.

(입에 넣으려고 하지만 넣을 게 없고,
코에 넣으려고 하지만 넣을 게도 없다.)

한 의미: 새 발의 피는 얼마 되지 않듯이, 지극히 적은 양을 비유하는 말이다.

몽 의미: 음식을 비롯해서 뭐든지 부족하고 지극히 적은 양을 비유하는 풍자다.

물론 새도 크고 작은 새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새는 육지에 사는 동물들의 비해 몸집이 작은 동물이다. 위 속담을 살펴보면, 적은 양이 피는 작은 동물에서만 나온다는 의미로 새가 몸이 아주 작다는 상징 의미를 보여준다.

(42) 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АЛТНЫ ДЭРГЭД ГУУЛЬ*

шарлана.

Altnii derged guuli sharlana.

(금 옆에 있는 황동이 노래진다.)

한 의미: (1) 어떠한 일이든 오래 듣고 보다 보면 자연히 할 줄 알게 된다는 뜻이다.

(2) 배우지 못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들과 사귀면 점점 유식하게 된다는 뜻이다.

몽 의미: 사람은 유식한 사람들과 사귀면 점점 유식하게 된다는 뜻이다.

한국 속담에서 개를 통해서 무엇이든 잘 배울 수 있는 영리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다. 몽골 속담에서 아무리 경험 없는 사람이라도 한곳에 오래 있으면 그 곳의 경험과 지식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의미를 금 옆에 있는 황동으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다.

양국의 속담을 살펴보면 누군가에 주위의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을 강

조하고 있다.

(43) 소 닭 보듯.

Хэлгүй дүлий хоёр шиг
Хэн хэний гээ ой лгохгүй бай х.
Helgui dulii hoyor shig
Hen heniigee oilgohgui baih.
(병어리 귀머거리 처럼
서로 이해가 안된다.)

한 의미: 소가 닭을 무심히 보듯이,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이는 무관하게 된다는 뜻이다.

몽 의미: 서로 이해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이다.

소외양간에 닭이 얼쩡거린다고 해도 소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왜냐하면, 소는 여물을 먹고 닭은 외양간 바닥에서 자기가 먹을 것만 주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소와 닭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같은 의미로 몽골 속담은 병어리, 귀머거리 둘은 서로 이해가 안돼서 무관계라고 표현되고 있다.

(44)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Өнгөрсөн борооны хой ноос*

цув нөмрөв.

Ungursun boroonii hoinoos tsuv numruv.

(비가 그친 후에 비웃 입는다.)

한 의미: 소 잃고 난 뒤에 외양간을 고치듯이, 일을 그르친 뒤에 대책을 세운다는 뜻이다.

몽 의미: 일을 그르친 뒤에 대책을 세운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소가 귀중한 재산이었다. 사람들은 소를 이용해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끌고, 또한 먼 곳을 갈 때 소를 타기도 했다. 따라서 소는 한국의 선조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소와 말

을 기르는 곳인 외양간은 창고였으며, 외양간이 망가지면 그 안에 있는 가축들이 도망갈 것이다. 귀중한 재산인 소를 잃은 주인은 그 전에 허술했던 외양간을 수리하지 않은 것에 후회하게 되고, 외양간을 고쳐 봐야 소용없다는 의미로 나온 속담이다.

위 속담과 같은 의미인 몽골 속담에서 비가 오고 있을 때 비옷을 안 입다가 비를 맞은 다음에 비옷을 입어도 소용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47) 쇠뿔도 단 김에 빼라.

Хий вэл бүү ай

Ай вал бүү хий .

Hiivel bvv ai

Aival bvv hii.

(하려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우면 하지마라.)

한-몽 의미: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였으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실행하라는 뜻이다.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생각했으면 한창 열이 올랐을 때 망설이지 말고 곧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며, 시기를 잘 잡아야 된다는 양국의 생활 지혜를 반영하고 있다. 이 말은 든든히 박힌 쇠의 뿔을 뽑으려면 열을 가해서 잘 달군 다음 흐물흐물해졌을 때 뽑아야 한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53)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Бөх хүн

Бүдүүн өвсөнд бүдрэх.

Buh hvn

Budvvn uvsund bvdreh.

(씨름꾼이 굵은 풀에도

넘어질 때가 있다.)

한 의미: 능숙한 사람도 자만하면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뜻이다.

몽 의미: 아무리 능숙하다 해도 자만하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 속담에서 원숭이는 나무를 타는 대단한 실력을 가진 재주 있는 총명한 동물이란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원숭이의 행동 중에는 성숙한 인간의 행동과 비슷한 것이 많이 있다. 원숭이는 미래를 계획하고, 날씨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며, 특별한 좋은 무화과나무의 위치를 기억한다. 이 모든 유사성을 통해서 원숭이와 사람은 같은 행동을 한다는 위 속담들은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몽골 속담에서 힘이 있는 씨름꾼이 아주 작은 풀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나타났으며, 양국의 속담은 어떤 행동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비슷한 교훈적인 의미 갖은 속담이다.

(56)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랴. Шунаг хүн

Suusan gazraasaa shoroo atгах.

Shunag hvn

Suusan gazraasaa shoroo atгах.

(욕심 많은 사람은

앞은대에서 손에 흙을 넣는다.)

한 의미: 1. 욕심 많은 사람이 재물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뜻이다.

2. 좋아하는 것을 보면 참고 견디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몽 의미: 욕심 많은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참새는 몸이 작지만 그 이름은 ‘진짜 새’라는 뜻이다. 옛날에는 전기나 기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방아를 이용해 곡식을 찧거나 빵았다. 방앗간에 곡식을 찧고 빵는 곳이다 보니, 바닥에는 쌀이나 보리 등이 떨어져 있단다. 그러나 곡식 알갱이를 좋아하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 사람들이 아무리 쫓아내도 참새는 먹이를 먹으려 다시 오고 또 오는 것이다. 이

처럼 몽골 속담에서 욕심 많은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57) 큰 고기는 깊은 물에 있다.

Эрдэмт хүн даруу

Их мөрөн дөлгөөн.

Erdemt hvn daruu

Ih murun dulguun.

(교양 있는 사람은 온순하게 산다
큰 강은 온화하게 있다.)

한-몽 의미: 깊고 넓은 물속에 큰 고기가 있듯이, 훌륭한 사람은 군중 속에 있다는 뜻이다.

훌륭한 인물은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잘 드러나지 아니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물이 깊을수록 큰 고기가 있다는 뜻으로, 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큰 인물이 있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몽골 속담에는 교양인이 성격을 자연현상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위대한 것들은 다 조용하게 존재한다는 말이다.

(61)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Сүмбэр уулыг дов бай хад

Сүн далай г шалбааг бай хад.

Svmber uuliig dov baihad

Svn dalaig shalbaag baihad.

(산이 언덕이었을 때

바다가 웅덩이었을 때.)

한-몽 의미: 아득한 옛날 옛적의 일이라는 뜻이다.

한국 사람들은 옛날이야기 할 때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로 시작할 경우가 흔히 있다. 이 표현은 호랑이가 지금은 담배를 안 피우고 필수도 없지만 그 먼 옛날에는 피운 것으로 상상하며,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한다. 이처럼 몽골에서도 똑같이 옛날이야기이나 동화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산을 언덕이었을 때 바다가 웅덩이였을 때' 라고 시작한다.

(63)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Сай н хүн санаагаараа.

Sain hvn sanaagaaraa.

(좋은 사람이 제 말 하면 온다.)

한-몽 의미: 남의 말 하면 본인이 직접 오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다.

(64)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Зовох цагт

Зориг хэрэгтэй .

Zovoh tsagt

Zorig heregtei.

(고생할 때 용기가 필요하다.)

한 의미: 아무리 어렵고 고생스러운 일이라도 냉정하게 잘 생각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

몽 의미: 아무리 고생스러운 일이라도 용기를 내고 잘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무리 위급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인데, 속담에서는 호랑이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사납고 강해서 사람을 물린 두려움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비교한 결과를 따라서 한-몽 동일 의미 다른 소재 속담에서 등장하는 동물이 종류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한-몽 동일 의미 다른 소재 속담에서 나타난 동물이 종류와 빈도수

한국 속담			
	소재 동물	빈도수	빈도 등급
1.	소	4	1
2.	닭	3	2

3.	호랑이	3	3
4.	꿩	2	
5.	개	2	
6.	가재	1	4
7.	게	1	
8.	고양이	1	
9.	쥐	1	
10.	빈대	1	
11.	새	1	
12.	원숭이	1	
13.	참새	1	
14.	물고기	1	

한-몽 동일 의미 다른 소재 속담은 동일 의미 같은 소재 속담과 달리 ‘소’를 대상으로 하는 속담이 비율이 가장 높다.

제 3 절 독자적인 한국어 동물 속담

한국어 속담에는 몽골어 속담과 대응되는 속담이 없는 것도 많다. 즉 한국의 속담들과 내용이 유사한 몽골 속담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한-몽 양국은 역사, 지리, 문화,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특유한 것을 가지기 마련이다. 자민족의 조상들이 오랫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만든 속담은 그 민족의 특색이 있는 동시에 타민족 사람들이 이해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속담들은 그 나라의 속담 중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속담들이라서 이런 속담으로 그 민족의 문화를 짐작할 수 있다. 교육용 속담 64개 중에서 이런 속담은 21개이며, 총 속담의 32.8%을 차지한다.

(2) 개 밥에 도토리.

한 의미: 개는 도토리를 먹지 않기 때문에 밥 속에 있어도 먹지 아니하고 남긴다는 뜻에서 따돌림을 받아서 여럿의 축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

비유하는 말이다.

(3) 개 발에 편자다.

한 의미: 개 발에 필요 없는 편자를 대듯이, 옷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제격에 맞지 아니하여 어울리지 않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4) 개 팔자가 상팔자다.

한 의미: 1. 개는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잠자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주인이 다 마련해 줄 뿐 아니라 힘써 일하지도 않고 지내듯이, 팔자가 매우 좋다는 뜻으로 일이 분주하거나 고생스러울 때 넋두리로 하는 말이다.

2. 또는 내 팔자가 하도 나쁘니 차라리 개 팔자가 더 좋겠다고 넋두리로 하는 말이다.

위 속담은 개의 한가함을 부러워한다는 것이다. 한-몽 양국에서 개의 관한 속담은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한국에서는 개를 좀 더 좋은 의미로 표현하는 속담들이 많다.

(5)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한 의미: 돈을 벌 때는 일을 가리지 않고 천하게 벌더라도, 쓸 때에는 정승같이 현명하게 쓴다는 말이다.

(7)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한 의미: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하듯이, 잘났다고 우쭐대는 사람은 자신이 고생하던 시절 생각은 못하고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잘났을 때의 생각만 한다는 뜻이다.

속담에서 개구리를 통해서 행동이 천박하고 덤벼거리거나 무식하고 교만한 사람을 비유하며, 한편으로는 올챙이에서 개구리로의 변신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일러 주기도 한다.

(10) 거미가 줄을 치면 날씨가 좋다.

한 의미: 거미는 저기압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고기압일 때 줄을 치므로, 거미가 집을 치면 날씨가 좋다는 뜻이다.

거미는 거미줄을 치고 곤충을 먹이로 잡아먹는 곤충이다. 한국에서는 거미가 하루 중 어느 시점에 나타나느냐에 따라 길흉을 점쳤다. 또는 거미와 관련된 속담에는 ‘거미줄에 목을 맨다.’, ‘거미줄로 방귀 동이 뚫하다.’,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등과 같이, 주로 줄을 치는 특성을 이용하여 끈기와 치밀함, 준비성을 의미하며 거미줄은 헛되고 미덥지 못함 등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가 대부분이다. 또한 거미는 미신과 공포의 대상이라고 한다.

위 속담에서 거미는 날씨 좋을 때만 줄을 치는 의미를 보인다. 좋은 일을 예시하는 의미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11)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한 의미: 강자들의 싸움에 애매하게 약자만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뜻이다.

한국은 바다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다의 동물들이 속담 속 주인공이 될 경우가 많다. 이런 속담은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속담을 만드는 민족의 일상생활의 특징을 보여준 속담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몽골 속담에서 이런 동물을 볼 수 없다.

고래는 몸길이가 약 5m정도이고 몸무게는 평균 2톤으로 바닷속 괴물로 알려진 생물이며 포유류 중에서 몸집이 가장 크다. 한국에서 고래는 부자, 협조자를 상징하고 큰 것은 사람의 인품이나 능력이 출중한 것을 표현하며 해엄

치는 것은 소망을 성취하는 것을 표현한다.

속담에서 새우는 ‘큰 이득을 얻기 위한 적은 밑천’이나 강자들 틈바구니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연약한 존재로 나타난다. 새우의 상징은 좋은 뜻으로도 통한다. 물고기의 대부분이 뒤로 헤엄칠 수 없는 것에 비해, 새우의 굽은 허리는 후퇴할 때 아주 뛰어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새우가 몸을 자유롭게 굽히고 펴는 것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기를 기원한다는 상징을 지니게 되었다. 또는 새우는 부부간 백년회로 한다는 상징, 선비기질이 있어 맑고 깨끗함 등을 상징한다.

(17)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 의미: 구렁이가 담을 슬그머니 넘어가듯이, 무슨 일을 딱 부러지게 잘 처리하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가는 뜻이다.

구렁이는 옛날 초가집이나 길가의 돌담, 방죽, 돌 틈에 살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 동물이다. 조상들은 구렁이가 재산을 지켜 준다고 믿어 집 안에 들어온 구렁이를 해치지 않고,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까지 했기 때문에 구렁이에 얽힌 옛이야기가 많다.²⁵⁾

(18)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

한 의미: 까마귀의 빛깔이 까맣다는 데서 유래된 말로서, 까맣게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건망증이 심한 사람한테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

(19)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한 의미: 공교롭게도 어떤 일이 같은 때에 일어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남의

25) 오주영(2012)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속담』 은하수 미디어, p. 155.

의심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결국 그 일로 해서 일이 나쁘게 전개됨을 암시한다.

(26)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 의미: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언제나 똑같은 일만 계속 되풀이한다는 뜻이다.

(27)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한 의미: 달리는 말에게도 채찍질 하는 듯이 힘껏 하는데도 자꾸 더 하라고 한다는 말이다.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하라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면 힘을 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격려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한다.

(28) 달걀로 바위 치기.

한 의미: 대항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29)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한 의미: 자기가 한 일을 감추기 위하여 엉뚱한 수단으로 속인다는 뜻이다.

(34)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한 의미: 음식을 먹거나 일을 하는 숨씨가 매우 빠르다는 뜻이다.

(38)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

한 의미: 몹시 인색한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다.

벼룩은 눈에 잘 띄지도 않을 만큼 작은 곤충이다. 벼룩에게 간이 있다면 아마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이며, 이런 벼룩의 간마저 빼내어 먹는다면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벼룩의 간은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며, 벼룩은 사람과는 달리 간이 없다고 한다. 이 속담에서 벼룩은 경제적으로 몹시 가난한 사람을 표현했으며, 벼룩의 간은 그 사람의 아주 미미한 경제적 능력을 비유한다. 따라서 위 속담은 몹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커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는 뜻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뻔뻔스럽고 염치없는 행동이라서 이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은 사람에게 얼마 되지도 않는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나 하는 것이 인색한 사람에게 이 속담을 쓰며, 속담에서 벼룩은 학대받는 존재로 나타난다.

(45)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

한 의미: 사람은 자기의 도리를 지켜야 제대로 행세 할 수 있다는 뜻이다.

(48) 쌀독에 거미줄 치겠다.

한 의미: 식량이 떨어져 먹지 못하고 굶주린다는 뜻이다.

(49)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한 의미: 여자가 집안일을 떠들썩하게 하면 집안에 불화가 생긴다는 뜻이다.

닭에 관한 속담은 당대의 사람들이 여자의 사상을 무시하였고 암탉을 불길한 징조로 여겼음을 엿볼 수 있다.

(51)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한 의미: 뒷일은 어떻게 되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선 당장 좋으면 그만인 것처럼 무턱대고 행동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4) 죽 쭈어 개 준다.

한 의미: 애써 일한 것이 남 좋은 일만 하고 아무런 소득도 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속담에는 그 나라의 국민정서가 다분히 반영되어 있다. 속담은 한 민족의 생활 모습과 삶의 지혜를 단적으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상징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따라서 속담은 사회성, 역사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민족성을 갖는다고 한다.²⁶⁾ 앞에서 살펴본 한국의 독자적인 동물 속담들은 개에 관한 속담이 많은 편이고 표현과 내용도 다양하다. 이는 개가 야생동물 가운데 가장 먼저 가축화된 동물이며 사람과 제일 친밀한 관계를 맺은 동물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독자적인 한국어 동물 속담에서 나타난 동물이 종류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독자적인 한국어 동물 속담에서 나타난 동물이 종류와 빈도수

한국 속담			
	소재 동물	빈도수	빈도 등급
1.	개	5	1
2.	닭	3	2
3.	거미	2	3
4.	까마귀	2	
5.	고래	1	4
6.	새우	1	
7.	개구리	1	
8.	구렁이	1	
9.	다람쥐	1	
10.	말	1	
11.	우리	1	

26) 최창렬(2002) 『우리 속담 연구』 . p.14

12.	게	1	
13.	벼룩	1	
14.	송충이	1	
15.	소	1	

다음으로는 한-몽 교육용 동물 속담에서 나타난 동물이 상징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앞서 3장 1, 2, 3절에 나타난 동물 속담을 종합하여 상위 빈도수를 보이는 동물 목록을 선정하고, 선정된 동물들의 상징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8> 한국어 교육용 동물 속담에 등장하는 동물의 빈도수

	한국 속담			몽골 속담		
	소재 동물	빈도수	빈도 등급	소재 동물	빈도수	빈도 등급
1.	개	9	1	소	5	1
2.	소	8	2	토끼	4	2
3.	호랑이	7	3	쥐	3	3
4.	닭	6	4	거위	2	4
5.	고양이	5	5	까마귀	2	
6.	쥐	5		늑대	2	
7.	개구리	3	6	개구리	2	
8.	까마귀	3		호랑이	2	5
9.	평	3		두루미	1	
10.	가재	2	7	고슴도치	1	
11.	게	2		고양이	1	
12.	거미	2		양	1	
13.	새	2		낙타	1	
14.	개미	1	8	당나귀	1	
15.	고슴도치	1		뱀	1	
16.	고래	1		개	1	
17.	구렁이	1		공작새	1	
18.	다람쥐	1				
19.	말	1				
20.	뱀새	1				
21.	빈대	1				

22.	벼룩	1		
23.	새우	1		
24.	생선	1		
25.	송충이	1		
26.	토끼	1		
27.	용	1		
28.	원숭이	1		
29.	황새	1		

위의 표를 보면 한국어 교육용 동물 속담 64개에 나타난 동물의 종류는 29개이다. 한-몽 속담을 정리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개, 소, 호랑이 등 동물들이 속담에 나타나는 비율이 높으며, 반면에 몽골의 경우에는 소, 토끼가 더 많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어 교육용 동물 속담을 통해서 제2언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더 넓게 이해하고 더 많은 지식을 얻으며 실질적으로 한국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데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교육용 속담에 나타난 동물의 종류 중 등장 빈도수가 3개 이상인 9종류 동물의 상징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동물 관련 속담에 내포되어 있는 두 나라의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볼 것이다.

제 4 절 속담에 나타난 동물의 상징 의미

앞에서 살펴본 한-몽 동물 속담의 비교를 바탕으로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을 마련하고자 한국어 교육용 동물 속담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동물의 상징 의미를 살펴본다. 동물 속담에 나타난 동물의 상징 의미를 통하여 양국의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속담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에 선정한 9종류 동물의 상징 의미는 다음과 같다.

3.4.1. 개

한국어 교육용 동물 속담에 동물이 빈도수를 분석해 보면 개를 소재로 등장하는 속담의 수는 가장 높으면 총 9번 나타난다. 한-몽 동일 의미 동물 소재 속담의 (33), (59)에 나타난다. 한-몽 동일 의미 다른 소재 속담의 (30), (42)에 나타난다. 독자적인 한국어 속담의 (2), (3), (4), (5), (54)에 나타난다.

3.4.1.1. 개의 개성과 의미

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대표적인 동물이다. 개는 과거 인간이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기르기 시작한 동물로서 긴 세월 동안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자리매김해 왔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과 같이 살아온 개는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 줄곧 관심의 대상으로 남았을 뿐만 아니라 의로움을 상징하는 동물로까지 승화되었다.²⁷⁾ 개는 고대사회에서 가축의 한 구성원이 된 이래로 사람의 곁에서 줄곧 살아왔던 동물이며, 이것은 인간과 공생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개가 인간을 좋아한다는 속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개가 인간의 말귀를 잘 알아듣는 점이나 충직성이나 영리성을 지녀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점도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²⁸⁾

또한 사람들은 개가 특수한 사냥 솜씨를 발전시키도록 만들었으며, 개는 인류와 더불어 살아왔기에 그와 관련된 상징성도 다양하다. 개는 성질이 온수하고 영리하여 사람을 잘 따르며, 후각과 청각이 예민하고 경계심이 강하다. 또한 자기의 세력 범위 안에서는 대단한 용맹성을 보인다. 특히 주인에게는 충성심을, 낯선 이에게는 적대심, 경계심을 보인다.²⁹⁾

이처럼 한국과 몽골의 사람들은 대부분 개를 좋아하고 친숙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속담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27) 김선풍 외(1995) 『열두띠 이야기』 . p.347.

28) 김종대(1997:), 『12띠의 민속과 상징』 . p.12.

29) 김명화(2011), 한-중 12지신 동물 속담 비교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4.1.2. 속담에서 개의 상징 의미

1) 부지런함과 영리함

한국의 속담에서는 개의 행위를 이용하여 근면함을 표현하고 있다. 개는 부지런한 동물로 비취지고 있는데, 이는 개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는 습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42)와 같이 개의 영리성과 관련 속담들도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한국 속담

① 개도 부지런해야 더운 똥을 얻어먹는다.

Нохой ч гэсэн эртэч бай ж халуун баас олж иднэ.

(Nohoi ch gesen ertech baij haluun baas olj idne.)

의미: 개도 부지런해야 더운 똥을 얻어먹듯이, 사람도 부지런해야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게 된다는 뜻이다.

② 다니는 개는 배 채우고 누운 개는 배 차인다.

Явсан нохой гэдсээ дүүргэж хэвтсэн нохой гэдсээ өшиглүүлнэ.

(Yavsan nohoi gedsee dvvrgej, hevtsen nohoi gedsee ushiglvvlne.)

의미: 부지런히 싸다니는 개가 배부르게 얻어먹고 게으르게 누워 있는 개는 먹지도 못하고 발로 채이듯이, 부지런한 사람은 잘 살게 되고 게으른 사람은 고생만 하게 된다는 뜻이다.

나) 몽골 속담

① Явсан нохой яс зууна.

Yavsan nohoi yas zuuna.

(다니는 개가 벼를 먹는다.)

의미: 개도 부지런해야 배고프지 않는다는 뜻이다.

② Нохой хамартаа тулахаар усч.

Nohoi hamartaa tulahaar usch.

(개는 코에 물 들어가게 되면 수영도 잘 한다.)

의미: 수영을 못 하는 개가 갑자기 큰 물에 들어가도 물에 빠지지 않고 수영할 수 있을 정도라는 뜻으로 영리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2) 충성심과, 적대심, 용맹심

개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과 함께 살아오면서 자신을 기르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동물로 여겨져 온 것을 한-몽 양국의 속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개는 주인을 잘 따르고 주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목숨을 내걸고 구하는 충직한 동물의 상징이다. 반대로 낯선 사람에게는 적대심, 경계심을 보여주며 이와 관련된 속담도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한국 속담

① 개는 믿어도 상전 양반은 못 믿는다.

Нохой доо итгэсэн ч ноёндоо үл итгэнэ.

(Nohoidoo itgesen ch noyondoo vl itgene.)

의미:(1) 개는 거짓말을 못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이다.

(2)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개만도 못한다는 뜻이다.

② 개도 주인을 보면 꼬리를 친다.

Нохой ч гэсэн эзнээ харвал сүүлээ шарвана.

(Nohoi ch gesen eznee harval svvlee sharvana.)

의미: 개도 주인을 보면 반갑게 맞이하듯이, 사람도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다정하게 접대한다는 뜻이다.

③ 개도 은혜를 잊지 않는다.

Нохой ч гэсэн ач тусыг мартдаггүй.

(Nohoi ch gesen ach tusiig martdaggui.)

의미: 개도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잘 복종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남

의 은혜를 갚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는 뜻이다.

나) 몽골 속담

- ① Нохой хотоо манадаг, ноён олноо мөлждөг.

Nohoi hotoo manadag, noyon olnoo muljdug.

(개는 가축우리를 지키고, 양반은 대중을 착취한다.)

의미: 개의 충성심을 양반의 하찮음과 비유하는 속담이다.

- ② Нохой хэний юуг иднэ, түүний үүдий г сахина.

Nohoi henii yug idne, tvvnii vvdiig sahina.

(개는 밥 주는 주인이 집을 지킨다.)

의미: 도움 주는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3) 비천함과 하찮음

개에 관한 속담을 살펴보면 양국 모두 개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속담이 많이 보인다. 개의 똑똑하고 영리한 이미지와는 달리 속담에서는 개의 본성을 바탕으로 가장 미천한 것, 가장 사람답지 못한 것을 개에 비유하여 왔다. 예를 들면 (30), (33)을 비롯해서 다음과 같다.

가) 한국 속담

- ① 개소리만 한다.

Нохой шиг хуцах.

(Nohoi shig hutsah.)

의미: 쓸데없는 말만 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 ② 개는 똥 먹는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

Нохой баас иддэг авираа хаяж чаддаггүй .

(Nohoi baas iddeg aviraa hayaj chaddaggui.)

의미: 타고난 나쁜 본성은 고칠 수가 없다는 뜻이다.

나) 몽골 속담

① Нохой н аманд орсон яс бүтэн гардаггүй

Ноёны ялд унасан хүн бүтэн гардаггүй .

Nohoin amand orson yag bvten gardaggui

Noyonii yald unasan hvn bvten gardaggui.

(개 입에 들어간 뼈는 전부 부러진다

양반의 손에 들어간 사람은 전부 죽는다.)

의미: 개 입에 들어간 뼈가 완전히 부러질 듯이 나쁜 사람의 손에 들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② Нохой мянган газар явавч баас идэхээ болихгүй .

Nohoi myangan gazar yavaych baas idehee bolihgui.

(개는 똥 먹는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

의미: 개를 통해서 못된 사람을 비유하는 속담이다.

4) 식용

한국에서 사람들이 개고기를 잘 먹었고 특별한 날에는 복날에 보신을 위하여 먹는 풍속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4)를 비롯해서 다음과 같다. 반면에 몽골에서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속담을 찾을 수 있다.

가) 한국 속담

개고기와 논바닥은 삶아야 한다.

Нохой н мах тутарга хоёрыг болгох хэрэгтэй .

(Nohoin mah tutarga hoyoriig bolgoh heregtei.)

의미: 개고기는 꼭 삶아야 맛이 있고, 논은 썩레질을 잘해야 모심기도 좋고 모도 잘 자란다는 뜻이다.

나) 몽골 속담

① Нохой н толгой ширээн дээр зохихгүй .

Nohoin tolgoi shireen deer zohihgui.

(개 머리는 식탁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의미: 개고기를 식탁에 올려서 먹지 않은 뜻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양국에서 개의 상징 의미는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한국에서는 몽골보다 좀 더 좋은 의미로 쓰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 개의 한가함을 부러워한다는 것이 있으며, 또한 옛날부터 개를 식용으로 사용했음이 속담에도 나타난다. 위 결과를 묶어서 양국 속담에서의 개의 상징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개의 상징 의미

	개의 상징 의미	한국	몽골
1.	부지런함과 영리함	있다	있다
2.	충성심과 적대심, 용맹심	있다	있다
3.	비천함과 하찮음	있다	있다
4.	식용	있다	없다

3.4.2. 소

한-몽 교육용 동물 소재 속담에서 총 8번 나타난다. 한-몽 동일 의미 동물 소재 속담의 (25), (35), (46), 한-몽 동일 의미 다른 소재 속담의 (36), (43), (44), (47), 독자적인 한국어 속담의 (51)에 나타난다.

3.4.2.1. 소의 개성과 의미

소는 동물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근면한 동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항상 칭송을 받아 왔다. 소는 옛날부터 기른 유용한 가축으로 운반, 경작 따위에 쓰이고 고기나 젖은 식용하며 가죽, 뿔 따위도 다양하게 쓰였다. 또한 거대한 몸집과 센 힘, 온순한 성질로 농사에 줄곧 이용되어 왔다.

한국의 농경 생활에서 소는 한집안 식구 같은 존재이자 조력자이며, 목가

적이고, 전원적인 분위기를 상징, 풍요와 힘의 상징, 평화와 유유자적함의 상징, 우직한 성격, 재산의 상징, 근면과 성실 상징으로 여겨왔다.³⁰⁾ 소는 오래 전에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바치는 희생물로만 쓰이다가 농사에 이용하기 위한 동물로 길러졌다. 농사를 짓기 위하여 땅을 갈 때 소를 이용하면 많은 땅을 좀 더 빨리 갈 수 있었다. 소 덕분에 농사일이 편해진 데 대하여 고마워했으며 소를 가족처럼 대하고 일을 부린 소는 잡아먹지 않았다.

몽골의 경우, 소는 농경 생활이라기보다 유목 생활과 관련된다. 먼 옛날부터 유목 생활로 살아 온 민족이기 때문에 소를 다섯 가지 가축의 하나로 키워 왔고, 소는 몽골 사람들에게겐 없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존재이다.

따라서 양국의 사람들이 소를 아끼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양국에서 소는 근본적으로 우직하고 순하고 변함없는 가치관을 의미하며 삶의 여유를 상징한다.

3.4.2.2. 속담에서 소의 상징 의미

1) 근면함과 성실, 큰 힘

‘소같이 벌어서’, ‘드문드문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은 꾸준히 일하는 소의 근면성을 칭찬한 말로써 인간에게 소의 근면함을 통해 성실함을 일깨워주는 속담이다.³¹⁾ 이처럼 소의 성격은 순박하고 근면하며 또한 거대한 몸집이기 때문에 센 힘을 상징한다. 속담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한국 속담

① 소같이 벌어서, 쥐같이 먹어라.

Үхэр шиг хурааж, хулгана шиг ид.

(Vher shig huraaj, hulgana shig id.)

의미: 소같이 일은 많이 하고 쥐같이 음식을 아껴먹으면 살림이 윤택해진다는 뜻이다.

30) 정예희(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용 한국문화상징 어휘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1) 천진기(2003) 『한국동물민속론』. 민속원. p.130.

② 소같이 일 한다.

Үхэр шиг ажил хий х.

(Vher shig ajil hiih)

의미: 소처럼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한다는 뜻이다.

2) 식품

세계 인류 문명의 기나긴 역사 속에 몽골 민족이 기여한 것은 유목민족의 풍습이라고 할 수 있다.³²⁾ 몽골 민족의 경우에는 농경사회에서 상징되는 소의 큰 힘과 근면함을 이용하기보다, 소를 다섯 가지 가축의 하나로 기르며, 소고기와 우유를 식용으로 사용한 유목 생활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속담들은 몽골 속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몽골 속담

① Үрээ идэхээр үхэрээ ид.

Vree ideheer wheree id.

(씨를 먹기 대신 소를 먹어라)

의미: 아무리 가난해도 심어야 할 씨를 먹으면 앞으로 더 가난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② Үхэрээ идэхээс бигш

Үгээ идэхгүй .

Vheree idehees bish

Vgee idehgui.

(소를 먹을 수 있지만 이미 입에서 나온 말을 못 먹는다.)

의미: 이미 입에서 나온 말은 아무리 돌려먹고 싶어도 못 먹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다.

3) 재산, 큰 이익

32) 밤바체렐 받돌가(2013) 앞에 논문.

소는 농사를 짓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으며, 양국의 사람들은 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재산이 된다고 여겨왔다. 한국의 농경사회였던 과거에는 소를 특히 중요시했으며, 물질적으로도 가계에 큰 도움을 주는 소는 부를 상징해왔다. 농사가 가장 중요한 생업이었던 시절, 소가 없으면 농사일이 쉽지 않았으므로 소를 재산 중에서 제일 으뜸으로 여긴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비싸고 귀중한 동물이 소는 재산과 이익을 상징한다. (36), (44), (51)에서 이런 속담의 예를 볼 수 있다. 몽골 사람들은 소를 이익이 많다고 칭찬하는 말이 많으며, 속담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몽골 속담

① Үнээний шим арвин хонины ашиг үлэмж.

Vneenii shim arvin, hononii ashig vlemj.

(젖소와 양의 이익은 풍부하다.)

의미: 몽골 사람들의 소와 양을 이익이 많다고 칭찬하는 말이며 보통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쓰는 말이다.

4) 고집스러우며 어리석음, 미련함, 느린 의미

소는 위 속담들과 같이 좋은 의미로도 많이 쓰였지만 우직하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미련한 의미를 상징하는 속담도 많은 것을 (25), (35), (43), (46)의 속담에서 볼 수 있다. 몽골 속담에서도 소는 미련함과 느림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한국 속담

① 쇠고집이다.

Үхэр шиг зөрүүд.

(Vher shig zuruud.)

의미: 소처럼 몹시 고집이 센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나) 몽골 속담

① Үхэр уусан усандаа баах.

Vher uusan usandaa baah.

(소는 먹은 물에 똥 쓴다)

의미: 한 번에 쓴 물건을 다시 쓴다는 것을 잊은 미련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② Үхэр удаанаа мэддэггүй

Хүн тэнэгээ мэддэггүй .

Vher udaanaa meddegui

Hvn teneggee meddegui.

(소는 자기 느린 것을 모르고, 사람은 자기 멍청한 것을 모른다.)

의미: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모른다는 의미다.

위 결과를 묶어서 소의 상징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표 10> 소의 상징 의미

	소의 상징 의미	한국	몽골
1.	근면함과 성실, 큰 힘	있다	없다
2.	식품	없다	있다
3.	재산 큰 이익	있다	있다
4.	고집스러움, 어리석음, 미련함, 느림	있다	있다

3.4.3. 호랑이

한-몽 교육용 동물 소재 속담에서 총 7번 나타난다. 한-몽 동일 의미 동물 소재 속담의 (40), (59), (60), (62)에 나타난다. 한-몽 동일 의미 다른 소재 속담에서는 (61), (63), (64)에 나타난다.

3.4.3.1. 호랑이의 개성과 의미

호랑이는 고양이과의 포유류로 몸의 길이는 2미터 정도이며, 등은 누런 갈

색이고 검은 가로무늬가 있다. 배는 흰색이고 꼬리는 길며 검은 줄무늬가 있는데 삼림이나 대숲에 혼자 또는 암수 한 쌍 같이 살며 시베리아 남부에서 인도, 자바 등지에 분포한다.³³⁾

한국에서 호랑이라는 동물을 생각하면 용맹하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동물의 왕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따라서 위엄이나 권위를 상징하는데 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호랑이는 실제로 사람을 해치고 가축을 물어가는 등 야성적이고 포악한 면이 많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동시에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가 악귀를 막아 주는 신성한 동물이라고 믿었고,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을뿐더러 한반도 지도까지 호랑이 모양으로 여겨져 왔다.³⁴⁾ 호랑이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예의바른 동물로 대접받기도 하고, 골탕을 먹일 수 있는 어리석은 동물로 전락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인간보다 더 순수하고 진실하며 지극한 효성을 가진 동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호랑이를 사람과 가까운 친근한 동물이라고 좋아하면서 싫어하기도 하고, 무서워하면서 우러러보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3.4.3.2. 속담에서 호랑이의 상징 의미

1)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 왕

호랑이는 동물의 왕이라 불릴 만큼 그 위엄이나 권위를 상징한다. 호랑이는 절대적인 권위와 힘을 상징하여 용맹, 명예, 권세, 관직, 군대, 승리 등의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호랑이는 인간 자체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대상이다.³⁵⁾ 아래 한국 속담들은 호랑이의 위엄과 영웅적인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몽골 사람들은 모든 짐승 중에서 사자를 왕이라고 여겨 왔지만 호랑이 위엄을 나타난 속담들도 적지 않다.

33) 호심(2012),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동물 비유 표현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4) 벨로마(2009), 한국어의 동물 속담 속에 나타난 상징의미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2

35) 천진기 앞에 책. p.180

가) 한국 속담

① 범은 산중의 왕이다.

Бар нь уулсын хаан.

(Bar ni uulsiin haan.)

의미: 범은 산짐승 중에서는 가장 힘센 동물이라는 뜻이다.

② 호랑이는 모든 짐승 중에서 왕이다.

Бар нь араатны хаан.

(Bar ni araatnii haan.)

의미: 산중의 짐승 가운데 호랑이가 가장 무서운 동물이라는 뜻이다.

나) 몽골 속담

① Барс ирвэсний сүр хүч үлэмж.

Bars irvesnii svr hvch vlemj.

(호랑이 힘은 끝이 없다.)

의미: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호랑의 힘으로 비유하는 속담이다.

② Барс өтлөвч эрээнээрээ

Үхэр өтлөвч эвэртэй гээ.

Bars utluvch ereeneeree

Vher utluvch evertеgee.

(호랑이는 늑어가도 얼룩은 그대로

소는 늑어가도 뿔은 그대로.)

의미: 범, 소의 힘으로 통해서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속담이다.

2) 무서움, 미움의 대상

호랑이는 실제로 사람을 해치고 가축을 물어가는 등 야성적이고,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사납고 강해서 두려움이 대표적인 상징이 된다. 한국의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사람을 괴롭힌다. 여기서 호랑이는 민중을 괴롭히는 폭군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므로 옛날 어린이들은 ‘호랑이 온다, 울음을 뚝 그쳐라’는 말을 가장 무서워했다. 이런 호랑이를 나타난 속담

은 (59), (64)를 비롯해서 다음의 한국 속담과 같다. 몽골 속담에서도 호랑이를 무서움, 두려움이 대상으로 하는 비슷한 속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가) 한국 속담

① 범은 꼬리만 봐도 무섭다.

Барын сүүлий г нь харахад л ай мшигтай .

(Bariin svvliig ni harahad l aimshigtai.)

의미: 이름 난 물체는 전체를 보지 않고 한 부분만 봐도 알게 된다는 뜻이다.

② 귀신을 피하니 호랑이를 만난다.

Чөтгөрөөс зугатсан чинь бартай тааралдав.

(Chutguruus zugatsan chini bartai taaraldav.)

의미: 무서운 것을 한차례 만나 피하고 나서 안심하였더니, 이번에는 더 무서운 것을 만나 기절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나) 몽골 속담

① Барсаас ай сан тугал гурван жил гулдай на.

Barsaas aisan tugal gурvan jil guldaina.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송아지가 3년 앞드려 늙는다.)

의미: 어떤 것을 한 번 무서워하면 앞으로도 계속 무서워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② Чонын амнаас гараад барсын аманд орох.

Choniin amnaas garaad barsiin amand oroh.

(늑대 피하니 호랑이를 만난다.)

의미: 무서운 것을 만나 피하고 나서 안심하였더니, 이번에는 더 무서운 것을 만나게 되었다는 뜻이다.

3) 인간에게 가까운 동물

호랑이는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는 맹수지만 옛날이야기에는 인간과 가까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효성 다한 호랑이’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1988년 서울올림픽의 마스코트였던 호랑이가 ‘호돌이’라는 귀여운 외모와 이름을 가지고 한국을 대표했던 것도 아마 이런 이유일 것이다. 이런 속담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 속담

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Бар тамхи татдаг бай сан цаг үе.

(Bar tamhi tatdag baisan tsag uye.)

의미: 아득한 옛날 옛적의 일이라는 뜻이다.

②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Бар ч гэсэн өөрийнх нь тухай ярихад хүрч ирдэг.

(Bar ch gesen uuriinh ni tuhai yarihad hvrch irdeg.)

의미: 남의 말 하면 본인이 직접 오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다.

위 결과를 묶어서 호랑이의 상징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표 11> 호랑이의 상징 의미

	호랑이의 상징 의미	한국	몽골
1.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 왕	있다	있다
2.	무서움, 미움의 대상	있다	있다
3.	인간에게 가까운 동물	있다	없다

3.4.4. 닭

한-몽 교육용 동물 소재 속담에서 총 6번 나타난다. 한-몽 동일 의미 다른 소재 속담의 (22), (30), (43)에 나타나고, 독자적인 한국어 속담의 (28), (29), (49)에 나타난다.

3.4.4.1. 닭의 개성과 의미

닭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인간과 매우 가까운 동물이기 때문에 양국에서 닭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침을 알리는 존재로 길하게 여겨져 왔다. 여러 작품에서 닭이 울면 어둠속에서 활개를 치던 요괴나 귀신이 사라지는 대목도 많이 있는데 이렇듯이 민간에서 닭은 새로운 아침을 가장 먼저 알리는 부지런하고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져 왔다.³⁶⁾

닭은 원래 야생조류였으나 일찍이 가축화되면서 날개가 퇴화하고 지상의 동물이 되었다. 닭은 가축 중에서 잡식성으로 각종 질병에도 강하고, 아무 것이나 잘 먹기 때문에 놓아먹이며, 특히 각종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병충해 방지도 한 몫 한다.

3.4.4.2. 속담에서 닭의 상징 의미

1) 시보를 알리는 울음소리

울음소리로 때를 알려주는 것은 다른 어떤 동물에게 없는 닭의 가장 큰 특징이다. 옛날에 시계가 없던 시절에는 닭이 우는 소리가 곧 동에 터 옴을 의미했고, 닭이 헛대에 오르는 시간으로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됐음을 알 수 있었다. 닭이 새벽을 알리는 행동에 사람들은 빛의 도래를 예고하는 영험함이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닭이 울음소리는 시보의 역할을 하면서 미래를 알려주는 예지의 능력이 있기도 한다. 따라서 한-몽 양국의 속담에서도 닭이 울음소리로 시보역할을 하는 특성을 나타난 속담들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한국 속담

① 닭이 우니 새해에 복이 온다.

Тахиа дуугарвал шинэ оноор азтай бай на.

(Tahia duugarval shine onoor aztai baina.)

의미: 새해의 새벽에 닭이 울면 새해가 시작되니, 새해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누리도록 기원을 한다는 뜻이다.

36) 김미애(2009), 한국과 중국의 동물 속담 비교: 12지신 동물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 몽골

① Тахиа дуугарвал үүр цай х

Тавь хүрвэл үс цай х.

Tahia duugarval vvr tsaih

Tavi hvrvel vs tsaih.

(닭이 울면 아침이 오고,

월이 되면 머리가 하얘진다.)

의미: 어떤 것이나 자기 시계가 있다는 뜻이다.

② Тахиа дуугарвал хичнээн унтах вэ?

Тавь хүрвэл хичнээн явах вэ?

Tahia duugarval hichneen untah ve?

Tavi hvrvel hichneen yavah ve?

(닭이 울면 얼마나 자겠어?

월이 되면 얼마나 가겠어?)

의미: 어떤 것은 자기 시계가 있고,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따라야 된다는 의미다.

2) 하찮음, 미물

위와 같이 닭은 사람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만 반대로 다른 귀한 동물과 비교해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나쁜 사람을 비유할 때도 쓴다. 한국에서 문헌에 나타난 닭은 상서로운 존재이지만 실제로 볼 수 있는 닭이 모습은 그것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속담은 닭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보여준다. 또한 닭은 몸집이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속담에서 소, 개 같은 다른 동물에 비교되어 약한 이미지로, 꿩 같은 귀한 동물에 비교되어 미물 동물로 나타난 속담들이 많다. 예를 들면 (22), (30), (43), (28), (29), (49)를 비롯해서 다음과 같은 속담을 찾을 수 있다. 몽골 속담에서도 닭의 하찮음, 미물을 상징 하는 점을 그의 울음소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속담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한국 속담

① 집안에 있는 닭은 버리고 산에 있는 꿩만 탐낸다.

Гэртээ байгаа тахиаг хаяад ууланд байгаа гургуульд шунах.

(Gertee baigaa tahiag hayad uuland baigaa gurguulid shunah.)

의미: 흥한 것은 하찮게 여기고 귀한 것만 탐낸다는 뜻이다.

② 여러 마리 닭이 한 마리 학만 못하다.

Олон тахианаас ганц тогоруу нь дээр.

(Olon tahianaas gants togoruu ni deer.)

의미: 못한 사람 여럿보다는 훌륭한 사람 하나가 낫다는 뜻이다.

나) 몽골 속담

① Муу тахиа нар гарсан хойно донгодоно.

Muu tahia nar garsan hoino dongodno.

(나쁜 닭은 해가 뜬 후에 운다.)

의미: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이 속담은 게으른 사람을 비유할 때 쓴다.

② Тахиятай ч үүр цайна

Тахиагүй ч үүр цайна.

Tahiatai ch vvr tsaina

Tahiagui ch vvr tsaina.

(닭이 있어도 아침이 되고,

닭이 없어도 아침이 된다)

의미: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침이 된다고 생각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은 진행해야 될 기간이 있다는 뜻이다.

3) 암탉이 알을 낳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닭은 부정적이 의미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양국의 속담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닭의 좋은 점은 암탉이 알을 낳는

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한국 속담

① 닭이 알을 많이 낳으면 길하다.

Тахиа олон өндөг гаргавал ивээлтэй сайн.

(Tahia olon undug gargaval iveeltei sain.)

닭이 알을 많이 낳는 것은 수입이 많으므로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나) 몽골 속담

① Тарвага шиг таргалах

Тахиа шиг өндөглөх.

Tarvaga shig targalah

Tahia shig undugluh.

(마모트 같이 쌀이 찢고,

암탉 같이 알을 낳는다.)

의미: 마모트와 암탉 같이 생산성이 있다는 의미다.

위 결과를 묶어서 닭의 상징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표 12> 닭의 상징 의미

	닭의 상징 의미	한국	몽골
1.	신보를 알리는 울음소리	있다	있다
2.	하찮음, 미물	있다	있다
3.	암탉이 알 낳음	있다	있다

3.4.5. 고양이

고양이는 한-몽 교육용 동물 소재 속담에서 총 5번 나타난다. 한-몽 동일 의미 동물 소재 속담의 (13), (15), (16), (50)에 나타나며 한-몽 동일 의미 다른 소재 속담의 (14)에 나타난다.

3.4.5.1. 고양이의 개성과 의미

고양이는 어떤 동물보다도 민첩하며 자급자족할 수 있고 자기도취가 강하며 독립적이고 강인하다. 고양이는 비교적 혼자 단독생활을 하는 편이며 혼자 힘으로 잘 꾸려간다. 이러한 고양이의 특성으로 어떤 가축보다 뒤늦게 인간사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³⁷⁾ 고양이의 성격은 개나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특이한 점이 많으며, 겁이 많고 조심스럽고, 자기 개성이 강하고 고집이 센 동물이다. 한국에서는 곡식이나 불경을 갇아먹는 쥐를 잡을 목적으로 사육되던 것이 6세기경에 한반도를 거쳐 왔다고 한다. 또한 개와 달리 고양이는 인간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동물로 인식되고 있다.

3.4.5.2. 속담에서 고양의 상징 의미

1) 냉정함

고양이는 길러준 주인의 정을 모르거나, 도둑질 하거나 사람들과는 별로 친숙하지 않은 동물이다. 개와 반대로 고양이는 인간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냉정한 성격을 상징하는 동물이라서 사람들의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을 다음 속담들에서 볼 수 있다. 고양이의 이런 냉정함을 상징하는 것은 몽골 속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가) 한국 속담

① 도둑고양이가 제상에 오른다.

Хулгай ч муур тахилд авирна.

(Hulgaich muur tahild avirna.)

의미:(1) 도둑질하는 사람은 남의 사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2) 못된 사람은 무엄한 짓만 한다는 뜻이다.

② 고양이 덕과 며느리 덕은 모른다.

Муурын ач, бэрий н ачыг мэдэхгүй .

37) 금선란(1993) 『사랑스런 개와 고양이를 위하여』 한국동물보호협회. p.284.

(Muuriin ach, beriin achiig medehgui.)

의미: 고양이가 쥐 잡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 없고, 머느리가 일 잘하고 착한 것을 시어머니는 모른다는 뜻이다.

나) 몽골 속담

① Муур өрхөөр орж үүдээр гардаг.

Muur urhuur orj vvdeer gardag.

(고양이는 환기창³⁸)으로 들어오고 문으로 나간다.)

의미: 고양의 몰래 다가가는 나쁜 행동을 보여주는 속담이다.

② Муурын зулзага бага боловч

Мярай х зангаа хаяхгүй .

Muuriin zulzaga бага боловч

Myraih zangaa hayahgui.

(고양이의 새끼는 어려도 슬금슬금 걸음을 잘한다.)

의미: 어떤 동물이든 자기 타고난 성격과 버릇을 고지기가 어렵고 그대로 있게 된다는 말이다.

또한 고양이는 양국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애완동물로, 항상 쥐를 괴롭히고 싸우기 때문에 속담에서도 두 동물은 떨어지지 않고 나타난다.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고양이를 기르는 이유는 쥐를 잡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속담에서도 고양이 냉정한 성격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4), (15)을 비롯해서 다음과 같다.

가) 한국 속담

① 고양이 쥐 잡듯 한다.

Муур хулгана барихтай адил.

(Muur hulgana barihtai adil.)

의미: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힘 안 들이고 쉽게 한다는 뜻이다.

38) 몽골 전통 집 겔의 위에 있는 잔문

② 고양이 쥐 놀리듯 한다.

Муур хулганаар тоглох шиг.

(Muur hulganaar togloh shig.)

의미: 고양이가 쥐를 놀리듯이, 사람 대접을 하지 않고 놀린다는 뜻이다.

나) 몽골 속담

① Муургүй газрын хулгана самуурах.

Muurgui gazariin hulgana samuurah.

(고양이 없는 곳에 쥐가 혼란하다.)

의미: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곳에 나쁜 사람은 제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한다는 의미다.

② Муурандаа бол наадам хулгандаа бол үхэл.

Muurandaa bol naadam hulganadaa bol vhel.

(고양이한테는 농담 쥐한테는 죽음.)

의미: 고양이가 쥐를 동정하지 않고 잔인한 행위를 한다는 뜻이다.

2) 믿음성 없음

고양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또 한 가지 상징은 믿음성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속담은 양국의 속담에서 똑같이 찾을 수 있다. 한국 속담은 (16) 등이 있고 양국의 속담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 속담

① 고양이 보고 반찬가게 지키라는 격이다.

Мууранд хоол хадгалуулахтай адил.

(Muurand hool hadgaluulahtai adil.)

의미: 믿지 못한 사람에게 재물을 맡긴다는 것처럼 불안하다는 뜻이다.

② 고양이 앞에 고기반찬이다.

Муурын өмнө мах.

(Muuriin umnu mah.)

의미: 고양이 앞에 반찬을 놓아두면 고양이가 먹어 치우듯이, 손해 볼 것만 한다는 뜻이다.)

나) 몽골 속담

① Муураар мах сахиулж хулганаар будаа мануулах.

Muuraar mah sahiulj, hulganaar budaa manuulah.

(고양이에게 고기를 맡기고, 쥐에게 쌀을 맡긴다.)

의미: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안 된다는 의미다.

3) 얍전함

고양이 대표적인 성격은 본성을 숨기는 얍전한 성격이다. 이런 속담은 (50)을 비롯해서 다음과 같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가) 한국 속담

① 얍전한 고양이가 아랫목 이불 속에 똥 찐다.

Дөлгөөн муур дулаан хөнжилд баах.

(Dulguun muur dulaan hunjild baah.)

의미: 겉으로 얍전한 체하는 사람이 뒤로는 갇은 못된 짓을 한다는 뜻이다.

나) 몽골 속담

① Муур хүзүүндээ эрхи зүүж махнаас гарав.

Muur hvzvvndee erhi zvvj mahnaas garav.

(고양이가 목에 방울 달고 고기를 그만 먹는다.)

의미: 속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는 자비로운 척하며 남을 사취하는 행동 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위 결과를 묶어서 고양이의 상징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표 13> 고양의 상징 의미

	고양의 상징 의미	한국	몽골
1.	냉정함	있다	있다
2.	믿음성 없음	있다	있다
3.	암전함	있다	있다

3.4.6. 쥐

한-몽 동의 의미 동물 소재 속담의 (15), (24), (32), (55)에 나타난다. 한-몽 동의 의미 다른 소재 속담의 (14)에 나타난다.

3.4.6.1. 쥐의 개성과 의미

쥐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존재해온 포유류 중의 하나이며, 생활력이 왕성하여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쥐는 인간이 먹는 무엇이든 잘 먹는 잡식성 동물이며 영리하고 체구가 작아 행동이 재빠르며, 설 수 없이 움직이는 부지런함이 있고 먹을 것을 저장하는 저축성도 있다. 쥐는 하루에 자기 체중의 4분의 1이상 되는 먹이를 먹어야 하며, 3일을 굶으면 죽기 때문에 식량을 찾아 부지런히 헤맨다. 밤에도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어느 곳에서도 잘 살아남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부자, 재물을 상징하기도 한다. 무엇이건 가까워지려고 하는 친근감을 발휘하나 몸집이 작아서 스스로 위기감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다. 따라서 인간에게 재물, 또한 다산으로 인한 생식력, 근면성과 저장성으로 부자, 예지력 때문에 신앙의 대상으로 상징되고 있다.³⁹⁾ 또한 위에 나타난 쥐의 기본적인 모든 면에서 쥐의 영리함을 볼 수 있다. 쥐는 양국의 12지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동물이다. 또한 몽골에서 쥐는 12지에 나타난 다른 동물들의 외모에서 각 한 가지 면을 작은 몸매 모두 포함한 동물이라는 옛 이야기가 있다. 이런 면에서 몽골 사람들은 쥐를 가장 빠르고, 영리한 동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쥐는 생태적 습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아니

39) 김명화(2011), 한-중 12지신 동물 속담 비교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다. 실생활에서 음식물을 훔칠 뿐만 아니라 병균을 옮기는 등 인간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양국에서 쥐의 상징 의미는 부정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3.4.6.2 속담에서 쥐의 상징 의미

1) 작은 몸집, 약자, 피해자, 미천함

쥐는 몸집이 작은 동물로서 일반적으로 약자를 상징한다. 고양이와 대비하는 속담에서도 쥐의 약자를 상징하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으며, 쥐라는 동물의 외형적 특성으로 ‘쥐구멍’, ‘쥐꼬리’, ‘쥐뿔’ 등에서 나타나듯이 ‘쥐’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보잘 것 없고 왜소함의 표현임을 쉽게 알 수가 있다. 이와 관련된 속담은 (14), (15), (32), (55)을 비롯해서 다음과 같다.

가) 한국 속담

① 쥐꼬리만 하다.

Хулганы сүүл шиг.

(Hulganii svvl shig.)

의미: 쥐꼬리 길이처럼 길다고는 하지만 긴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② 쥐뿔 같다.

Хулганын баас шиг.

(Hulganii baas shig.)

의미: (1)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는 뜻이다.

(2) 상대할 것도 못 된다는 뜻이다.

나) 몽골 속담

① Оготнод арслангий н хүч гаргана гэдэг шиг.

Ogotnod arslangiin hvch gargana gedeg shig.

(쥐를 잡을 때는 호랑이 힘을 쓸 필요가 없다.)

의미: 의미 없는 것에 쓸모없이 힘을 쓴다는 풍자다.

② Оготно арслантай тулалдаж зохихгүй.

Ogotno arslantai tulaldaj zohihgui.

(쥐는 사자와 싸우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의미: 비교할 수 없는 동물들로 사람들의 행동을 비교하는 속담이다.

2) 도둑, 수탈자

쥐는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훔칠 뿐 아니라 오염시키며 농작물에도 큰 피해를 주는 존재로 인식되어 있는 동물이다. 이러한 쥐를 소재로 하는 속담은 한-몽 양국의 속담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가) 한국 속담

① 쥐가 도둑질하듯 한다.

Хулгана хулгай хийх шиг.

(Hulgana hulgai hiih shig.)

의미: 쥐가 곡식을 도둑질하듯이, 감쪽같이 모르게 한다는 뜻이다.

나) 몽골 속담

① Огогнын уршиг олондоо.

Ogotnii urshig olondoo.

(쥐는 대중에게 피해를 준다.)

의미: 한 사람의 잘못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뜻이다.

위 결과를 묶어서 쥐의 상징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표 14> 쥐의 상징 의미

	쥐의 상징 의미	한국	몽골
1.	작은 몸집, 약자, 피해자, 미천함	있다	있다
2.	도둑, 수탈자	있다	있다

3.4.7. 개구리

한-몽 동일 의미 동물 소재 속담의 (6), (52)에 나타난다. 독자적인 한국어 동물 속담의 (7)에 나타난다.

3.4.7.1. 개구리의 개성과 의미

개구리는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변해 가는 신비로운 과정 때문에 옛 사람들에게 아주 신비한 동물로 여겨져 왔다. 물과 육지의 두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범상치 않은 동물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개구리가 신성(神性)을 상징하는 금빛 개구리로 상징화 되어 왕권의 후계자를 나타낼 때도 있다.⁴⁰⁾

동화에 나오는 개구리는 못생겼지만 친절하다. 현실에서 개구리는 녀을 잃을 정도로 아름답고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하다. 개구리의 도드라진 빨강색, 충격적인 오렌지색, 선명한 녹색, 자주색, 파랑색은 가시광선 스펙트럼의 전 영역을 아우르며, 눈은 값진 보석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개구리가 살아 있는 약상자라는 것을 연구 하는 중이며, 개구리의 치명적인 독이 암에서 알츠하이머병까지 여러 병에 대한 치료약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중이다. 또한 개구리 속에는 심장흥분제, 뇌졸중 치료제, 박테리아 감염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⁴¹⁾

3.4.7.2. 속담에서 개구리의 상징 의미

1) 예견하는 예언적인 기능

한국 속담에서 개구리가 비를 예견하는 예언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는 속담을 흔히 찾을 수 있다. 반면 몽골인들은 개구리의 예견하는 기능보다 아주 느리고, 게으른 의미를 상징 하는 대표적인 동물로

40) 한정연(2012). 동물 속담을 활용한 한국어문화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41) 스티븐 프라이 앞에 책. p.213

여겨져 왔다. 속담에서도 발전이 없고, 성공 하지 못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한국 속담

① 개구리가 요란스럽게 울면 비가 온다.

Мэлхий их шуугиантай орливол бороо орохын тэмдэг.

(Melhii ih shuugiantai orlivol boroo orohiin temdeg.)

의미: 개구리는 기압 변화에 민감함으로 저기압일 때는 요란스럽게 울어서 비가 올 것을 알려준다는 뜻이다.

② 개구리가 처마 밑으로 들어오면 장마가 진다.

Мэлхий дээвэр доогуур орж ирвэл хур бууна.

(Melhii deever dooguур orj irvel hur buuna.)

의미: 비가 올 때 개구리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장마 질 징조라는 뜻이다.

③ 개구리가 집안으로 기어들면 큰비가 온다.

Мэлхий гэрт орж ирвэл их бороо орно.

(Melhii gert orj irvel ih boroo орно.)

의미: 기류와 습도 등에 민감한 개구리가 은신처를 찾아 집안으로 들어오면 큰비가 온다는 뜻이다.

나) 몽골 속담

① Мэлхий харай вч мөн л дороо.

Melhii haraivch mun l doroo.

(개구리 뛰고 뛰어도 그 자리에.)

의미: 일을 해도 해도 성공 하지 못한 사람을 비유하는 풍자다.

② Мэлхий дэхрээд дэвхрээд намгаас холдохгүй .

Melhii devhreed devhreed namgaas holdohgui.

(개구리는 아무리 점프해도 늪 속에서 나가지 못한다.)

의미: 하는 일은 발전이 없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위 결과를 묶어서 개구리의 상징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표 15> 개구리의 상징 의미

	개구리의 상징 의미	한국	몽골
1.	예견하는 예언적인 기능	있다	없다
2.	느림	없다	있다

3.4.8. 까마귀

한-몽 동일 의미 동물 소재 속담의 (20)에 나타난다. 독자적인 한국어 동물 속담의 (18), (19)에 나타난다.

3.4.8.1. 까마귀의 개성과 의미

까마귀는 몸이 검은 색이고 날개에 녹색 빛이 나는 새이다. 까마귀는 썩은 동물을 즐겨 먹기 때문에 양국에서는 까마귀는 나쁜 일과 불길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색깔과 소리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은 부정적이다. 까마귀의 검은 색은 불길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며, 그 울음소리는 나쁜 일을 상징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추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람들은 까마귀를 싫어하기도 한다. 따라서 까마귀의 칠흑같이 검은 빛깔과 울음소리는 사람의 죽음이나 죽음의 전조를 나타내는 저승사자나 불길함을 떠올리게 하는 흉조의 이미지가 강하다.

3.4.8.2. 속담에서 까마귀의 상징 의미

1) 불길의 상징,

양국에서 까마귀를 불길의 상징 흉조로 본다. 까마귀를 소재로 한 속담에서도 까마귀를 흉조로 한 속담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 한국 속담

① 길 떠날 때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

Хэрээ замд гуаглавал азгүй тэхий н тэмдэг.

(Heree zamd guaglaval azguitehiin temdeg.)

의미: 길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일을 시작하는 것인데, 흉조인 까마귀가
처음부터 운다는 것은 흉조라는 뜻이다.

② 새벽 까마귀가 울면 사람 죽는다.

Хэрээ үүрээр гуаглавал хүн үхэхий н тэмдэг.

(Heree vvreer guaglaval hvn vhehiin temdeg.)

의미: 첫 새벽에 까마귀가 울면 불길한 일이 생길 징조라는 뜻이다.

나) 몽골 속담

① Хар хэрээ гуаглавал

Хаврын хавсрага эхэлдэг.

Har heree guaglaval havriin havsarga eheldeg.

(까마귀가 울면 돌풍이 일다.)

의미: 나쁜 일만 생길 예감을 비유하는 속담이다.

위 결과를 묶어서 까마귀의 상징 의미를 정리하면 다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표 16> 까마귀의 상징 의미

	까마귀의 상징 의미	한국	몽골
1.	불길의 흉조의 상징	있다	있다

3.4.9. 꿩

한-몽 동일 의미 동물 소재 속담의 (23)에 나타난다. 한-몽 동일 의미 다른 소재 속담의 (21), (22)에 나타난다.

3.4.9.1. 꿩의 개성과 의미

꿩은 한국 전역에 서식하고 있는 텃새로, 쏙살같이 날아가서 땅에 바로 내리쫓는 화살과 같은 특성을 지녔다. 암수의 모습이 비슷한 여느 새들과 달리 수컷(장끼)과 암컷(까투리)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다. 수꿩은 화려한 색채의 몸에 긴 꼬리를 하고 있고, 암꿩은 황갈색 빛깔에 흑갈색 반점을 띤 까칠까칠하고 통통한 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암수를 장끼와 까투리로 구분한 이유도 이런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꿩’이라는 이름은 그 울음소리를 본 뜬 말이다. 꿩은 평소에 각기 따로 모여 살다가 짝짓기가 시작되는 3월쯤 수꿩들끼리 결투를 벌여 승자를 가린다. 어느 한 쪽도 도망치는 법이 없으며 죽거나 다칠 때까지 격렬하게 싸우는데, 고구려 사람들은 수꿩의 용맹한 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전쟁에 나설 때 머리에 수꿩의 긴 꼬리를 꽂고 다녔다. 이는 내 나라의 땅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우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물이었다. 결투에서 승리한 수꿩은 또한 무조건 암컷을 탐내지 않고, 일정한 영역을 표시해 두어서 그 안에 있는 암컷을 거느리며 산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조상들은 꿩을 ‘정해진 것 이상을 탐내지 않고, 다른 이의 입장도 생각할 줄 아는 인격을 갖춘 새’라고 여겨 덕조(德鳥)라고 불렀다.⁴²⁾

이런 꿩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냥감로, 옛날부터 '하늘 닭'이라고 여겨진 아주 귀한 동물이다. 꿩고기는 맛이 좋지만 구하기가 아주 어려우므로 일반 가정에서는 꿩 고기를 먹기 어려웠다. 새해 아침 첫 음식에 귀한 꿩고기를 넣어서 먹으면 일 년 내내 행운이 생길 거라 믿는 풍속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꿩이 없을 때는 이와 유사한 닭을 썼는데, 전통 혼례식 초례상에도 원래는 상서로움의 상징인 꿩을 보자기에 써서 올려놓았으나 꿩이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와 유사한 모습인 닭을 놓았다.

3.4.9.2. 속담에서 꿩의 상징 의미

42) 한정연 (2012). 앞에 논문.

한국 속담에서 꿩은 보신, 보약 또는 상서와 행운을 상징하는 다양한 의미를 보여준다. 반면 몽골에서는 외형의 아름다움만을 나타내고 있다.

1) 보신 또는 보약

꿩은 보신 또는 보약의 효과가 있는 진기한 음식으로 여겨왔다.

가) 한국 속담

① 꿩 대신 닭.

Гургуулын оронд тахиа.

(Gurguuliin orond tahia.)

의미: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없으면 그와 비슷한 것과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2) 상서와 행운을 상징

조선 시대 중엽부터 초례상에는 꿩을 놓고 신랑 신부가 교배했으며, 폐백을 드릴 때에도 꿩고기로 포를 해서 놓고 신부의 절을 받았다. 꿩은 상서로운 새이므로, 인생의 중요한 의식에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다.

① 꿩 먹고 알 먹고, 꿩지로 부채 만든다.

Гургууль идээд, өндөг бас идээд, сүүлээр нь дэвүүр хий в.

(Gurguuli ideed, undug bas ideed, svvleer ni devuur hiiv.)

의미: 한 까지 일로 세 가지 소득을 얻듯이, 큰 이득을 보았다는 뜻이다.

3) 아름다움

한국과 달리 몽골은 추운 지역이어서 꿩은 흔히 볼 수 없는 새이다. 그러므로 몽골 속담에서 꿩은 어떤 상징 의미로 나타나는지 찾기가 어렵다. 다만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공작새를 꿩의 화려한 색채의 아름다움에 비유하는 속담을 찾을 수 있다.

가) 몽골 속담

① Гургууль үзэсгэлэнтэй боловч тогосыг гүй цэхгүй .

Gurguuli vzesgelentei bolovch togosiig guitsehgui.

(꿩은 아름답지만 공작새만큼 아름다울 수는 없다)

의미: 아무리 잘 나가도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위 결과를 묶어서 꿩의 상징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표 17> 꿩의 상징 의미

	꿩의 상징 의미	한국	몽골
1.	보신, 보약	있다	없다
2.	상서와 행운	있다	없다
3.	아름다움	없다	있다

3.4.10. 속담 속 동물의 상징 의미와 문화

이상으로 동물의 상징 의미의 분석을 종합하고 한국어 교육용 속담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동물의 상징 의미를 추출하고 아래와 같이 표를 만들 수 있다.

<표-18> 교육용 동물 속담에 등장하는 동물의 상징 의미

소재 동물		한국의 상징 의미	몽골의 상징 의미
1.	개	부지런함 영리함, 충성심과 적대심, 용맹심 비천함과 하찮음 팔자가 좋음에 부러워함, 식용	부지런함 영리함, 충성심과 적대심, 용맹심 비천함과 하찮음
2.	소	근면함, 성실함, 큰 힘	식품

		재산, 큰 이익, 고집스러우며, 어리석음, 미련함, 느린 의미	재산, 큰 이익, 고집스러우며, 어리석음, 미련함, 느린 의미
3.	호랑이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 왕 무서움, 미움이 대상, 인간에게 가까운 동물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 왕 무서움, 미움이 대상
4.	닭	신부를 알리는 울음소리, 하찮음 미물, 알을 낳는 의미	신부를 알리는 울음소리, 하찮음 미물, 알을 낳는 의미
5.	고양이	냉정함, 믿음성 없음, 본성을 숨기는 암전함	냉정함, 믿음성 없음, 본성을 숨기는 암전함
6.	쥐	작은 몸집에 따라서 약자, 피해자, 미천한 동물, 도둑, 수탈자	작은 몸집에 따라서 약자, 피해자, 미천한 동물, 도둑, 수탈자
7.	개구리	예견하는 예언적인 기능	느린 의미
8.	까마귀	불길의 상징	불길의 상징
9.	평	진기함, 상사와 행운의 상징	아름다움

위 결과를 따라서 속담 속에 내포되어있는 두 나라의 문화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 볼 수 있다. 한-몽 두 나라의 동물에 관한 속담은 우선 생태적인 특성이 그대로 동물을 상징하는 속담들이 많이 있다. 속담을 비교한 결과를 따르면 각 민족의 전통문화, 생활습관, 사고방식 등의 차이로 인하여 속담의 표현이나 내용은 같지만, 속담 속에 나타난 동물이나 속담에 쓰이는 어휘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동물을 친밀한 것으로 상상을 하며, 자기 민족이 익숙하고 친밀한 단어를 속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국의 사람들은 같은 사물에 대한 견해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양국의 속담은 각각 고유한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수백 년 전부터 역사와 문화를 교류하여 왔기 때문에 여러 동물에 대해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동물에 관한 상징 의미도 많은 면에서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양국에서 개, 호랑이, 소를 소재로 하는 속담에서 그들과 관련된 상징성도 다양하게 보인다.

개는 지구상의 수많은 동물 중에서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오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개에 관한 속담에서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개는 사람에게 영원한 친구이고, 주인을 지키는 충성심, 낯선 사람에겐 적대심을 보여주며, 부지런하고 영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부정적인 면은 하찮은 점이지만 실제로 개에 관한 속담을 살펴보면 한국 속담에서 개의 팔자가 좋은 의미, 또는 식용으로 사용되어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것을 갖은 속담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몽골 속담에서는 한국보다 나쁜 면을 강조하고 있는 속담이 훨씬 많았다.

소의 경우에는 한국 속담에서 농경민족의 일상생활의 특징, 몽골 속담에 목축업의 일상생활의 특징에 따르기 때문에 소에 관한 양국의 사람들의 인식, 상징 의미도 다양하다. 한국은 농경사회의 특징으로 소를 중시했고, 몽골은 유목 생활로 살아 왔기 때문에 소를 관한 속담이 더 많으며, 특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소를 식품으로 사용해 온 몽골인들의 문화가 그대로 담고 있다.

호랑이를 대상으로 하는 양국의 속담을 살펴보면 야성적이고, 무서움, 두려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로 등장하는 속담들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호랑이를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예의바른 동물로 인식하여 인간보다 더 순수하고, 사람과 가까운 동물로 생각하여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속담들이 있다.

두 나라의 속담에 동정하는 동물을 살펴본 결과 닭, 고양이, 쥐의 상징 의미가 매우 유사한 것을 알게 되었다. 쥐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몸집이 작기 때문에 겁이 많고 약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고양이는 자기보다 약한 쥐에게 항상 피해를 주기 때문에 냉정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 속담에 나타나는 개구리는 보통 비를 예견하는 예언적인 기능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며, 몽골 속담에서 개구리의 느낌을 상징하는 점을 따라서 발전이 없는 게으른 사람을 비유하는 속담들이 찾을 수 있다.

까마귀는 검은색 새이기 때문에 양국에서 똑같이 불길의 상징이고, 시끄러운 울음소리 때문에 죽음이나, 흉조 같은 나쁜 일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있다.

꿩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냥감으로 옛날부터 아주 귀한 동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한국 속담에서는 꿩의 보약 또는 상서와 행운을 상징하는 다양한 귀한 점을 나타난 긍정적인 속담들이 많지만, 몽골 속담에서 꿩에 관련된 속담은 별로 없었다. 이는 몽골인들이 꿩을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속담에서 양국의 사람들의 특유한 생활 방식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바다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속담에서는 고래, 새우, 게 등 해산물들이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몽골 속담에서는 이런 동물들은 표현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은 목축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양과 관련된 속담이 없는데 몽골에서는 다른 동물에 비해 양의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양이 속담 속 주인공이 되는 경우도 많다.

제 4 장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속담 교육 방법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동물 속담의 상징 의미를 바탕으로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동물 속담 교육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몽골인 학습자가 동물 속담을 통해 한국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속담을 한국어 표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게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제2언어 학습자에게 동물 속담 교육할 때 속담의 함축적인 의미, 또는 속담 속에 나타난 동물의 상징 의미, 그 속담을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 기능별 교육은 크게 이해 교육과 표현 교육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해 교육은 읽기와 듣기로, 표현 교육은 말하기와 쓰기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 읽기 과정은 이해교육에 있어서는 외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 목표 언어의 지식을 광범위하게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외국인에게 속담은 낯설고 난해한 부분이라서 읽기를 통한 속담 이해나 속담 속에 내포된 문화 내용에 대한 이해 과정을 거친다면 목표 언어를 더욱 흥미를 갖고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읽기를 통한 언어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목표 언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배우지 않은 어휘가 있어도 앞뒤 문장을 통하여 그 의미를 추측하는 과정도 목표 언어를 공부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속담을 활용하여 한국어 읽기 교육을 하는 것은 속담을 공부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목표 언어로 많은 읽기를 하고, 그에 대한 여러 정보를 얻는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듣기 과정이란 엄격히 말하면 듣는 동안의 활동이나 듣고 바로 응답하는 활동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듣기 행위가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에 기여하도록 하고, 수업이 학습자의 듣기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과정으로서의 듣기가 강조된다.⁴³⁾ 들은 후 단계에서는 말하기, 읽기, 쓰기로 이어지도록 한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과

43) 강현화 와 5명(2009). 『한국어 이해교육론』. p.78

정에서 한국어 속담을 들었을 때, 배웠다고 할지라도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 또한 그 속에 내포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하여도 말의 일부가 빠져서 완전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듣기가 안 된다면 계속하여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렵고 의사소통을 진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말하기 교육은 학습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음성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다. 이 과정에서는 목표 언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한다는 것이 중요하며, 제일 큰 문제는 발음 문제인데, 상대방의 말에 적당하게 반응을 해줘야 하는 데 대부분이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무엇보다 말하기 교육에서 학습자가 용기를 내어 입을 떼게 하는 것이므로 설사 좀 틀리게 발음을 하더라도 크게 지적하지 말고 칭찬을 해주어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글을 쓰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 혹은 느낌을 표현하며, 이러한 표현 과정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쓰기 교육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1)자기 소개하는 글 써 보기- (2)받아쓰기 (3)일기 쓰기- (4)편지 쓰기- (5) 독후감 쓰기- (6) 설명문 쓰기- (7) 논술문 쓰기- (8)논문 쓰기이다. 속담의 경우에는 보통 작문 작성 시에 활용하는데 이는 더 논리적인 방법으로 글을 읽는 상대를 이해하게 하고 설득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쓰기에서 속담 사용이 적절하지 못한다면 앞뒤 문장이 연결성을 잃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말하기를 잘하는 외국인 학습자들도 쓰기 활동을 어려워하고 피하는 경우에서 쓰기 활동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수업 구성은 일반적으로 ‘도입 단계 - 제시 단계 - 연습 단계 - 활용 단계 - 마무리 단계’로 진행한다.

- (1) 도입 단계에서는 속담을 제시할 때에는 일단 문장이나, 그림, 사진 등의 자료를 가지고 학습자로 하여금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학습자들이 추측해 보게 해야 한다. 또 그림이나 사진만 있어도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자료와 어울리는 실제적인 대화와 함께 보여준다. 속담은 맥락이나 상황에

맞게 제시되어야 학습자의 혼란을 막는다.

- (2) 제시 단계에서는 속담의 의미를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 학습자에게 이해를 시킨다. 또는 학습할 어휘, 문법, 표현을 노출하면서 수업 목표를 전달한다. 이 단계에서 속담의 난이도에 따라서 비슷한 의미 속담이나 반대 의미 속담을 제시할 수도 있다.
- (3) 연습 단계에서는 속담의 의미를 설명한 후 학습자의 이해 어느 정도를 확인 하는 단계이다. 말하는 대화 연습이나 질문에 답하는 연습 또는 고급의 경우에 동화, 옛이야기, 드라마, 광고, 신문 기사 등에서 실제로 속담을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를 통해서 학습자가 속담을 확실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늘릴 수 있다.
- (4) 활용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제시한 속담을 실제 대화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도 연습 단계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게 실제적으로 짝과 함께 역할극, 발표 형태로, 고급 단계에서는 인터뷰, 토론 등과 같은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켜야 한다.
- (5) 마무리 단계에서는 수업 내용을 정리해 주며, 과제를 제시하여 수업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지 학습자가 스스로 평가해 보게 하면서 학습한 속담을 학습자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내재화 하도록 해야 한다.

제 1 절 한-몽 동일 의미 동물 소재 속담 교육 방안

여기서 교육 방안을 제시할 속담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다. 본 속담은 한국어 교육용 속담으로서 한국어 범용 교재인 성균관

대학교 교재 『한국어』 6급, ‘TOPIK 8회(2004)’ 5급에 각 1번, 총 2번 수록된 속담이다. 위 결과를 따르면 속담 교육 방안을 고급 단계 학습자 대상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중급 단계로 교육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속담은 동일 의미 동물 소재 속담으로서 대응되는 몽골어 속담이 몽골인들에게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 속담이기 때문이다.

위 속담은 한국어 교육용 동물 속담으로서 사용빈도가 아주 낮은 속담이다. 사용빈도가 높은 속담은 이미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 빈도가 낮은 속담을 선택한 것이다. 사용 빈도가 높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속담뿐만 아니라 내용을 유추해야하며 속담의 단순한 의미를 넘어 함축적인 속담까지도 교육해야 하는 사용 빈도가 낮은 속담들이 실제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경험과 관련된 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다. 중급 수준이 학습자는 지금까지 형성된 한국어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과 속담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하여, 속담의 의미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모국어와 비슷한 속담을 서로 비교해서 학습하도록 속담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는 동일 의미 동물 소재 속담을 선택하도록 해서 중급 단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단 계	중급 (4급)	
속 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학습 목표	1. ‘개’와 관련된 속담을 익힌다. 2. 속담에 나타난 개의 상징 의미를 이해한다. 3. 실제 생활에서 속담을 활용할 수 있다. 4. 목표 속담과 모국어 속담의 비교를 통해서 속담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 료	사진	
시간	60분	
단 계	교 사	학 생
도 입	- 목표 속담에 관련 사진을 제시한다. - 사진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다.	사진을 보고 내용에 대해 의미를 추측

		한다.
제 시	• 속담을 제시하며, 속담의 의미를 설명한다. • ‘개’의 상징 의미와 관한 새로운 어휘를 제시한다. • 비슷한 의미의 몽골 속담을 제시한다. • ‘개’의 상징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 ‘개’와 관련된 다른 속담들을 제시한다.	• 주제를 파악한다. • 질문에 답한다.
연 습	• 속담의 의미, ‘개’의 상징 의미를 설명한 후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확인 한다. • 속담을 연습 한다.	• 연습 한다.
활 용	•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짝과 역할극을 하고 발표한다.	• 질문에 답한다.
마 무 리	• 오늘 배운 속담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숙제를 제시한다.	

4.1.1. 도입 단계

시간	교 사	학 생
10분	• 학습자에게 목표 속담에 관한 사진을 제시한다. • 사진에 나온 상황에 대해서 물어본다. 	• 학습자는 사진을 보고 내용을 읽는다. • 내용에 나온 속담의 의미를 추측한다. • 사진에 나온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한다. • 질문에 답한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 자기는 더 큰 흙이 있으 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흙을 본다는 말이에요. T: 지난 수업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 의 대해 배웠어요. 오늘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개와 관련된 속담을 더 공부하고, 개의 상징 의미를 공부할 거예요. • 한국에서 개는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 왜 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	---	--

4.2.2. 제시 단계

시간	교 사	학 생
	• 속담을 제시한다. 가: 형, 오래만이에요.	• 질문을 한다. • 질문에 답한다.

20분	나: 민우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취직 시험 준비는 잘 되고? 가: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요즘 골치가 아파요. 취직 시험에 세 번이나 떨어져서 그런지 이젠 자신이 없어요. 나: 그 동안 많이 지쳤구나. 너도 알다시피 나도 취직 시험에 떨어졌는데 나는 그게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어. 그러니까 이대로 포기하지 말고 마음 가지고 준비는 잘 해야지. * * * 다: 어, 안녕하세요. 형들 여기 모여 있었네요. 나: 아 그래 안녕.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무슨 문제가 있니? 다: 요즘 취직 문제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취직 시험에 두 번이나 떨어져서 이제는 포기하고 유학이나 갈까 해요. 가: 취직 시험에 그렇게 몇 번 떨어지면 어떻게? 이대로 취직도 못 하면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고, 취직한 친구들이 보면 너도 자신이 초라해지잖아.. 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민우야, 이런 친구에게 오히려 힘을 줘야지. 난 네가 더 안쓰럽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 속담이 의미를 설명한다. • 위 속담은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뻔뻔스럽게 나무란다는 뜻이다. • 새로운 어휘를 제시한다. 따라서 개의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한다. - 흥	
-----	---	--

	- 나무라다 - 부지런하다 - 영리하다 - 충심하다 - 적대시하다 - 비천하다 - 하찮다 - 사냥을 하다 T: 여러분 '개' 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사람을 잘 따라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낯선 사람에게 적대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또는 사냥하는 솜씨를 떠올립니까? 한국 사람들은 '개'에게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미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천하면서, 하찮은 동물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배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속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똥 묻은 개는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에서 개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설명해준다. • 이어서 학습 목표인 한국 속담과 비슷한 몽골 속담들을 소개하여 속담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설명한다. T: 여러분 한국과 몽골은 다른 민족이지만 속담의 의미가 비슷한 몽골 속담들이 있습니다. Өөрийн нхөө толгой дээрх тэмээг үзэхгүй байж Бусдын толгой дээрх тэвнэ үзэх <i>Uriinhuu tolgoi deerh temeeg vzehgui baij</i> <i>Busdiin tolgoi deerh tevne vzeh</i>	
--	--	--

	(내 머리 위에 낙타는 안 보이지만 남의 머리 위에 바늘이 보인다.) Өөрөө өмдгүй бай ж Өвдөг цооронхой г шоолох <i>Uuruu umdgui baij</i> <i>Uvdug tsooronhoig shoolah</i> (자기가 바지가 없으면서 남의 바지의 무릎에 구멍 났음을 비웃기) Өөрийн хожгорыг мэдэхгүй бай ж Хүний халзанг гай хаж элэглэх <i>Uuriin hojgoriig medehgui baij</i> <i>Hvnii halzang gaihaj elegleh</i> (자기가 머리 없으면서 남의 대머리를 보고 비웃기). - 한국어 속담과 몽골어 속담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준다. T: 위 몽골 속담들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속담과 의미는 비슷하지만 한국 속담에서 나타난 ‘개’를 몽골 속담을 보면 자기의 큰 흉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남의 작은 흉을 크게 보는 나쁜 사람으로 비교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한국말로 하찮은 사람이라고 하며, 속담에서 개와 비유한 것입니다. 속담에서 한국과 몽골은 다른 민족이라도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을 비유하는 방식이 같은 것을 보입니다. ‘개’ 상징 의미를 더 설명하기 위해 ‘개’와 관련된 한국어 교육용 다른 속담들을 제시한다. (아래 속담에서 개는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지 질문 받고 답을 해 준다.)	
--	---	--

	1. 개 팔자가 상팔자다. 2. 개 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3.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4.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5. 죽 쑤어 개 준다.	
--	---	--

4.2.3. 연습 단계

시간	교 사	학 생																				
15분	• 속담의 의미를 설명한 후 학습자의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 한다. • 여러 연습 방법으로 연습하게 해 준다. 예1) ‘개’의 가진 의미에 대한 생각 나누기 한국인은 ‘개’의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국 속담에서 알 수 있는 ‘개’의 상징 의미를 어떤지 이야기하도록 연습하게 한다. ※ 다음 중에서 ‘개’의 상징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에 V표 하고 ‘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table> <tr> <th>개의 의미</th> <th>☒</th> </tr> <tr> <td>• 팔자가 좋다.</td> <td>☐</td> </tr> <tr> <td>• 근면하고 성실하다.</td> <td>☐</td> </tr> <tr> <td>• 냉정하다.</td> <td>☐</td> </tr> <tr> <td>• 느리다.</td> <td>☐</td> </tr> <tr> <td>• 믿음성이 없다.</td> <td>☐</td> </tr> <tr> <td>• 본성을 숨기고 암전하다.</td> <td>☐</td> </tr> <tr> <td>• 사냥을 한다.</td> <td>☐</td> </tr> <tr> <td>• 부지런하다.</td> <td>☐</td> </tr> <tr> <td>• 영리하다.</td> <td>☐</td> </tr> </table>	개의 의미	☒	• 팔자가 좋다.	☐	• 근면하고 성실하다.	☐	• 냉정하다.	☐	• 느리다.	☐	• 믿음성이 없다.	☐	• 본성을 숨기고 암전하다.	☐	• 사냥을 한다.	☐	• 부지런하다.	☐	• 영리하다.	☐	• 연 습 한다.
	개의 의미	☒																				
• 팔자가 좋다.	☐																					
• 근면하고 성실하다.	☐																					
• 냉정하다.	☐																					
• 느리다.	☐																					
• 믿음성이 없다.	☐																					
• 본성을 숨기고 암전하다.	☐																					
• 사냥을 한다.	☐																					
• 부지런하다.	☐																					
• 영리하다.	☐																					

	예2) ‘개’에 대해 오늘 배운 속담을 익히고, 속담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연습 하게 한다. ※ 다음에 제시된 ‘개’ 와 관련된 속담의 뜻으로 맞는 것을 연결해 보세요. <table border="1" data-bbox="335 421 1099 1234"> <tr> <td>1. 개 팔자가 상팔자다.</td><td>•</td><td>• 돈을 벌 때는 일을 가리지 않고 천하게 벌더라도, 쓸 때에는 정승같이 현명하게 쓴다.</td></tr> <tr> <td>2. 죽 쑤어 개 준다.</td><td>•</td><td>• 어떠한 일이든 오래 듣고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할 줄 알게 된다.</td></tr> <tr> <td>3. 개 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td><td>•</td><td>• 범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 강아지가 범을 무서워할 리 없듯이, 무식하면 무서운 것을 모른다.</td></tr> <tr> <td>4.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td><td>•</td><td>•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뻔뻔스럽게 나무란다.</td></tr> <tr> <td>5.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td><td>•</td><td>• 애써 일한 것이 남 좋은 일만 하고 아무런 소득도 없게 되었다.</td></tr> <tr> <td>6.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td><td>•</td><td>• 개는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잠자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주인이 다 마련해 줄 뿐 아니라 힘써 일하지도 않고 지낸다.</td></tr> </table>	1. 개 팔자가 상팔자다.	•	• 돈을 벌 때는 일을 가리지 않고 천하게 벌더라도, 쓸 때에는 정승같이 현명하게 쓴다.	2. 죽 쑤어 개 준다.	•	• 어떠한 일이든 오래 듣고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할 줄 알게 된다.	3. 개 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	• 범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 강아지가 범을 무서워할 리 없듯이, 무식하면 무서운 것을 모른다.	4.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뻔뻔스럽게 나무란다.	5.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	• 애써 일한 것이 남 좋은 일만 하고 아무런 소득도 없게 되었다.	6.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	• 개는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잠자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주인이 다 마련해 줄 뿐 아니라 힘써 일하지도 않고 지낸다.	
1. 개 팔자가 상팔자다.	•	• 돈을 벌 때는 일을 가리지 않고 천하게 벌더라도, 쓸 때에는 정승같이 현명하게 쓴다.																		
2. 죽 쑤어 개 준다.	•	• 어떠한 일이든 오래 듣고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할 줄 알게 된다.																		
3. 개 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	• 범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 강아지가 범을 무서워할 리 없듯이, 무식하면 무서운 것을 모른다.																		
4.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뻔뻔스럽게 나무란다.																		
5.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	• 애써 일한 것이 남 좋은 일만 하고 아무런 소득도 없게 되었다.																		
6.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	• 개는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잠자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주인이 다 마련해 줄 뿐 아니라 힘써 일하지도 않고 지낸다.																		

4.3.4. 활용 단계

시간	교 사	학 생
10 분	•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과 비슷한 경험을 있었는지를 이야기시킨다. •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문장 바꿔서 다른 속담들을 말하기 연습하게 가르친다. 예) 언덕에 자빠진 돼지가 평지에 자빠진 돼지를 나무란다/ 매달린 개가 누워 있는 개를 비웃는다/ 뒷간 기둥이 물방앗	• 질문에 답한다.

	간 기둥을 더럽다 한다 • 위 속담들을 통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한다. • 대화를 발표하게 한다. • 몽골에서는 ‘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쓰기 연습을 하고 말하기 연습까지 한다.	
--	--	--

4.3.5. 마무리 단계

시간	교 사	학 생
5분	• 여러분 오늘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는 속담을 배웠어요. 이 속담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았죠? • 그리고 우리가 ‘개’에 대한 속담들도 배웠어요. ‘개’와 관련된 다른 속담을 2개 이상 찾아보고 그 속담에 나타나는 ‘개’는 어떤 상징 의미인지를 말하기 연습을 해 주세요.	

제 2 절 한-몽 동일 의미 다른 소재 속담 교육 방안

여기서 교육 방안을 제시할 속담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라는 속담이다. 본 속담은 한국어 교육용 속담으로서 한국어 범용 교재인 고려대학교 교재 『한국어』 3급, 선문대학교 『한국어』 고급-2 교재에서 각각 1번, 총 2번 수록된 속담이다. 이는 교육용 동물 관련 다른 속담을 비교하면 속담의 사용 빈도가 아주 낮은 속담이다. 속담의 등급화 결과를 묶어서 생각하면 본 속담 교육을 고급 단계 학습자 대상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중급 단계로 교육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속담을 표현하는 어휘와 표현은 중급 수준이 학습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고, 또한 동일 의미 다른 소재 속담이라도 대응되는 몽골어 속담은 몽골인 남녀노소 누구나 다 잘 아는 보편적인 속담이기 때문이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속담은 양국에서 동일 의미 다른 소재 속담으로
서 중급 단계 학습자들은 본 속담 교육을 통해서 양국의 문화의 차이점을 비
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문화가 포함된 읽기 자료를 제시하여 학
습자가 문화적인 배경 지식을 이해하고 동물 속담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한-몽 양국 속담의 비교를 통해서 실제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중급 수준의 학습자는 한국문화를 배우는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어의
속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
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속담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속담을 정확하게 표
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 시켜야 한다고 본다.

한-몽 속담 중에서 동일 의미 다른 소재 속담을 활용해서 수업 교육 방안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중급 (4급)	
속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목표	1. 속담을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 속담에 나타난 동물이 상징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3. 몽골어 속담을 비교해서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자료	사진, 읽기 자료	
시간	60분	
단계	교 사	학 생
도입	• 학습자에게 목표 속담에 관한 그림을 제시한다. • 학습자로 하여금 사진에 대해 추측하도록 하며, 따라서 자신이 생각하는 뜻을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 그림을 보고 의미를 추측한다. • 그림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뜻을 이야기 한다. • 질문에 답한다.
제시	•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속담을 제시한다. • 호랑이는 한국에서 무슨 상징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다. •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몽골 속담을 제시한다.	• 질문 한다. • 질문에 답한다.
연습	• 읽기 자료를 제시한다. • 내용에 대해서 묻는다. • 내용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했는지는 질문한다.	• 읽기 자료를 읽는다. • 읽기 자료를 통해서 상징 의미를 파악한다. • 질문에 답 한다.

	- 주제와 관련하여 한국 속담에 나온 ‘호랑이’ 상징 의미를 설명한다. - 호랑의 상징 의미를 연습한다.	
활동	“호랑이” 대한 속담을 가자고 말하기 연습 하게 한다. - 오늘 배운 속담을 실제 생활에서 있는지 물어본다.	속담을 만들어서 말하기 연습을 한다.
마무리	- 속담의 의미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 숙제를 낸다.	

4.2.1. 도입 단계

시 간	교 사	학 생
5분	- 그림을 제시한다. - 학습자로 하여금 그림에 대해 추측하도록 하며, 따라서 자신이 생각하는 뜻을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T: 오늘 수업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속담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는 한국에서 어떤 상징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공부할 것입니다.	- 학습자는 그림을 보고 의미를 추측한다. - 그림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뜻을 이야기 한다. - 질문에 답한다.

4.2.2. 제시 단계

시 간	교 사	학 생
20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속담을 제시한다. 가: 내가 서당에서 공부할 때는 어려운 한자를 모두 외우며 선생님을 존경하고 아주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공부하는 방식이 너무 흥미 위주로 되는 것 같아요. 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 그만 하세요. 요즘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기 기호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가며 스스로 공부하기를 좋아해요. • 속담에 대한 뜻을 설명해준다. T: 위 속담은 아득한 옛날 옛적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옛날이야기 할 때 '옛날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로 시작할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 표현은 호랑이가 지금은 담배를 안 피우지만 또 필수도 없지만 그 먼 옛날에는 피운 것으로 상상하며, 아주 오랜 옛날이야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 새로운 어휘를 제시한다. - 존경하다 - 흥미위주로 - 기호 - 사납다 - 맹수 - 친근하다 - 효성 - 순수하다 - 진실하다	• 질문을 한다. • 질문에 답한다.

	- 지극하다 T: 여러분 '호랑이' 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사납고 무서운 맹수를 떠올립니까? 한국 사람들은 호랑이에게서 맹수의 이미지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가깝고 친근한 동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배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라는 속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호랑이의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한다. • 학습 목표인 한국 속담과 비슷한 몽골 속담을 소개하여 속담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설명한다. <i>Сүмбэр уулыг дов бай хад</i> <i>Сүн далай г шалбааг бай хад.</i> <i>Svmber uuliig dov baihad</i> <i>Svn dalaig shalbaag baihad.</i> (산이 언덕이었을 때 바다가 웅덩이었을 때.) T: 위 몽골 속담은 아득한 옛날 옛적의 일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몽골에서도 똑같이 옛날이야기이나 동화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산이 언덕이었을 때 바다가 웅덩이었을 때' 라고 시작합니다. • 한국어 속담과 몽골어 속담의 차이점을 이야기 해 준다. T: 이 처럼 한국과 몽골은 서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를 갖은 속담 있지만 그 속담을 표현하는 방법과 속담에 쓰이는 어휘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	---	--

4.2.3. 연습 단계

시	교 사	학 생
---	-----	-----

간		
20분	• ‘호랑이’ 대한 상징 의미를 연습 하게 한다. 예1) 호랑이 상징 의미를 나타나는 읽기 자료를 제시한다. T: 호랑이는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는 맹수지만 옛날이야기에는 인간과 가까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효성 다한 호랑이’ 이야기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진 호랑이의 한 예입니다. 효성 다한 호랑이 옛날 옛적에 피 많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나무꾼은 다라가 후들후들 떨었지만 좋은 피를 생각해 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 앞에 엎드려서 형님 오래 간만이라고 인사를 하고 울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의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오래 산에 나무를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 다. 어머니께서 꿈을 꾸셨는데 형님이 호랑이로 변해서 사람이었을 때의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나무꾼이 슬피 울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호랑이는 그 이야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호랑이는 슬피 울면서, 자기는 모습이 너무 흉측해서 어머니를 만나러 갈 수가 없으니 자기 대신에 어머니께 효도를 잘 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후, 호랑이는 나무꾼의 집에 멧돼지, 사슴, 토끼 등의 동물을 잡아다 놓았고, 나무꾼과 어머니는 그 것으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날 밤에 집 밖에서 호랑이가 구슬프게 우는 소리를 나무꾼은 들었습니다. 그 후 호랑이는 나무꾼의 집에도 오지 않고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호랑이 소식이 궁금하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무덤에 갔다가 무덤 앞에 쓰러져 있는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자기가 불효한 탓이라고	• 읽기 자료를 읽는다. • 읽기 자료를 통해서 상징 의미를 파악한다. • 질문에 답한다.

	생각하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나무꾼은 호랑이의 효성에 감동을 받고, 어머니의 무덤 옆에 호랑이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T: 이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인간보다 더 순수하고 진실하며 지극한 효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호랑이는 무서운 맹수인 동시에 사람과 가까운 친근한 동물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2) ‘호랑이’의 대해 상징 의미를 익힌다. ※ 다음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안에 넣으세요. 보기: 순수하다 맹수 친근하다 효성 사납다 진실하다 a) 한국에서 ()을 다한 호랑이라는 옛날이야기가 있다. b) 호랑이라고 하면 ()고 무서운 ()라는 의미가 떠오른다. c) “호랑의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속담에서 호랑의 인간에게 가깝고 ()의미를 볼수 있다. d) 한국인들은 호랑이를 인간보다 더 (,) 동물이라고 생각을 한다. 예3) 한국인은 ‘호랑이’의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하는지, 한국 속담에서 알 수 있는 ‘호랑이’의 상징 의미가 어떤 지 이야기하도록 연습한다.	
--	---	--

4.2.4. 활용 단계

시 간	교 사	학 생
10분	• 몽골에서는 ‘호랑이’ 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짝과 말하기 연습 한다. • 한국인이 생각하는 ‘호랑이’와 몽골인이 생각하는 ‘호랑이’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연습 하게 해준다.	• 속담을 만들 어서 말하기 연습을 한 다.

4.2.5. 마무리 단계

시 간	교 사	학 생
5분	• 여러분 오늘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라는 속담을 배웠어요. 이 속담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았죠? • 그리고 우리가 오늘 호랑이의 상징 의미를 대해 배웠어요. 한국 속담 중에서 호랑이 상징 의미를 나타난 속담을 2개 이상 찾아와서 말하기 대화를 하게 연습 해주세요.	

제 5 장 결론

본 논문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몽골인 학습자들에게 한-몽 교육용 속담을 통해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어 교육용 속담 중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물 속담으로 한-몽 대조 연구를 하였다. 실제로 동물들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면서 인간에게 많은 노동력을 절감해 주고, 교통수단을 제공해 주었으며, 먹을거리와 생활용구, 가죽 등 인간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인간의 생활이 윤택해지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 처럼 동물들은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생활에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주었고, 또한 속담의 소재로 교육용 속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동물 속담을 통해 한-몽 양국의 국민들의 생활습관, 역사와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연구를 하는 동안 한-몽 동물 속담을 통해서 두 나라의 다양한 사고방식과 삶, 문화와 생활 풍속, 그리고 사회 가치관 등을 이해하고 엿볼 수 있었다. 속담의 비교를 통해서 양국의 언어, 문화적인 차이를 밝히고, 학습자의 목적 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을 밝히는 것을 시도하였다.

한-몽 속담 대조를 통하여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진행할 때,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더 넓고 더 많은 지식을 얻어서 의사소통과정에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제1장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같은 동북아시아의 나라로서의 한-중, 한-일 학습자를 위한 동물 속담 교육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 왔지만 한-몽 학습자를 위한 동물 속담 교육 연구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제2장에서는 속담의 정의와 특징을 알아보았다. 한국 속담에 대한 정의는 사전과 학자마다 다양하고 아직까지 속담에 대한 분명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고의 속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속담은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속담에서 어느 민족의 시대성을 반영된다. 또한 속담은 민족성이 나타나며, 풍자적이고 교훈적 의미를 지닌다. 속담은 음절, 대구 등의 외형 구조상 조화를 지니고, 속담에 쓰이는 어휘는 비속어가 많으며 속담 중에는 중의적인 속담이 많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어 교육용 속담을 분석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각 교재마다 다양한 속담을 제시하고 있고, 많은 속담 중 어느 것을 한국어 교육용 속담으로 선정해야 할지에 대해 연구도 많이 있다. 실제로 한국어 교육에서도 속담에 대해 많은 교재 및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가르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자들의 교육용 속담 선정 한 딱 한 가지 기준은 속담의 사용 빈도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까지의 연구들에서 선정된 한국어 교육용 속담은 각각 다르며 등급화 결과도 달랐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한국어 교재 10종 및 한국어 속담 책 3종, TOPIK(1회-27회)에 수록된 교육용 속담을 살펴보고 이 모든 자료에 수록된 속담을 한국어 교육용 속담으로 정리하였다. 교육용 속담 중 속담 속에 동물이 등장 하는 속담을 한국어 교육용 동물 소재 속담으로 뽑았다.

분석 대상별 한국어 교육용 속담과 교육용 동물 속담을 정리하면 총 13개 교재로 교육용 속담에 대한 동물용 속담 비율은 20%가 넘으며, TOPIK에서도 총 9회에 수록된 동물용 속담 비율이 20%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교육용 속담 중에서 동물 속담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속담 사전,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속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급단계에서는 속담이 제시되지 않았고, 중급 단계에서부터 속담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대상이 되는 한국어 교재 13종에 수록된 교육용 동물 속담 수는 총 61개, TOPIK(1회-27회)에 수록된 교육용 동물 속담 수는 총 33개인데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교육용 동물 관련 속담 수는 총 64개이다.

제3장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동물 속담을 다음 3가지 단계로 등급화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한-몽 동일 의미 동물 소재 속담 둘째, 한-몽 동일 의미 다른 소재 속담 셋째, 독자적인 한국어 속담이다. 동물 소재로 한 속담에는 한

국의 경우에는 개, 소, 호랑이가 많이 제시되어있으며 몽골의 경우에는 소, 토끼, 쥐가 대부분 제시되어 있다. 한-몽 양국의 동물 관련 속담에서 같은 동물 소재로 표현되며 속담의 내용도 비슷한 속담이 많지만, 그 속담을 자기 민족만의 익숙한 단어로 대체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동물 속담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몽골에서 전혀 다른 소재로 표현되는 속담들도 있으며,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민족만의 특징을 가진 한국어에만 있는 속담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 속담에 나타난 대표적인 동물을 통해서 동물의 상징 의미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로 속담 속에 내포되어있는 두 나라의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 볼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방법을 한-몽 동일 의미 동물 소재 속담, 한-몽 동일 의미 다른 소재 속담으로 또는 교육 단계로서 중급(4급) 단계로 살펴보았다. 속담 교육을 할 때 속담 속에 나타난 동물의 상징 의미, 그 속담을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속담의 상징 의미를 가지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가 속담 교육을 받을 때 그 속담은 모국어의 어떤 속담과 대응되어 있는 것을 알면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속담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몽골어의 같은 의미를 가진 속담을 이용해서 교육 방안을 더 의미 있게 재미있게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용 속담 가운데 동물 관련 속담만을 대상으로 한-몽 속담을 대조 연구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재의 속담을 연구하고, 소재뿐 아니라 다양한 제재의 교육용 속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단행본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어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금선란. (1993). 『사랑스런 개와 고양이를 위하여』. 한국동물보호협회.
- 김선풍 외. (1995). 『열두띠 이야기』. 집문당.
- 김종대. (1997). 『12띠의 민속과 상징』. 국학자료원.
- 김진용. (2012). 『유행어보다 재미있는 우리 100대 속담』. 삼성출판사.
- 강현화 와 5명(2009). 『한국어 이해교육론』. 형설출판사.
- 박완서. (2003) 『소설어사전』. 백산출판사.
- 송재선. (1997). 『동물 속담 사전』. 동문선.
- 신기철·신용철. (1985).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 심재기. (1986). 한국어 관용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관악어문연구>11. 서울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오주영. (2012).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속담』. 은하수 미디어.
- 이기문 (1982). 『속담 사전』, 일 조각.
- 이승녕 외 4인. (1984). 『대국어사전』. 삼영출판사.
- 이희승. (2002).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 임동권 외 5인. (1997). 『비교민속론』. 민속원.
- 천진기. (2003) 『한국동물민속론』. 민속원.
- 최창렬. (2002). 『우리속담연구』. 일지사.
- 한글학회. (1997). 『우리 말 큰 사전』. 어문각.
- 홍준의 외 4인 (2011.6.20). 『살아있는 과학 교과서』. 휴머니스트

2. 국내 논문

- Ko Tae-min. (2009). 속담을 통한 국어 교육. 천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Shao Juan. (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속담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 강소영. (2011).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속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 석사학위논문.
- 고영원. (2007).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속담교육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세영. (2008).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속담 지도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영. (2008).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속담 교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화. (2011). 한-중 12지신 동물 속담 비교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애. (2009). 한국과 중국의 동물 속담 비교: 12지신 동물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 (2003). 속담으로 본 중국인의 사유방식: 12띠 동물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웅. (1992). 한국 동물 속담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까늬완 판짜된. (2012). 한·태 속담 비교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중급 태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학과 석사학위논문.
- 냉리나. (2009). 개와 고양이 소재의 한중 속담 대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원영. (2007). 한-루마니아 속담의 내용상 비교 연구(동물 소재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병천. (2009). 한-중 호랑이에 관한 속담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류설비. (2008). 한-중 ‘소’에 관한 속담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용현. (2000). 한국 동물 속담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바양산 톨. (2003). 한-몽 신체 관련 속담 비교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해숙. (2009). 속담의 문화적 배경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주. (2011).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일 속담 비교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밤바체렐 받돌가. (2013). 한국과 몽골의 속담 비교 연구 ‘말馬’ 관련 속담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별로마. (2009). 한국어의 동물 속담 속에 나타난 상징의미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주호. (1994). ‘몽골, 한국 속담의 의미, 형태, 우아함의 비교’ (몽골에서 출판, 학위 논문)

소연. (2003). 한-중 속담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주연. (2009). 영어속담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우연미. (2008). 성어 속 띠 동물의 상징 의미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근원. (1998). 동물을 소재로 한 한국 속담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교.

이극. (2008). 한국과 중국의 동물에 관한 속담의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임. (2004). 한국과 영-미 문화권의 동물속담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성옥. (2011). 한국어 교육용 속담 선정 및 등급화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재환. (2009). 일-한 동물 속담에 관한 비교 고찰 '말'과 '개'에 관한 속담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춘매. (2005). 한-중 동물속담 비교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홍화. (2010).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중 속담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달영. (2007). 한국어와 중국어의 '말'에 관한 속담 비교 연구. <한민족문화 연구> 제20집.
- 정예희. (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용 한국문화상징 어휘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지. (2004). 한-일 동물 관련 속담의 비교 연구: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한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수정. (2010). 속담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튀잉. (2011). 한-중 양국의 속담의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정연. (2012). 동물 속담을 활용한 한국어문화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호심. (2012).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동물 비유 표현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국외 문헌

- Б.Банзрагч(2009). 『Зүйр цэцэн үгий н түүвэр』 Улаанбаатар.
- Д.Алтангэрэл, Ж.Дашдорж(1998). 『Орчин цагий н Монгол- Анг

ли толь』 Улаанбаатар.

Д.Будрагчаа(2007). 『Монгол ардын зүй р цэцэн үг』 УБ.

Ж.Ренчинсамбуу, Н.Ням-Осор(2008). 『Монгол Ардын зүй р цэцэн үг』 Улаанбаатар.

Ж.Эрдэнэчимэг, Ж.Баттөр(2006). 『한몽사전』 . Улаанбаатар.

Н.Ням-Осор, Б.Өлзий сүрэн(2011) 『Монгол хэлний зүй р цэцэн үгий н тай лбар толь』 . Улаанбаатар.

Улаанбаатар Дээд Сургууль(1999). 『몽골어-한국어 사전』

Улаанбаатар.

Ё.Далай жамц(2006). 『Зүйр цэцэн үг』 1. 2. Улаанбаатар.

몽골국립대학교(2010). 『한-몽 사전』 . Улаанбаатар.

스티븐 프라이(2007). 『동물 상식을 뒤집는 책. Eric Yang Agency.

자미안 바트트르(2011). 『20세기 한국 몽골 관계사』 . KM 미디어.

4. 참고 자료

건국대학교 교재(2005-2010) 『한국어 1-6』 건국대학교 출판부.

경희대학교 교재(2000-2003) 『한국어 1-6』 경희대학교 출판부.

고려대학교 교재(1989-2003) 『한국어 1-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서강대학교 교재(2006-2008) 『서강 한국어 1-5』 서강대학교 국제문화 교 육원 출판부.

선문대학교 교재(2001) 『한국어 1-6』 생각하는 백성.

성균관대학교 교재(2006) 『배우기 쉬운 한국어 1-6』 개정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신리대학교 교재(2006) 『유학생을 위한 톡톡 튀는 한국어 1-6』 박이정.

이화여자대학교 교재(2008-2010) 『말이 트이는 한국어 1-5』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서울대학교 교재(2005) 『한국어 1-5』 문진 미디어 출판부.
연세대학교 교재(2007-2009) 『연세 한국어1-6』 연세대학교 출판부.
김선정 외(2007) 『살아있는 한국어』 랭기지 플러스.
최권진(2006, 2007)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1, 2』 한국문화사.
김정화 외(2002) 『속담 100 관용어 100』 국제교육진흥원.
한국어능력시험(1997-2012)(1회-27회)

부 록 1

한국어 범용 교재, 속담 책,
한국어 능력 시험에 수록된
교육용 속담 목록

1. 건국대학교 교제 “한국어”에 수록된 속담 목록 (52)

권	과	속담	개수
1			
2			
3	4	오는 집에 복이 온다.	14
	27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꿀 먹은 병어리. 누워서 떡 먹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병 주고 약 준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시작이 반.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우물 안 개구리.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늘의 별 따기.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4	1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개미가 이사하면 비가 온다.	
	9	그림의 떡.	
	14	쌀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듣는다.	
	19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5	5	비는 물 보다 진하다.	
	7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8	쇠귀에 경 읽기.	
	9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뻘다.	
	11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14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15	울며 겨자 먹기.	
	16	티끌 모아 태산.	
	18	누어 좋고 매부 좋고.	
	19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21	백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23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6	1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21
	3	등잔 밑이 어둡다.	
	4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5	갈수록 태산이다.	
	6	눈에는 눈, 이에는 이.	
	7	고양이 쥐 생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8	고인 물은 썩는다. 돌고 도는 게 돈이다.	
	9	떼어 놓은 당상.	
	10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다.	
	11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12	제 께에 제가 넘어가다.	
	13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14	끓어 부스럼.	
	15	마른하늘에 날벼락.	
	16	쇠뿔도 단김에 빼라.	
	17	가재는 게 편이다.	
	18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20	죽 쑤어 개 준다.	
	24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계			52

2. 경희대학교 교재 "한국어"에 수록된 속담 목록. (67)

권	과	속담	개수
초급1			0
초급2			0
중급1	4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싼 게 비지떡.	15
	6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거미가 줄을 치면 날씨가 좋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7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침 뱉기.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은 죽 먹기. 언 발에 오줌 누기. 하늘의 별 따기.	
	8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중급2	1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2	곳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그림이 떡. 금강산도 식후경.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4	가는 날이 장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6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20
	8	긴 병에 효자 없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고급1	2	고운 사람 미운 데 없고 미운 사랑 고운 데 없다. 구관이 명관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꿩 먹고 알 먹기. 누어 좋고 매부 좋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13
	3	꿀 먹은 병아리.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6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7	가루눈이 오면 춥고, 함박눈이 오면 포근하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8	곳간에서 인심 난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다.	
고급2	1	무소식이 희소식.	
	2	옆친 데 덮친 격.	
	3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른다.	
	5	뿌린 대로 거둔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짚신도 짝이 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19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7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8	고기는 씹어야 맛있요, 말은 해야 맞이라.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시작이 반.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우는 아이 젖 준다.	
계			67

3. 고려대학교 교재 “한국어”에 수록된 속담 목록 (47)

권	과	속담	개수
1			0
2	17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누워서 떡 먹기.	1
3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등잔 밑이 어둡다. 땅 짚고 헤엄치기.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식은 죽 먹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킨다. 하늘의 별 따기.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14
	12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16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	
		쇠귀에 경 읽기.	
	18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4	6	뿔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금강산도 식후경.	13
	9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옷이 날개.	

		이웃사촌.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쥐구멍에도 별 들 날 있다. 집신도 짝이 있다.	
	16	공든 탑이 무너지랴.	
	18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5	7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개천에서 용 난다. 꿩 대신 닭.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른다.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미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19
		개 밤에 도토리. 그림의 떡. 빛 좋은 개살구. 새 발의 피. 수박 겉 핥기. 싼 게 비지떡. 우물 안 개구리. 제 눈에 안경.	
	18	고생 끝에 낙이 온다.	
	6		
계			47

4. 서강대학교 교재 "서강 한국어" 에 수록된 속담 목록. (29)

권	과	속담	개수
1A			0
1B			0
2A			0
2B			0
3A			0
3B	2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다.	2
	8	시작이 반이다.	
4A	4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2
	6	하늘의 별 따기.	

4B	6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림의 떡. 그 아버지에 그 아들. 금강산도 식후경. 길고 짧은 것은 대어 보아야 안다. 남의 손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모르는 게 약이요, 아는 게 병이다. 무소식이 희소식. 말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산 넘어 산. 세월이 약이다. 소 닭 보듯. 열 번 짝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16
5A	4	가는 날이 장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병 주고 약 준다. 식은 죽 먹기. 싼 게 비지떡. 제 눈에 안경.	6
5B	1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3
	2	독 안에 든 쥐.	
	5	쇠귀에 경 읽기.	
계			29

5. 선문대학교 교재 "한국어" 에 수록된 속담 목록. (74)

권	과	속담	개수
초급1			0
초급2			0
중급1	1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	20
	2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3	그림의 떡.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4	지성이면 감천.	

		피는 물보다 진하다.	
	5	우물 안 개구리. 티끌 모아 태산.	
	6	시작이 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7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8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9	병 주고 약 준다. 한번 얻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10	식은 죽 먹기.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중급2	1	시장이 반찬. 우물에 가 송냥 찾는다.	20
	2	구관이 명관. 울며 겨자 먹기.	
	3	길이 아니거든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거든 듣지를 말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4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사람 위에 사람 업고 사람 아래 사람 있다.	
	5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6	모르는 게 약이요, 아는 게 병이다. 하늘의 별 따기.	
	7	업은 아이 삼 년 찾는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8	토끼 둘을 잡으려다 하나도 못 잡는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9	도토리 키 재기.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10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호랑이에게 물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고급1	1	콩든 탑이 무너지랴. 빈 수레가 요란하다.	18
	2	바늘 간 데 실 간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3	위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4	가다 말면 안 가느니만 못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5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엄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	
	6	효자 집에 효자 온다. 혹 떼라 갔다 혹 붙여 온다.	
	7	쥐구멍에도 별 들 날 있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8	단 말은 병이 되고 쓴 말은 약이 된다. 사람은 죽으며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9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고급2	1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16
	2	큰 고기는 깊은 물속에 있다.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3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4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	
	5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급히 먹는 밥에 목이 멘다.	
	6	산전수전 다 겪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7	앞길이 구만 리 같다. 옥에도 티가 있다.	
	8	웃는 낫에 침 뱉으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계			74

6. 성균관대학교 교재 “배우기 쉬운 한국어”에 수록된 속담 목록. (70)

권	과	속담	개수
1			0
2			0
3	12	가는 날이 장날. 꿩 먹고 알 먹는다. 등잔 밑이 어둡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13

		번갯불에 콩 볶아 먹겠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소 닭 보듯.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열 번 짚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4	6	걱정도 팔자.	7
	7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8	남의 말 하기는 식은 죽 먹기.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사돈네 남의 말 한다.	
5	1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25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시작이 반.	
	3	일찍 핀 꽃은 일찍 진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랴. 티끌 모아 태산.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5	웃는 얼굴에 복이 온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7	우물에 가 송냥 찾는다. 한 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	
	8	호랑이에게 물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10	하늘의 별 따기.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11	세 치 혀가 다섯 자 몸을 망친다. 제 코가 시작.	
	12	늦게 배운 도적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15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6	15	가재는 게 편.	25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누워서 침 뱉기. 눈에 보배. 달걀로 바위 치기.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망귀 편 놈이 성낸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중매는 잘되면 술이 석 잔이요, 못되면 뺨이 세 대다. 쥐구멍에도 별 들 날 있다. 초록은 동색.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계		70

7. 신리대학교 교재 “유학생을 위한 톡톡 튀는 한국어” 에 수록된 속담 목록.
(40)

권	과	속담	개수
1			0
2			0
3	1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11
	7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9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배가 남산만 하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쥐구멍에도 별 들 날 있다.	
4	1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26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	
	2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산다.	
	3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밭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쌀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4	까마귀가 검은도 살은 회다. 깎은 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나이 이길 장사 없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7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세월이 약.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죽은 자식 나이 세기.	
	8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 꿩 먹고 알 먹는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아니 뎌 꿀뜩에 연기 날까. 우물에 가 송냥 찾는다. 제 눈에 물대기.	
5	1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1
6	4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2
	7	빛 좋은 개살구.	
계			40

8. 이화여자대학교 교재 “말이 트이는 한국어” 에 수록된 속담 목록. (41)

권	과	속담	개수
1			0
2	14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1
3	1	제 눈에 안경	29
	4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	
	7	가는 떡이 커야 오는 떡이 크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귀신 듣는데 떡 소리 한다. 그림의 떡. 남의 떡으로 제사 지낸다. 누워서 저절로 입에 들어오는 떡은 없다.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말 속에 뼈가 있다.	
	10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웃는 낯에 침 뱉으랴.	
		손에 장을 지지다.	
	11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하늘의 별 따기.	
	14	혹 떼려 갔다 혹 붙여 온다.	
	15	금강산도 식후경. 낙동강 오리알. 배가 남산만 하다.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지다. 지리산 포수. 한라산이 금덩어리라도 쓸 놈 없으면 못 쓴다. 형 만한 아우 없다.	
		1	
		2	
		3	
4	6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팽 구워먹은 소식. 척 하면 삼천 리. 해가 서쪽에서 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밭등에 불이 떨어지다.	10

		세월이 약.	
	9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 번이다. 옷이 날개.	
	10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	
5	1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1
계			41

9. 서울대학교 교재 “한국어”에 수록된 속담 목록 (38)

권	과	속담	개수
1			0
2			0
3	26	우물 안 개구리.	5
	28	그림의 떡 수박 겉핥기. 누워서 떡 먹기. 갈수록 태산이다.	
4	14	등잔 밑이 어둡다. 일각이 여삼추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4
5	4	말이 씨기 된다.	14
	12	가뭇에 콩 나듯 하다.	
	22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27	산 넘어 산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모르는 게 약이다.	
	31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우물 안 개구리.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김칫국부터 마신다. 누워서 떡 먹기. 싼 게 비지떡이다. 하늘에 별 따기.	
6	4	울며 겨자먹기. 부부싸움은 칼로 물 배기다. 다 된 밤에 재 뿌리다. 미주알 고주알. 승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뜬다.	15

		식은 죽 먹기. 쇠 귀에 경 읽기. 얹던 이가 빠지다. 발 등에 불 떨어지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눈 뜬 장님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꿀 먹은 멍어리.	
	10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계			38

10. 연세대학교 교재에 수록된 속담 목록 (78)

권	과	속담	개수
1			0
2			0
3	21	백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6
	25	금강산도 식후경.	
	26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28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	
	29	하늘의 별 따기.	
	30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4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22
	31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이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	
	32	고생 끝에 낙이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소 잃은 후에 외양간 고친다.	
		누워서 떡 먹기.	
	34	낫 놓고 ‘ㄱ’자도 모른다.	
		등잔 밑이 어둡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35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눈 코 뜯 새 없이 바쁘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첫술에 배 부르랴.	
	36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	

		아 다르고 이 다르다. 형 만 한 아우 없다.	
	37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5	42	누워서 떡 먹기. 하늘의 별따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25
	43	콩으로 메주를 쑈다. 우물 안 개구리. 금강산도 식후경. 티끌모아 태산이다.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이다. 쥐구멍에도 별 들 날이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45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바늘과 실은 붙어 다닌다.	
	46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47	무재주가 상팔자. 싼 게 비지떡.	
	48	짚신도 짝이 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49	꿀 먹은 병어리.	
	50	홍정은 불이고 싸움은 말려라. 형만한 아우 없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51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52	꼬리가 길면 밟히기 마련이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 혼인치레 말고 팔자치레 하랬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	
6	53	바늘 허리에 실감아 쓰랴.	25
	54	쥐도 막다른 곳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송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철나자 망령든다. 열 사람이 지켜도 도둑 하나를 못 막는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우물 안 개구리.	
	55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하늘의 별따기.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여워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소귀에 경 읽기.	
	56	술과 친구는 오래 될수록 좋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57	부자는 망해도 삼년 간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60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계			78

11. "살아있는 한국어" 에 수록된 속담 목록 (60개)

		속담	개수
	학 습 용 속 담	가는 날의 정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갈수록 태산.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걱정도 팔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금강산 도 식후경. 꿀 먹은 병어리. 꿩 대신 닭 꿩 먹고 알 먹고.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 도토리 키 재기. 둘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등잔 밑이 어둡다.	60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말이 씨가 된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 병 주고 약 준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불 난 집에 부채질 한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새 발의 피.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쇠귀에 경 읽기. 수박 겉 핥기. 시작이 반이다. 식은 죽 먹기. 싼 게 비지떡. 아니 뎡 굴뚝에 연기 날까?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웃이 날게다. 우물 안 개구리.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울며 겨자 먹기. 우는 닢에 침 뱉으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작은 고추가 더 맵다.	
--	---	--

	잘되면 제 탓 못되면 조상 탓이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티끌 모아 태산.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늘의 별 따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	--	--

12.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에 수록된 동물 속담 목록 (103개)

	속담	개수
1권	가는 날의 장닐(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뭄에 콩 나듯.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갈수록 태산(이다). 강 건너 불구경. 금강산도 식후경. 꿩 대신 닭.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남의 잔치에 감 나라 배 나라 한다.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누워서 침 뱉기. 다 된 밤에 재 뿌리기. 단 맛 쓴맛 다 보았다. 달걀로 바위치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뛰어야 부처님 손바닥이다. 마파람에 게논 감추듯.	53

	목구멍이 포도청.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붓짐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사공이 많으면 재가 산으로 간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소 귀에 경 읽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신선 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른다. 아니 뎌 굴뚝에 연기 날까? 약방에 감초. 엎드려 절 받기.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물 안 개구리.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한다. 중이 제 머리 깎는다. 지선이면 감천이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콩으로 메주를 쑈다. 티끌 모아 태산.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그 말이다. 하늘의 별 따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개천에서 용 난다. 개 팔자가 상팔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2권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개천에서 용 난다. 개 팔자가 상팔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50

	공든 탑이 무너지랴. 곳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꿈보다 해몽이 낫다. 냉수 먹고 이 쏘신다. 달도 차면 기운다.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민다.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동냥은 안 주고 쪽박만 갚다. 등잔 밑이 어둡다. 따 놓은 당상이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다.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 뱀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십 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이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잣밥에만 마음이 있다. 우물에 가서 송늪 찾는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원님 덕에 나발 분다.	
--	---	--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주머니 떨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중이 절 보기 싫으면 떠나야 한다.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 짚신도 짚이 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하던 짓도 명석 깔아 놓으면 안 한다. 흑 때려 갔다 흑 붙여 온다.	
계		103

13. 속담 100 관용어 100 에 수록된 동물 속담 목록 (100개)

속담	개수
가는 날이 장날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재는 게 편이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갈 수록 태산이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개천에서 용 난다. 걱정도 팔자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고양이 앞에 쥐. 공든 탑이 무너지랴. 구관이 명관이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뻘다. 귀한 자식 매로 기워라. 그림의 떡. 금강산도 식후경.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아야 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	100

	꿈보다 해몽이 좋다. 평 대신 닭.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침 뱉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도로 아미타불. 도토리 키 채기. 독 안에 든 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등잔 밑이 어둡다. 땅 짚고 헤엄치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낯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모르는 게 약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물에 빠지면 저푸리기라도 잡는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밭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	--	--

	산에 가야 뱀을 잡지. 새 발의 피.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서울에 가서 김 서방 찾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소 귀에 경 읽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 쇠뿔도 담김에 빠라. 수박 겉 핥기. 시작이 반이다. 싼 게 비지떡.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 바늘 허리에 매어 쓰랴? 얹던 이 빠진 것 같다. 엷은 아이 삼 년 찾는다. 옆드리면 코 닿을 데. 옆질러진 물.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옥에 티가 있다. 옷이 날개다. 우는 아이 젖 준다. 우물 안 개구리. 우물을 파도 한 우물 파라. 울며 겨자 먹기. 웃는 낫에 침 뱉으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정들자 이별.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지렁이도 뱉으면 꿈틀한다.	
--	--	--

	지성이면 감천이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티끌 모아 태산.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늘의 별 따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계		100

14. 한국어능력시험에 수록된 한국어 속담 목록.

회	급	속담	개수	
1회 (1997)	1급			19
	2급			
	3급	그림의 떡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른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4	
	4급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누워서 떡 먹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소귀에 경 읽기. 쥐구멍에도 별 들 날 있다.	5	
	5급	빛 좋은 개살구.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해가 서쪽에서 뜨다.	4	
	6급	간에 기별도 안 가다. 강 건너 불구경.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마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말등에 불 떨어지다.	6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		
2회 (1998)	1급			21
	2급			
	3급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웃는 낫에 침 뱉으랴. 종로에 가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다.	4	
	4급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4	
	5급	제 코가 석 자. 병 주고 약 준다.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좋은 약은 입에 쓰다.	4	
	6급	낫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9	
3회 (1999)	1급			20
	2급			
	3급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등잔 밑이 어둡다.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4	
	4급	가물에 콩 나듯. 길고 짧은 것은 대박야 안다.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	3	
	5급	꿀 먹은 벙어리. 모르는 게 약이다.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시작이 반이다.	11	

		짠 게 비지떡.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나랴. 우물 안 개구리. 울며 겨자 먹기. 이웃사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6급	끓어 부스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2	
4회 (2000)	1급			11
	2급			
	3급			
	4급	옥에도 티가 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3	
	5급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3	
	6급	눈 가리고 아웅.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5	
5 회 (2001)	1급			25
	2급			
	3급			
	4급	갈수록 태산. 고인 물이 썩는다. 누워서 떡 먹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 눈에서 멀어지면 심장에서도 멀어진다. 등잔 밑이 어둡다. 작은 고추가 맵다.	7	
	5급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말이 씨가 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세월이 약. 쇠귀에 경 읽기. 우물에서 승냥 찾는다.	9	

		음식 맛은 손 맛.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진다. 척하면 삼천리.		
	6급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바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라. 급할수록 돌아가라.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까. 질러가는 길이 먼 길이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하늘의 별 따기.	9	
6회 (2002)	1급			17
	2급			
	3급			
	4급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누워서 떡 먹기.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쇠귀에 경 읽기. 수박 겉 핥기.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웃삼촌. 하늘의 별 따기.	10	
	5급			
	6급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길 다르고 속 다르다. 도토리 키 채기.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산에 가야 벌을 잡는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7	
7회 (2003)	1급			8
	2급			
	3급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1	
	4급	급할수록 돌아가라.	1	
	5급	외갓집 들어가듯.	1	

	6급	도둑이 제 발 저린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산 입에 거미줄 치랴. 싼 게 비지떡.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5	
8회 (2004)	1급			25
	2급			
	3급			
	4급	갈수록 태산. 그림의 떡 누워서 떡먹기. 뚝배기보다 장맛.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세월이 약. 식은 죽 먹기. 하늘의 별 따기.	8	
	5급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같은 값으면 다홍치마. 겉 다르고 속 다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제 눈에 안경.	10	
	6급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세 치의 혀바닥이 다섯 자 몸을 좌우한다. 울며 겨자 먹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있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7	
9회 (2005)	1급			13
	2급			
	3급			
	4급	무소식이 희소식. 누워서 떡 먹기.	5	

		산 넘어 산. 소귀에 경 읽기. 세월이 약.		
	5급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4	
	6급	뱀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4	
10회 (2006)	초급			18
	중급	땅 짚고 헤엄치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우물 안 개구리.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하늘의 별 따기.	6	
	고급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누워서 침 뱉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둘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쇠뿔도 단 김에 빼라.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12	
11회 (2007)	초급			7
	중급	갈수록 태산. 그림의 떡. 모르는 게 약. 짠 게 비지떡.	4	
	고급	가물에 콩 나듯. 팽 먹고 알 먹기.	3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		
12회 (2007)	초급			4
	중급	가는 날이 장날. 갈수록 태산. 꿇 대신 닭. 싼 게 비지떡.	4	
	고급			
13회 (2008)	초급			10
	중급	먼 친척보다 가까운 친구가 낫다. 산 넘어 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시작이 반. 식은 죽 먹기. 티끌 모아 태산.	6	
	고급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울며 겨자 먹기.	4	
14회 (2008)	초급			9
	중급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 말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4	
	고급	강 건너 불구경. 꽃감 빼먹듯. 급할수록 돌라가라. 산 입에 거미줄 치랴. 장님 코끼리 만지듯.	5	
15회 (2009)	초급			8
	중급	그림의 떡. 세월이 약. 싼 게 비지떡.	3	
	고급	계란으로 바위 치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언 발에 오줌 누기.	5	

16회 (2009)	초급			3
	중급			
	고급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우는 아이 젖 준다.	3	
17회 (2010)	초급			12
	중급	굶어 부스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쇠귀에 경 읽기. 식은 죽 먹기.	4	
	고급	눈이 보배다. 눈은 마음의 거울.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 불난 데 기름 붓는다. 수박 겉 핥기. 울며 겨자 먹기. 이는 이복의 하나. 친구 따라 강남 간다.	8	
18회 (2010)	초급			10
	중급	급할수록 돌아가라. 산 넘어 산. 티끌 모아 태산.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하늘의 별 따기.	5	
	고급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5	
19회 (2010)	초급			8
	중급	수박 겉 핥기. 도토리 키 재기. 식은 죽 먹기. 계란으로 바위 치기.	4	
	고급	굶어 부스럼. 바람 앞에 등불. 속빈 강정.	4	

		마른 하늘에 날벼락.		
20회 (2010)	초급			12
	중급	싼 게 비지떡이다 말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	4	
	고급	불 보듯 한다. 변덕이 죽 끓듯 한다. 판에 박은듯 한다. 가물에 콩 나 듯 한다. 개 발에 편자라다. 가재는 게 편이다. 손톱 밑의 가시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이다.	8	
21회 (2011)	초급			9
	중급	등장 밑이 어둡다.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까. 공든 탑이 무너지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랴. 새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5	
	고급	세월이 약. 지성이면 감천 굴러 온 호박. 티끌 모아 태산.	4	
22회 (2011)	초급			8
	중급	겉 다르고 속 다르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	4	
	고급	땅 짚고 헤엄치다. 도랑 치고 가재 잡다. 원님 덕에 나팔 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4	

23회 (2011)	초급			8
	중급	아는 길도 물어 가라. 열 번 짚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4	
	고급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4	
24회 (2011)	초급			8
	중급	말 속에 뼈가 있다. 입에 쓴 약이 병에는 좋다. 알던 이가 빠진 것 같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4	
	고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병 주고 약 준다. 선무당이 사람 잡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4	
25회 (2012)	초급			8
	중급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개구리 울창이 적 생각 못 한다.	4	
	고급	그물에 든 고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순풍에 돛을 단배. 다 된 밤에 재 뿌리기.	4	
26회 (2012)	초급			8
	중급	배보다 배꼽이 크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놓친 고기가 더 크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4	
	고급	꿈보다 해몽이 좋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소생 끝에 낙이 온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	4	
27회	초급			8

(2012)	중급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4	
	고급	한 우물만 판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4	

부 록 2

한국어 범용 교재, 속담 책,
한국어 능력 시험에 수록된
동물 속담 목록

1. 건국대학교 교재 “한국어”에 수록된 동물 속담 목록 (52) (14)

권	과	속담	개수
1			
2			
3	27	우물 안 개구리.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2
4	1 19	개구리가 올면 비가 온다. 개미가 이사하면 비가 온다. 암탉이 올면 집안이 망한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4
5	7 8 11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쇠귀에 경 읽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3
6	7 10 16 17 20	고양이 쥐 생각.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 가재는 게 편이다. 죽 쑤어 개 준다.	5
계			14

2. 경희대학교 교재 "한국어"에 수록된 동물 속담 목록. (67) (14)

권	과	속담	개수
초급1			0
초급2			0
중급1	6 8	거미가 줄을 치면 날씨가 좋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2
중급2	2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쇠귀에 경 읽기.	7
	6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고급1	2 3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뽕 먹고 알 먹기.	2
고급2	3 5 7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3
계			14

3. 고려대학교 교재 “한국어”에 수록된 동물 속담 목록 (47) (16)

권	과	속담	개수
1			0
2	17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1
3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5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12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	
	16	쇠귀에 경 읽기.	
	18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4	9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3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쥐구멍에도 별 들 날 있다.	
5	7	개천에서 용 난다.	7
		꿩 대신 닭.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12	개 밥에 도토리.	
		새 발의 피.	
		우물 안 개구리.	
6			0
계			16

4. 서강대학교 교재 "서강 한국어" 에 수록된 동물 속담 목록. (29) (4)

권	과	속담	개수
1A			0
1B			0
2A			0
2B			0
3A			0
3B			
4A			0
4B	6	소 닭 보듯.	2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5A			0
5B	2	독 안에 든 쥐.	2
	5	쇠귀에 경 읽기.	
계			4

5. 선문대학교 교재 "한국어" 에 수록된 동물 속담 목록. (74) (15)

권	과	속담	개수
초급1			0
초급2			0
중급1	2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3
	5	우물 안 개구리.	
	10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중급2	4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3
	8	토끼 돌을 잡으려다 하나도 못 잡는다.	
	10	호랑이에게 물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고급1	7	쥐구멍에도 별 들 날 있다.	2
	8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고급2	1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7
	2	큰 고기는 깊은 물속에 있다.	
	3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4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5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계		쇠뿔도 단김에 빼라.	15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6. 성균관대학교 교재 “배우기 쉬운 한국어” 에 수록된 동물 속담 목록. (70) (19)

권	과	속담	개수
1			0
2			0
3	12	꿩 먹고 알 먹는다. 소 닭 보듯.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3
4	7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2
	8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5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	5
	3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7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6	8	호랑이에게 물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9
		가재는 게 편.	
	15	달걀로 바위 치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마과람에 게 눈 감추듯.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쥐구멍에도 별 들 날 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계			19

7. 신리대학교 교재 “유학생을 위한 톡톡 튀는 한국어” 에 수록된 동물 속담 목록. (40) (11)

권	과	속담	개수
1			0
2			0
3	1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4
	7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	
	9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쥐구멍에도 별 들 날 있다.	
4	3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6
	4	까마귀가 겁어도 살은 희다.	
	7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8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 꿩 먹고 알 먹는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5	1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1
6			0
계			11

8. 이화여자대학교 교재 “말이 트이는 한국어” 에 수록된 동물 속담 목록. (41) (4)

권	과	속담	개수
1			0
2	14		0
3	4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	2
	10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4	2	꿩 구워먹은 소식.	2
	10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	
5			0
계			4

9. 서울대학교 교재 “한국어”에 수록된 동물 속담 목록 (38) (9)

권	과	속담	개수
1			0
2			0
3	26	우물 안 개구리.	1
5	31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우물 안 개구리.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소 잃은 후에 외양간 고친다.	4
6	4	승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쇠 귀에 경 읽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4
계			9

10. 연세대학교 교재에 수록된 동물 속담 목록 (78) (13)

권	과	속담	개수
1			0
2			0
3	30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1
4	34 36	소 잃은 후에 외양간 고친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2
5	43 49 50	우물 안 개구리. 쥐구멍에도 별 들 날이 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3
6	54 55 57	쥐도 막다른 곳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승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우물 안 개구리.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여워한다. 소귀에 경 읽기.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7
계			13

"살아있는 한국어" 에 수록된 동물 속담 목록 (60개) (14)

	속담	개수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우물 안 개구리.	14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꿩 먹고 알 먹고. 새 발의 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꿩 대신 닭. 쇠귀에 경 읽기.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	
		14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에 수록된 동물 속담 목록 (103개) (25)

	속담	계수
1권	꿩 대신 닭.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달걀로 바위치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마파람에 게논 감추듯.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소 귀에 경 읽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우물 안 개구리. 새 발의 피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13
2권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개천에서 용 난다. 개 팔자가 상팔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민다.	12

	뱀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여워한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자리면 산다.	
계		25

속담 100 관용어 100 에 수록된 동물 속담 목록 (100개) (26)

	속담	계수
	가재는 개 편이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개천에서 용 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고양이 앞에 쥐. 구렁이 담 넘어가듯. 꿩 대신 닭.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독 안에 든 쥐.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뱀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 산에 가야 범을 잡지. 새 발의 피.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소 귀에 경 읽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쇠뿔도 담김에 빠라. 우물 안 개구리.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26
계		26

한국어능력시험에 수록된 한국어 속담 목록.

회	급	속담	개수
1회 (1997)	1급		6
	2급		
	3급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4급	소귀에 경 읽기. 쥐구멍에도 별 들 날 있다.	
	5급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6급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2회 (1998)	1급		2
	2급		
	3급		
	4급		
	5급		
	6급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3회 (1999)	1급		4
	2급		
	3급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4급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	
	5급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우물 안 개구리.	
	6급		
4회 (2000)	1급		0
	2급		
	3급		
	4급		
	5급		
	6급		
5 회 (2001)	1급		4
	2급		
	3급		
	4급	우물 안 개구리.	
	5급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쇠귀에 경 읽기.	
	6급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6회 (2002)	1급		8
	2급		
	3급		
	4급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쇠귀에 경 읽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5급		
	6급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빨란다. 산에 가야 범을 잡는다. 얇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7회 (2003)	1급			2
	2급			
	3급		0	
	4급		0	
	5급		0	
	6급	산 입에 거미줄 치랴.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2	
8회 (2004)	1급			3
	2급			
	3급			
	4급		0	
	5급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2	
	6급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1	
9회 (2005)	1급			3
	2급			
	3급			
	4급	소귀에 경 읽기.	1	
	5급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1	
	6급	뱀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1	
10회 (2006)	초급			5
	중급	우물 안 개구리.	1	
	고급	계란으로 바위치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쇠뿔도 단 김에 빼라.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4	
11회 (2007)	초급		0	1
	중급		0	
	고급	꿩 먹고 알 먹기.	0	
12회 (2007)	초급			1
	중급	꿩 대신 닭.	1	
	고급		0	
13회 (2008)	초급			1
	중급		0	
	고급	다람쥐 쳇바퀴 돌 듯.	1	
14회 (2008)	초급			3
	중급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1	
	고급	산 입에 거미줄 치랴. 장님 코끼리 만지듯.	2	
15회	초급		0	1
	중급		0	

(2009)	고급	계란으로 바위 치기.	1	
16회	초급		0	0
	중급		0	
(2009)	고급		0	
	초급		0	2
17회	중급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2	
(2010)	고급	쇠귀에 경 읽기.	0	
18회	초급		0	1
	중급		0	
(2010)	고급	쇠뿔도 단김에 빼라.	1	
19회	초급		0	1
	중급	계란으로 바위 치기.	1	
(2010)	고급		0	
	초급		0	4
20회	중급	쇠귀에 경 읽기.	1	
(2010)	고급	개 발에 편자라다. 가재는 게 편이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이다.	3	
21회	초급		0	1
	중급	새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1	
(2011)	고급		0	
	초급		0	2
22회	중급		0	
(2011)	고급	도랑 치고 가재 잡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2	
23회	초급		0	1
	중급		0	
(2011)	고급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1	
24회	초급		0	1
	중급		0	
(2011)	고급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1	
	초급		0	5
25회	중급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4	
(2012)	고급	그물에 든 고기.	1	
26회	초급		0	0
	중급		0	
(2012)	고급		0	
27회	초급		0	0
	중급		0	
(2012)	고급		0	

ABSTRACT

Study on the Korean Education of Proverbs for Mongolian

- Comparing Korean and Mongolian -

The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Major: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B.Bayar-Erde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fficient Korean education using Korean and Mongolian proverbs. I compared Korean and Mongolian proverbs which have animals. These kinds of proverbs are prevalent in Korean culture. Students could communicate efficiently and with substance if we provide them Korean education which includes comparing Korean and Mongolian proverbs.

In the 1st chapter, I discuss the rarity of studying about proverbs related to animals and why this kind of thesis is needed.

In the 2nd chapter, I look into 10 Korean books, 3 Korean proverbs books, and the proverbs in Topik test sheets(1 - 27). I organized the proverbs in above books. Also, I chose the animals in the proverbs as my subject matter.

In the 3rd chapter, I classify the proverbs into 3 groups based on the

animals involved. In the first group, the meanings of proverbs are same in both languages. In the second, the meanings of the proverbs are different. The third group of proverbs includes uniquely Korean proverbs which don't exist in Mongolian. Next, I explore the symbolic meaning of the main animals in Korean proverbs. Consequently, I present the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4th chapter, I apply the method of teaching Korean proverbs in intermediate level which is in level 4. The 2 ways of teaching Korean proverbs using proverbs whose meanings are the same, and using proverbs with different meanings.

I focus on the symbolic meaning of the animals in the proverbs, and how it can be used in dialogue, since the symbolic meaning and the how-to are both important.

[Key Words] Korean proverbs for education, Mongolian students, symbolic meaning, teaching through proverbs, animals in the proverbs

ЭМХТГЭЛ

Монгол оюутнуудад зориулса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амьтны сэдэвтэй
зүй р цэцэн үгий г заах аргачлалын судалгаа

-Солонгос-Монгол хэлний ижил бөгөөд харьцангуй
талуудыг жиших-

Хансон Их Сургууль
Солонгос Хэл Судлалын Тэнхим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 Мэргэжил
Бадам-Очирын Баяр-Эрдэнэ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ны ажлын зорилго нь Солонгос хэлийг суралцаж буй Монгол оюутнуудад Солонгос болон Монгол хэлэнд өргөн хэрэглэгддэг зүй р цэцэн үгсээр дамжуулж солонгос хэлийг оновчтой үр дүнтэй заахад оршиж байгаа юм. Судалгааны ажилаар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зүй р цэцэн үгсээс багагүй хувийг эзлэж буй амьтны сэдэвтэй зүй р цэцэн үгийг сонгож харьцуулсан судалгааг хийлээ. Энэхүү харьцуулсан судалгааг хийснээр Солонгос хэл суралцаж буй Монгол оюутнууд нь Солонгос хэлийг илүү сайн ойлгож, өргөн хүрээний мэдлэгийг олж авснаар харилцан яриан дээр илүү үр дүнтэй гээр ашиглаж чадах юм.

1р бүлэгт Монгол оюутнуудад зориулсан зүйр цэцэн үгсийг заах аргын судалгааны ажил нь одоог хүртэл хомс байгаа учраас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ны ажил нь зайлшгүй хэрэгтэй гэдгийг хөндлөө.

2р бүлэгт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ах бичиг 10 бот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зүйр цэцэн үгийн ном 3 бот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түвшин тогтоох шалгалтын материал(1-27дугаар)д тус тус нийтлэгдсэн зүйр цэцэн үгсүүдийг хамруулан судалж, энэхүү зүйр цэцэн үгсүүдийг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анд зориулсан зүйр цэцэн үгээр сонгож авсан болно. Сонгож авсан зүйр цэцэн үгсийн дотор амьтны нэр оролцсон байвал түүнийг амьтны сэдэвтэй зүйр цэцэн үгээр сонгож авлаа.

3р бүлэгт сонгож авсан амьтны сэдэвтэй зүйр цэцэн үгсүүдийг дараах 3 хэсэгт хувааж харьцуулсан судалгааг хийлээ. Үүнд:

Солонгос-Монгол хэлний адил утгатай амьтны сэдэвтэй зүйр цэцэн үгсүүд

Солонгос-Монгол хэлний адил утгатай боловч Солонгос хэлэнд амьтны сэдэвтэй, Монгол хэлэнд өөр сэдэвтэй зүйр цэцэн үгсүүд

Зөвхөн Солонгос хэлэнд байх амьтны сэдэвтэй зүйр цэцэн үгсүүд болно.

4р бүлэгт Солонгос хэлийг суралцаж буй 4-р шатны Монгол оюутнуудад зориулсан зүйр цэцэн үгийг хэрхэн заах аргачлалыг дараах хоёр үе шатаар үзүүлжээ. Үүнд:

Солонгос-Монгол хэлний адил утгатай амьтны сэдэвтэй зүйр цэцэн үгийг заах аргачлал

Солонгос-Монгол хэлний адил утгатай боловч Солонгос хэлэнд амьтны сэдэвтэй, Монгол хэлэнд өөр сэдэвтэй зүйр

цэцэн үгийг заах аргачлал болно.

Зүйр цэцэн үгийг заахад уг зүйр цэцэн үгэнд гарч байгаа амьтан нь юуг бэлэгдэж байгааг, уг зүйр цэцэн үгийг бодит амьдрал дээр хэрхэн яаж хэрэглэж болохыг зааж ойлгуулах нь маш чухал гэж үзсэний улмаас амьтны бэлэгдлэлийн утгыг онцлон сургалтын заах аргачлалыг боловсруулсан болно.

[Түлхүүр үгс]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анд зориулсан зүйр цэцэн үгс, Монгол оюутан, бэлэгдэл, зүйр цэцэн үгийг сургалт, амьтны сэдэвтэй зүйр цэцэн үгс.